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특수 목적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

-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을 중심으로 -

Enseignement du français pour un objectif spécifique

- Pour les étudiants en musique vocale apprenant
le français aux facultés de musique en Corée -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불어전공

김 은 혜

특수 목적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

-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을 중심으로 -

Enseignement du français pour un objectif spécifique

- Pour les étudiants en musique vocale apprenant
le français aux facultés de musique en Corée -

지도교수 심 봉 섭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불어전공

김 은 혜

김은혜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특수 목적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

-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습자 집단 중의 하나인 성악 전공자들의 프랑스어 교육 현황 파악과 프랑스어 요구 분석을 통해서 그 집단에 적합한 효율적인 프랑스어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프랑스어 교육은 크게 일반 프랑스어(français général)와 특수 목적 프랑스어(français sur objectif spécifique)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일반 프랑스어 교육은 일반적인 상식을 쌓거나 교양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차후에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 모르지만, 당장은 구체적인 목적 없이 단지 ‘프랑스어를 배운다’는 광범위한 학습 목표 아래 주로 문화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특수 목적 프랑스어 교육은 용어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프랑스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한 기능적인 언어 교육을 말한다. 특수 목적 프랑스어는 직업 활동이나 상위 교육을 받기 위해 여러 전문 분야나 학업 과정 중에서 프랑스어를 필요로 하는 성인들을 위한 교육으로써 학습자들은 학습목표가 뚜렷하고 단기간 내에 프랑스어를 배워 활용하기 원한다. 또한, 학습자의 언어요구(besoins langagiers)를 바탕으로 모든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일반 프랑스어 교육과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우리나라의 성악 전공자들은 프랑스어 학습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집단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프랑스어 교육의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특수 목적 프랑스어 학

습자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특수 목적 프랑스어 교육을 다시 특수 목적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과 구분하여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을 특수 목적 프랑스어 교육과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특수 목적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으로 간주하였다.

프랑스 예술가곡을 노래하는 성악 전공자들에게 있어서 프랑스어는 항상 쓰이는 언어이며 필요한 언어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프랑스어의 발음 법과 해석하는 능력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며 배우기 원한다.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학습 목적이 분명한 이들에게 일반 목적의 프랑스어 교육만을 한다면 교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 교육적 효과를 얻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현재 대학교 성악과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프랑스어 관련 수업들이 있지만 이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프랑스어 능력을 갖추기가 힘들다. 따라서 성악 전공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 집단의 특성과 기대에 알맞은 교육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성악 전공자들의 프랑스어 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이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성악가로 활동 중이거나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61명의 성악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프랑스어 요구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의 언어요구가 반영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선정하였고 이 학습 내용 중 일부를 가지고 성악과의 프랑스어 관련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예로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의 프랑스어 학습자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꾸준히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은 항상 존재한다.

성악 전공 학습자들처럼 어떤 목적에 의해 프랑스어를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비록 그 수가 소수일지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수 목적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을 통해 실용적인 부분에서 프랑스어 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주요어

특수 목적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

특수 목적 프랑스어

성악 전공 학습자

프랑스 예술 가곡

언어요구

학습 목표

목 차

0. 서론	1
 I. 이론적 배경	5
1.1. 특수 목적 프랑스어의 역사적 배경	5
1.2. 특수 목적 프랑스어를 지칭하는 용어의 역사	7
1.2.1. 군사 프랑스어	8
1.2.2. 과학·기술 분야의 프랑스어	10
1.2.3. 도구 프랑스어	12
1.2.4. 기능 프랑스어	14
1.3. 특수 목적 프랑스어	19
1.3.1. 특수 목적 프랑스어의 개념	19
1.3.2. 일반 프랑스어 vs 특수 목적 프랑스어	20
1.3.3. 특수 목적 프랑스어 교육의 선행연구	22
1.4. 특수 목적 프랑스어와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25
 II. 성악 전공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교육·학습 현황 분석	28
2.1. 조사 대상 선정 및 방법	28
2.2. 성악과 프랑스어 관련 교과 개설 현황	29
2.3. 교재 및 내용 분석	37
2.3.1. 교재 분석의 목적 및 분석 교재 선정	37
2.3.2. 교재 분석의 기준	38
2.3.3. 교재 분석	40
 III. 성악 전공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요구 분석	60
3.1. 언어교육에서 학습자의 언어요구 분석	60
3.1.1. 언어요구의 정의	60
3.1.2. 요구 분석의 정의 및 목적	62
3.1.3. 요구 분석 방법론	64

3.2. 조사 대상 및 목표	66
3.3. 조사 내용 및 절차	67
3.4. 조사 결과 및 분석	69
3.4.1. 프랑스어 학습경험 분석	69
3.4.2. 프랑스어 관련 수업경험 분석	73
3.4.2.1. 수업 및 진행 방식 조사	73
3.4.2.2. 교재에 대한 조사	77
3.4.2.3. 교수자에 관한 조사	80
3.4.3. 학습자의 프랑스어 요구 분석	83
IV.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안	91
4.1. 프랑스어 요구 분석을 반영한 학습 목표 및 내용 선정	91
4.1.1. 프랑스어 학습 목표 설정	91
4.1.2. 프랑스어 학습 내용 선정	92
4.2.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교수·학습 방안	99
4.2.1. 가곡의 가사 해석을 위한 ‘동사’활용 학습 방안	100
4.3. 프랑스어 관련 수업의 교수·학습 제도 개선 방안	105
V. 결론	109
Bibliographie	113
Annexe	118
[부록 1] 성악 전공자들의 프랑스어 요구 조사	118
[부록 2] 설문 조사 결과 분석	134
[부록 3] ‘기본 어휘표’ 기준에 따른 가곡의 기본어휘	150
[부록 4] ‘기본 어휘’에 속하지 않으나 가곡에 제시된 어휘	154
Résumé	156

표 목 차

[표 I-1] 일반 프랑스어 vs 특수 목적 프랑스어	22
[표 II-1] 6개 대학 성악과 프랑스어 관련 교과	29
[표 II-2] 프랑스어 관련 강좌 내용 및 수업 진행 형태	32
[표 II-3] 교재 분석 기준	40
[표 II-4] 교재의 목표	41
[표 II-5] 교재의 구성	41
[표 II-6] 각 단원 구성	42
[표 II-7] ‘A교재’의 발음 내용 제시 및 설명	46
[표 II-8] ‘B교재’의 발음 내용 제시 및 설명	47
[표 II-9] 어휘 분석을 위한 분석 대상 가곡	52
[표 III-1] 성악 전공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요구 조사 내용	68
[표 III-2] 프랑스어 디션 교재를 통한 프랑스어 발음법 습득여부	79
[표 III-3] 교수자의 전공분야	81
[표 III-4] 원하는 프랑스어 디션 수업 교수자 타입	82
[표 III-5] 교수자의 프랑스어 문법 교육 여부	82

그 립 목 차

[그림 I-1] FOS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5단계 절차	24
[그림 III-1] 프랑스 체류경험	70
[그림 III-2] 전반적인 프랑스어 능력에 관한 자가진단 평가	71
[그림 III-3] 프랑스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능력	72
[그림 III-4] 프랑스어 관련 수업 수강여부	74
[그림 III-5] 기본적인 프랑스어 학습의 필요성	75
[그림 III-6] 수업의 교재 사용 여부	77
[그림 III-7] 수업 이외의 별도의 교재 참고여부	78
[그림 III-8] 교재 참고 시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	78

[그림 Ⅲ-9]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	81
[그림 Ⅲ-10] 발음법 이외에 별도의 프랑스어 학습의 필요성	84
[그림 Ⅲ-11] 발음법 이외에 필요한 학습의 종류	85
[그림 Ⅲ-12] 성악을 위한 프랑스어 문법 학습의 필요성	86
[그림 Ⅲ-13] 프랑스 가곡·오페라를 연주할 때의 두려움 여부	87
[그림 Ⅲ-14] 프랑스어 수준이 높아질 경우, 연주에 대한 자신감 여부 ...	88
[그림 Ⅲ-15] 프랑스어 학습 의향	89
[그림 Ⅲ-16] 원하는 학습 형태	89

0. 서론

현재 우리는 세계화 시대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외국어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제도권¹⁾ 내외에서도 학습자들의 외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필요에 의해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수가 과거보다 훨씬 증가하게 되자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 방법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관심도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학습자의 언어요구를 바탕으로 교수 내용과 형식이 정해지는 학습자 중심의 외국어 교육은 학습자들의 언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높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언어 교육이 학습자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은 1970년대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 의사소통 접근법이 나온 이후부터이다. 현재까지도 외국어 교육의 주요 목적이 의사소통에 있으며 의사소통 접근법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언어 요구(besoin)와 목표(objectif)는 교육 내용 구성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프랑스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R. Richterich(1977: 53)에 따르면 “외국어를 배우는 성인의 언어요구(besoin langagier)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할 필요성에서 비롯되는 요구”이다. 물론 개인에 따라 언어요구는 크게 다를 수 있지만 학습자가 언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욕구와 필요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학습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날 프랑스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프랑스어 교육은 ‘프랑스어를 배우기’

1) 일반적으로 제도권이라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국·공립 및 사립 학교를 가리키며, 공교육이 행해지는 곳이고 비 제도권은 학교 밖을 의미한다.(김경량, 2004: 16)

라는 일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 목적의 프랑스어 교육은 교양 교육의 형태밖에 띠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프랑스어 학습에 임하는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란 어려운 일이다. 물론 국내에서 프랑스어 학습자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학습자의 다양한 목표에 맞춘 세분화된 프랑스어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학습자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프랑스어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원하는 프랑스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인 교육 모델이 FLE²⁾ 교수·학습에서 꼭 필요하다.

이처럼 일반 프랑스어 학습자들의 언어적 요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 학습자의 특수한 학습의 필요에 부응하여 언어사용 목적에 맞춘 기능적인 프랑스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를 특수 목적 프랑스어(français sur objectif spécifique, 이하 FOS)라 한다. 학습 대상자는 주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위해 언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특수한(spécifique) 목적을 가진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프랑스어 교육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FOS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프랑스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며 보다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FOS가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긴 하나 학습자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들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며 학습자의 전문분야별 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교수자도 교육이 이루어질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수자의 역할이나 기능, 자질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와 같은 한계점으로 인해 FOS 교육을 실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만 잘 된다면 성공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2)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이하FLE)

본 논문에서는 FOS처럼 일반 프랑스어 교육과 달리 실용적인 프랑스어 교육을 제시하고자 성인으로 구성된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에서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구체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에게 있어 프랑스어는 필요한 언어이긴 하나 프랑스어가 생소하며 어렵다는 인식과 더불어 직업 특성상 독어, 이탈리아어, 영어 등 다른 외국어도 다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관심은 있으나 학습하기를 주저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성악을 전공하는 학습자들은 대학에서 전공 수업 중의 하나인 ‘프랑스어 디션’ 관련 수업을 받아야 하며 프랑스 가곡을 노래해야 하는 전공의 특성상 이들에게 프랑스어는 항상 필요한 언어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 과정 중에 있는 성악 전공 학습자뿐만 아니라 성악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성인들도 직업 특성상 프랑스 가곡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정확한 가사 전달을 위해 프랑스어의 필요성을 꾸준히 느끼며 배우길 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목할 만 한 점은 이들의 프랑스어에 대한 요구는 복잡한 프랑스어 문법 지식이나 쓰기 능력 보다는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 가곡을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독해 능력이나 정확한 발음 능력을 더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 논문에서는 성악 전공자들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습자들로서 FOS의 학습 대상 개념과 일치하지만 교육 내용면에서는 개념이 조금 다르므로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을 특수 목적 프랑스어 교육이 아닌 특수 목적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특수 목적을 위해 프랑스어를 배우는 집단이며 학습자의 언어요구 분석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프랑스어 능력을 목표로 학습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특수 목적 프랑스어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성악 전공 학습자들은 전문 분야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 프랑스어나 법 프랑스어처럼 그 분야만의 고유한 전문적인 용어가 없기 때문에 학습에서 그 집단만이 필요로 하는 특수한 어휘나 담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을 특수

목적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이라고 칭하고 이들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FOS 교수법의 일환으로 성악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언어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성악을 위해 필요로 하는 프랑스어를 파악하고 현재의 프랑스어 학습 상황과 비교하여 효과적인 프랑스어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I 장에서는 FOS라는 개념과 용어가 등장하기 전까지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습자들을 위해 고안되었던 프랑스어 교육 모델들을 살펴보고 FOS가 일반 프랑스어와 대조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비교함으로써 FOS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FOS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에 대해 고찰한다. FOS의 개념을 살펴본 후에 FOS 교육과 특수 목적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의 구분되는 개념을 살펴본다. II 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현재 대학 정규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프랑스어 관련 수업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 내용 및 교육 교재 등의 분석을 통해 이들이 받고 있는 프랑스어 교육의 현황을 알아본다. 이 분석을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 및 나아가야 할 학습 방향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III 장에서는 언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언어요구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살펴보고 요구 분석의 정의와 목적, 방법론에 대해 정의한 후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실제로 배우기 원하는 프랑스어의 언어적 필요와 요구들, 학습 목표를 설문을 통해 조사·분석한다. 다음으로 IV 장에서는 성악 전공 학습자들에게 특수 목적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을 하기위해 III 장의 분석을 토대로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학습 목표 및 내용을 선정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V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고 결론 및 제언을 한다.

I. 이론적 배경

1.1. 특수 목적 프랑스어의 역사적 배경

청각구두 교수법과 시청각 교수법의 뒤를 이어 ‘외국어로 의사소통 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1970년대 탄생한 의사소통 접근법 (approche communicative)은 무엇보다 언어의 기능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언어 교육학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의사소통 접근법에서는 단지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학습자가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 즉 의사소통 능력을 획득한다는 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본질적인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접근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서 그들이 원하는 의사소통 능력 (compétence de communication)³⁾ 습득을 위해 학습 시 그들의 언어요구와 목표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의사소통 접근법이 언어 교수법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언어 교육의 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온 FOS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FOS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는 당시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의 영향이 컸다. 본질적으로 외국어 교육은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요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FOS도 마찬가지이다. FOS에 대한 요구와 관련된 정치·사회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3) 의사소통 능력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학자들마다 의사소통 능력을 정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D. Hymes: 문법적 능력, 심리 언어적 능력, 사회문화적 능력
(언어 규칙+용법 규칙)

M. Canale & M. Swain: 문법능력, 사회 언어 능력, 전략 능력

S. Moirand: 언어 구성능력, 논증 구성능력, 참조 구성능력, 사회문화 구성능력
(E. Bérard, 1991: 17-22)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연합(UN)이 설립되면서 프랑스어는 사실상 영어에게 국제어의 지위를 빼앗기게 된다. 또한 예전의 프랑스 식민지들, 특히 Maghreb⁴⁾지역에서는 아랍어와 프랑스어가 경쟁 관계에 놓이면서 프랑스어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처럼 프랑스어가 점차 국제사회에서 힘을 잃게 되자 프랑스는 자국의 언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언어 확산 정책⁵⁾이었다. 프랑스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그들의 언어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내적으로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임무를 증가시켜 이 분야를 더욱 발전시켰으며 외적으로는 이 분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 프랑스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프랑스어로 된 과학 부문 책들을 출판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S. Eurin et M. Henao, 1992: 54)

유럽 의회(Conseil de l'Europe)도 FOS가 탄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럽의회는 1972년 유럽 간 인구 이동을 촉진시키고 언어 학습을 통해 유럽 통합을 조장하기 위해 성인들에게 사회적이고 전문적인 새로운 요구들을 강조하며 외국어를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가 그룹을 결성하였다. 유럽 의회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요구, 즉 특정한 직업 분야에 있는 성인 학습자들이 가진 특수한 언어요구들을 분석하고, 이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럽 동맹 국가에 제공함으로써 기능주의적 외국어 프랑스어 교육을 했다는 점에서 FOS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C. Germain, 1993: 202; E. Béard, 1991: 32; J.-M. Mangiante et C. parpette, 2004: 37-38; J.-P. Cuq et I. Gruca, 2003: 244-245)

이와 같이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상업 교류의 빠른 변화는 성인들이

4)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를 포함하는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 언어와 종교가 같다.

5) 1975년 프랑스의 언어 관련법은 세 가지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즉 상업 분야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서 용어를 규정하고, 교육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것이다.(김진수, 2007: 262)

꾸준히 교육을 받아야 하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이들의 직업적인 활동이나 전문교육과 같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프랑스어를 배우기 원하는 성인 학습자들의 출현은 FLE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도록 했고, 국제 의사소통 언어로서 프랑스어의 위상을 보존하기 원했던 프랑스어 보급 책임자들에게 있어서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연령과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언어 교수법과는 차별화를 둔 FOS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요구로 인해 학습자의 언어적 필요에 중점을 둔 방법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도구 프랑스어부터 FO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언어 교육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2. 특수 목적 프랑스어를 지칭하는 용어의 역사

현재 사용되고 있는 특수 목적 프랑스어(FOS)라는 용어가 자리 잡기 전까지 이를 지칭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었다. 용어들의 변화는 각 용어들이 사용된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FOS와 관련된 분야의 역사적인 변화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FOS 개념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용어의 변화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FOS 관련 분야들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명칭을 짓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재의 용어로 자리 잡기까지 여러 개의 용어가 변화를 거듭하면서 결국 개념적으로 다른 것과 완전히 구별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중에게도 자연스럽게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특수 목적 프랑스어(français sur objectif spécifique)라는 용어는 과거에 기능 프랑스어(français fonctionnel)라는 명칭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재 이 명칭으로 자리 잡기까지 약 30여년 정도가 걸렸다.(G. Holtzer, 2004:

8-10)

그렇다면 FOS라는 용어와 개념이 FLE의 한 영역으로 간주되기까지 어떤 변화를 거쳐 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자.

FOS의 용어 변천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부 학자들이 교육의 목표가 분명하며 사회적 요구에 의해 등장한 최초의 기능적인 언어교육이라고 주장하는 ‘군사 프랑스어(français militaire)’는 전문적인 의사소통을 요구하고 교육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점에서 기능 프랑스어 교육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최초로 언어적 필요에 의거한 최초의 체계적인 언어교육이었다는 점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1.2.1. 군사 프랑스어

프랑스의 경우, 1920년대에 군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했던 군사 프랑스어(français militaire)가 있었는데 이를 사회적인 요구에 의한 최초의 언어교육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S. Eurin et M. Henao, 1992: 53) G. Kahn(1990: 101)에 따르면 군사 프랑스어는 교육의 목표가 분명했던 언어 학습으로 군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초보용 프랑스어 교재가 있었음을 그의 논문 “Un manuel pour l’enseignement du français aux militaires indigènes, 1927.”⁶⁾에서 언급하고 있다.

6) 군사 프랑스어 수업은 직접교수법(Méthode directe)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래는 교재 텍스트 중 일부인 «l’observation» 이다.

“A la guerre, pour avoir des renseignements, sur —l’en-ne-mi—, on doit l’—ob-ser-ver. L’observation se fait —à-la-vue— et par —l’é-cou-te. Dans l’infanterie, tous les —guet-teurs— observent le terrain du côté de l’ennemie, ils donnent —l’a-lar-me— si l’ennemie approche. Dans chaque bataillon, il y a un sergent —ob-ser-va-teur— et des soldats observateurs ; ils sont placés dans un —ob-ser-va-toi-re—. ils se servent de —ju-mel-les— avec les quelles ils voient très loin. Dans l’artillerie, il y a aussi des observateurs placés dans des observatoires. L’observation par l’écoute, se fait dans des postes placés sous terre ; les hommes de ces postes ont des appareils —a-cous-ti-que— ; avec des appareils, ils entendent très loin.”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군대에는 프랑스 식민지 국가의 병사들이⁷⁾ 상당수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다. 식민지 국가의 병사들은 프랑스어가 모국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는 그들의 프랑스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군사적 목적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시 군사 위원회(commission militaire)는 식민지 국가의 병사들이 전쟁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전지(戰地)에서 그들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랑스어 교재를 고안하였다. 이 교재가 바로 1927년에 Charles-Lavauzelle et Cie가 쓰고 Editeurs militaires가 출판한 “Règlement provisoire du 7 juillet 1926 pour l’enseignement du français aux militaires indigènes (Paris, Limoges, Nancy, 1927)⁸⁾” 이다.

이 책은 일반 프랑스어 학습 도구가 아닌 특수한 목적을 가진 최초의 프랑스어 교재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언어를 학습해야 하는 시간은 당연히 많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학습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언어를 최우선으로 습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사 위원회가 이 교재를 통해 실현해야 할 교육 목표로 분명하게 정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군인들이 그들의 상관들과 프랑스어로 대화할 때나 병영 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군인들이 전쟁이 끝난 후 각자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프랑스인 행정가와 상인 및 실업가들이 식민지 국가에서 원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나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이 새로운 단어들은 굵게 표시하고 음절을 나누어 표시해주고 있다. 이런 방식은 익혀야 할 어휘와 발음하는 방식에 대해 학습자의 주의를 끌게 해준다.

7) 프랑스 식민지 국가의 병사들 중에는 특히 아프리카 출신 병사들이 많았다.

8) 책의 저자는 군인들이었으며 1권은 총 168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듬해 160 페이지 분량의 2권을 출판한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독립하면서 이 교재는 없어졌지만 20세기 초 프랑스 군수 산업이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하면서 비 프랑스어권 나라들 중에서는 프랑스의 신무기를 구입하고 군사를 육성하기 위해 프랑스와 거래를 하려는 나라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들에게도 프랑스와 성공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 군사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 프랑스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군사 프랑스어의 두 번째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G. Kahn, 1990: 97-103)

이처럼 군사 프랑스어는 전쟁이라는 특수하고 역사적인 환경에 의해 탄생되었으며 군대에서 쓰이는 전문적인 프랑스어를 단기간에 배우는 것이 필요했던 학습자들의 언어 필요성과 사회적인 요구에 맞추어 시행된 최초의 특수목적 프랑스어 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과 교육 목표가 학습 전에 분명히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언어에 대한 최초의 기능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군사 프랑스어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완전히 사라졌지만 이후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성인, 특히 과학, 기술직 성인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기능 프랑스어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1.2.2. 과학·기술 분야의 프랑스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50년대 말 프랑스는 영어가 세계무대에서 점차 영역을 넓혀나가면서 위상이 높아지자 국제외교어로서 특권적 지위를 누렸던 프랑스어의 위치가 점점 후퇴하는 것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게 된다. 또한 프랑스는 예전 식민지였던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를 원했으며 경제적인 이익의 보호 차원에서도 프랑스어와 관련된 정책들을 재정립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G. Holtzer, 2004: 15)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외무부(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 책임 하에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어로서 프랑스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들을 위해 새로운 프랑스어 교육 정책을 내놓는다. 이 정책은 60대년 초 불어연구 보급연

구소(CREDIF)⁹⁾를 발족시켰고 과학 프랑스어 교육(enseignement du français scientifique)과 관련된 연구와 교수법을 개발토록 했다.(송정희, 1996: 321)

프랑스어 보급 정책¹⁰⁾에 의해 탄생한 과학·기술 프랑스어(français scientifique et technique, 이하 FST)는 프랑스어가 모국어인 나라의 과학과 기술 분야의 직업인이나 대학생들에게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전달해줄 목적으로 프랑스어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과학·기술 분야의 대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제공하고 출판물을 발간하는 등, 여러 면에서 이 정책을 통해 프랑스어의 위상을 되찾고자 노력했다.¹¹⁾

또한 FST는 시청각 교수법(SGAV¹²⁾)의 영향을 받아 더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능 프랑스어가 등장한 70년대 중반은 의사소통접근법이 교수법 전반에 영향을 끼치던 시기이지만 시청각 교수법을 적용한 기초불어1과 2의 연구진들이 전문 과학 언어의 부족함을 느끼고 만든 ‘과학지도를 위한 일반 어휘(VGOS¹³⁾)’가 기능 프랑스어의 효시라고 볼 수 있기 때

9) Centre de Recherche et d'Etude pour la diffusion du français

10) - 1961년 멕시코에 ‘프랑스 과학·기술 센터’ 설립

- “연구의 날(Journées d'études)”와 같은 국제 회합 및 연수 개최(Paris 1960, Strasbourg 1960, Toulouse 1962년 개최)

-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수업의 일부를 “외국 대학생들을 위한 특별 수업(Cours Spéciaux pour Étudiants Étrangers)”으로 구성

- 외무부는 Hâtier 출판사에게 FST를 가르치기 위한 교재 개발할 것을 요구함. 그 결과 교재 *Français scientifique et technique*가 1971년에 출판됨.

- Damas(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에서 프랑스 대사관 문화부서는 프랑스어로 수학수업을 하기 시작함.

11) 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의 지적인 명성이 감소되자, 1952년부터 프랑스어 보급에 대한 관심이 과학 분야에서 나타난다.(S. Eurin et M. Henao, 1992: 54)

12) Méthode Structuro-Global Audiovisuelle (구조 총체적 시청각 교수법)

SGAV 교수법은 말하기에 우위를 두고 있으며,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었다. 언어 수업의 특징 중 하나는 음성학적인 연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학습자는 소리, 리듬, 억양을 포함하여 자신들이 들은 문장을 완벽하게 모방해야 했다.

13) Vocabulaire Général d'Orientation Scientifique(1971)

문이다. 과학 분야의 일반적인 어휘인 VGOS를 시작으로 CREDIF는 FF1을 기초로 한 최초의 성인용 시청각교재 *Voix et Images de France*(1960)를 만들었고 나중에 이 교재를 참고해서 *Voix et Images médicales de France*(1972)이라는 전문 프랑스어 교재를 출판하기에 이른다.¹⁴⁾

이와 같이 프랑스의 언어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FST는 과학과 기술이라는 전문분야와 관계된 성인을 학습대상으로 한 언어교육이다. 그런데 FST가 정치적인 이유로 추진된 언어 보급 정책이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지만 FST는 과학·기술 분야로 그 범위를 한정시키고 있다. 따라서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FST의 원리를 적용시켜 프랑스어 보급 영역을 확대시키는 한편 더 많은 학습대상자들의 다양한 언어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70년대 후반 프랑스 정부 내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이외에 다른 전문 분야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소수의 성인들에게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어를 의사전달 언어(*langue véhiculaire*)로 배우기 원하는 새로운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학문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성인,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르치는 프랑스어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를 지칭하기 위해 처음에는 ‘도구 프랑스어’라고 하고 나중에 ‘기능 프랑스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송정희, 1997: 322)

1.2.3. 도구 프랑스어

역사적으로 도구 프랑스어라는 용어는 기능 프랑스어보다 먼저 나왔으며 이후에 나온 기능 프랑스어의 모델이 되었다.

14) CREDIF의 출판물 목록은 인터넷 사이트 <http://www.le-fos.com> 을 참고함.

70년대 초반 라틴 아메리카에서 등장한 ‘도구 프랑스어(français instrumental)’라는 용어는 원래 교육적 활동과 방향을 지칭하는 명칭으로서 외국에서의 프랑스어 교육이라는 특수한 여건과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해 구상된 것이며 ‘도구 언어(langue instrumentale)’라고도 한다. 도구 프랑스어는 언어를 어떤 한 유형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도구로 여겼다. 따라서 그 목적이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이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었다.(장한업 역, 1996: 73) 언어 교수법 사전(DDL)에 따르면 도구 프랑스어란 “직업 활동을 위해서 혹은 외국어로 전달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등의 다양한 이유로 화자가 모국어가 아닌 프랑스어를 도구로 간주하고 이것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목적을 행하도록 하는 의사소통 도구(outil)”를 일반적으로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R. Galisson et D. Doste, 1976: 287)

이와 같이 도구 프랑스어는 언어를 문화나 일상적인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원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간주하며 글로 쓰여진 문서를 잘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여겼다.

도구 프랑스어의 학습대상은 당장 자신에게 당면한 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프랑스어를 획득하기 원하는 것이며 표현(production)보다는 이해에, 구어보다는 문어에 더 비중을 둔 학습이다.¹⁵⁾ 따라서 도구 프랑스어는 주로 전문직이나 대학과정 중에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과학 정보 습득을 위해 혹은 학업 과정 중에 프랑스어로 된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텍스트들을 읽기 위한 읽기 교육이 중심이 된다. 이처럼 도구 프랑스어는 정확한 읽기 능력을 요구하는 학습이며 전문 텍

15) G. Alvarez(1975)가 정의한 도구 프랑스어의 7가지 특징

1. 표현보다는 이해를,
 2. 구어보다는 문어를,
 3. 미적 즐거움보다는 정보를,
 4. 전문 언어(langue de spécialité)보다는 과학 분야를,
 5. 넓은 의미의 과학 분야를,
 6. 번역보다는 내용의 이해를,
 7. 목표언어의 기초수준 이후를 의미한다.
- (D. Lehmann, 1980: 119) 재인용.

스트들은 일반인들이 흔히 말하는 ‘어려운 학문(sciences dures)’으로 간주되는 과학·기술 계통의 프랑스어 텍스트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정확성이 더욱 요구된다.¹⁶⁾

도구 프랑스어는 텍스트 이해 능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약간의 문법적 지식을 바탕으로도 해독이 가능하며 프랑스인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환경이 아니므로 말하기, 발음, 쓰기 등 다른 특별한 언어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¹⁷⁾

그러나 도구 프랑스어가 학습자들의 정해진 목표를 위해 최소한의 이해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교육범위를 읽기 능력 개발로 한정시키기는 했지만 오늘날 전문가나 비전문가 학습 대상들에게 있어서 외국어 강독을 통한 연구가 여전히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프랑스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습자들은 자주 사용할 일이 없는 프랑스어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보다는 도구 프랑스어 교육이 그들의 지식을 쌓는데 있어 훨씬 실용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도구 프랑스어라는 명칭이 프랑스에서 짧은 기간 존재하긴 했지만 FLE 에서는 여전히 과학·기술 분야와 전문 분야의 텍스트들의 기능적인 강독에 관한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다.(G. Holtzer, 2004: 13-14)

1.2.4. 기능 프랑스어

기능 프랑스어도 도구 프랑스어와 마찬가지로 전문 분야에 있는 학습

16) Denis Lehman은 도구 프랑스어가 문화적인 요소나 일상적인 요소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과학과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둔 프랑스어 교육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로서 “인문학”만큼이나 “어려운 학문”들과 관계되며 본질적으로는 전문 텍스트 읽기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S. Eurin et M. Henao, 1992: 58-59)

17) 도구 프랑스어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문법적 지식을 가지고도 해독 가능하고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실제자료(document authentique)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송정희, 1999: 206)

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프랑스어 교육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기능 프랑스어는 문서의 이해나 독해력과 같은 단편적인 언어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목표뿐만 아니라 학습대상자가 속해있는 전문 분야에서 그 분야와 관련된 프랑스어로 된 모든 정보 유형에 접근하여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된다.

그러나 학습자가 언어적 필요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야나 직업과 크게 관련이 없는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언어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언어교수법 사전(DDL)에서는 도구 프랑스어와 기능 프랑스어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G. Holtzer(2004: 207)에 의하면 “교수·학습을 통하여 직장인 학습자에게 습득시키고자 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비록 처음에는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은 그들의 직업에만 국한될 수는 없고 프랑스 사회에서의 언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능 프랑스어가 나오게 된 배경과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FF가 과학·기술 분야의 프랑스어 표현과 단어들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1971년에 VGOS가 나온 이후 이것을 시작으로 1974년 직장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전문화된 언어교육을 지칭하는 ‘기능 프랑스어(français fonctionnel)’라는 용어가 탄생했다. ‘기능 프랑스어(français fonctionnel)’는 기능적 프랑스어 교육(enseignement fonctionnel du français), 기능적 접근방법(approche fonctionnel)과 같은 용어로도 표현된다.(R. Galisson et D. Doste, 1976: 230; J-P. Cuq, 2003: 102)

기능 프랑스어라는 명칭이 처음에는 직장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 분야의 프랑스어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으나 차츰 학습자가 자신의 직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회에서 언어활동에 지장이 없는 의사소통 능력까지 필요로 하게 되면서 전문인 학습대상 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 대상을 겨냥하는 의미로 변화하게 되며 기능주의적 프랑스어 교육이라는 명칭이 오늘날 널리 퍼지게 된다.(D. Lehmann, 1980: 128)

*Dictionnaire pratique de didactique du FLE*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능적(fonctionnel)’이라는 형용사가 언어교수법에서는 1970년대 중반 등장한 기능 프랑스어와 특히 관련되며, 기능 프랑스어란 일반프랑스어(français général)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과학, 경제, 법, 스포츠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차용된 특수한(spécifique) 프랑스어”라고 정의한다.(J.-P. Robert, 2002: 82) 또한, L. Porcher(1976: 23)는 “기능 프랑스어에 관한 가장 훌륭한 정의는 학생과 관련된 어떤 것을 제공하는 프랑스어”이며 “중요한 것은 외국어로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직업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능 프랑스어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능 프랑스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앞에서(1.1)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당시 프랑스의 정치·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프랑스 외무부는 프랑스어 보급을 위해 여러 학문들 중에서도 ‘우선순위 계획(programmes prioritaires)’을 세운다. 이 우선순위 계획에서 우선권을 둔 기준은 프랑스가 판단하기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능성 있는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물론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인재들에게 프랑스어를 보급하는 직접적인 언어정책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프랑스의 언어정책에 해당되는 나라는 브라질, 한국, 이라크, 이란, 이집트, 멕시코, 나이지리아, 수단 등이었다.(S. Eurin et M. Henao, 1992: 54-59)

먼저 프랑스가 우선권을 둔 학문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와 같은 전문 분야였으며 이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직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랑스어 교육을 기능 프랑스어 교육이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 정책의 추진을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기능 프랑스어를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고 Khartoum¹⁸⁾과 Mexico 에서처럼 과학과 기술 분야 연구를 위해 각국 대사관에 과학·기술 연구 센터(CEDST)¹⁹⁾를 설립한다. 또한 1976년 프랑스 외무부는 프랑스어의 지속적인 보급을

18) 수단의 수도

19) Centres et Document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위해 프랑스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기준에 따라 프랑스어가 모국어
가 아니지만 프랑스와 관계를 맺고 있는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을 선정해
그들에게 ‘우선적 장학생 교육(Formation des boursiers prioritaires)’ 프로
그램을 제공하였다.²⁰⁾ 이 언어교육 정책은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학습
자가 전문적인 직업이나 대학 학업 과정 중에 프랑스어로 대화를 하거나
교육을 받고, 정보를 얻어야 할 때 이 분야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언어적인
요구들을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기능 프랑스어는 전문 분야에 속해있는 학습자를 강조한 프랑
스어 교육으로서 정치적 쇄신과 더불어 프랑스어 교육 확산 정책에 의해
발전하게 되었고 프랑스는 기능 프랑스어 교육을 통해 세계적으로 프랑스
어의 존재를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실현시키고자 했다.

기능 프랑스어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서 학습자들의 요구를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시작으로 FLE 분야는 새로
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언어의 기능성과 실용성이 점차 부각되기 시
작했다고 볼 수 있다.

언어교수법 사전(DDL)에 따르면 “기능 프랑스어는 준 동의어로서 과
학·기술 프랑스어(français scientifique et technique), 도구 프랑스어
(français instrumental), 전문 언어(langue de spécialité)를 포함”(R.
Galisson, 1976: 230)하는 개념이다. 이 용어들은 모두 기능적 프랑스어 교
육과 관계한다. 하지만 각 용어들의 개념이 조금씩 다르므로 명확한 구분
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하였다.

도구 프랑스어와 기능 프랑스어는 과학·기술 관련 프랑스어를 습득하
기 위한 전문 프랑스어 교육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먼저 이 두 용어의 개
념을 구분하자면, 도구 프랑스어는 외국에서의 프랑스어 교육이라는 특수
한 여건과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해 구상된 교육으로서 의사소통 능력 습
득이 아닌 최소의 이해능력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로 문서의 내용

20) 인터넷 자료 : <http://www.le-fos.com>

을 이해하기 위한 읽기 교육이다. 이에 반해 기능 프랑스어는 의사소통 상황도 고려한 언어교육으로서 더 이상 과학·기술과 관련된 언어로만 정의할 수 없고 해당 학습자의 언어적 필요에 따른 의사소통으로 정의되기 시작했다. 학습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와 상관이 없더라도 프랑스 사회에서 언어로 인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전문 언어(langue de spécialité)는 전문 프랑스어(français de spécialité, 이하 FSP)라고도 하며 1950-1960년에 직업 분야와 관련된 학습자들을 위해 어휘를 중심으로 한 언어교육을 말한다.

J.-M. Mangiante et C. Parpette(2004: 16)에 의하면 전문 프랑스어(français de spécialité, 이하 FSP)라는 용어는 직업이나 대학과정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특수한 학습대상들을 위해 제시된 교육을 지칭하며 전문 분야(의학, 법률, 농업 등)나 직업분야(관광, 호텔, 은행, 상업 등)와 관련되어 있을 때를 말한다.

언어교수법 사전(DDL)에서는 전문 언어(langue de spécialité ou langue spécialisée)를 과학 분야 언어(les langues scientifiques), 기술 분야 언어(les langues techniques), 직업 분야 언어(les langues professionnelles/métiers)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R. Galisson et D. Coste, 1976: 511)

이 분류에서는 전문 언어를 앞 장에서 언급한 FST와 직업 언어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직업 언어는 FSP 영역에 속하며 직업과 관련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법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학문을 이수하는 대학과정에서 프랑스어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처럼 FSP는 FST보다 더 넓은 학문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직업 언어와 더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업 분야 중에서도 상업 교환이 이루어지는 분야나 국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중요한 직업 분야들을 중심으로 이 분야를 프랑스어로 배우기 원하는 학습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직업 언어와 관련하여 1970년대 초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출판물²¹⁾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

21) Didier 는 «Introduction à...» 로 시작되는 시리즈를 다음과 같이 출간했다 :

는 현장 위주의 수요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었다.

1.3. 특수 목적 프랑스어

1.3.1. 특수 목적 프랑스어의 개념

1980년대 말 FLE에서는 기능 프랑스어 대신 특수 목적 프랑스어 (français sur objectifs spécifiques, FOS)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J.-P. Cuq et I. Gruca(2003: 324-325)에 의하면,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언어 정책의 부진과 기능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전문적 훈련 부족 등의 이유로 기능 프랑스어 교육이 기대에 못 미치자 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교수법 출판물들도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80년대에 기능적 프랑스어 교육이 언어 정책 면에서 후퇴의 기간이었다 할지라도 관계된 학습자 집단은 항상 존재하고 대학에서 관련 교육은 계속 이루어 지므로 FLE에서 이 분야와 관련된 FOS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특수목적 언어교육은 원래 영어권에서 특수목적 영어(ESP)²²⁾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FOS라는 명칭도 1987년 영어권에서 널리 사용되어온 영어식 표현인 ESP를 모방해 만들어진 것이다.

J.-P. Cuq(2003: 109)에 의하면 FOS는 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혹은

Introduction au français commercial(1972), Introduction au français économique(1972)

Hachette 는 *Le français des hommes des affaires(1975), Le français du secrétariat commercial(1977), Le français de l'hôtellerie et du tourisme(1980)*등을 내놓았다.

이 외에도 이 분야에 출판 생산은 끈임 없이 이루어졌으며 교재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 직업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Scénario professionnelles(1994)*가 있으며 Didier에서 출간한 직업 분야 중에서도 특정 분야를 다루고 있는 *Le français des affaires(1993), Les affaires en français(1987), Le nouveau French for business(1994)*가 있다.(G. Holtzer, 2004: 18-19)

22)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이하 ESP.

상위 교육을 받기 위해 프랑스어 능력을 획득해야 하거나 완성시키기 원하는 성인들에게 어떻게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를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서부터 나오게 된 교육방법 중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다.

FOS는 용어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가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이며 모든 교육 활동들이 학습자를 중심으로 출발한다. 학습자의 기능적, 실용적 요구에 근거하여 의사소통 활동과 언어 기능에 역점을 두는 교육이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 없이 교양 증진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언어를 배우는 일반적인 프랑스어 교육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FOS는 프랑스어가 모국어가 아니면서 주로 여러 전문직이나 대학과정 중에 있는 특수한(spécifique) 목적을 가진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하고 즉각적인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FOS는 수요자가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²³⁾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다루었던 다른 기능 프랑스어 교육보다 그것의 대상 범위가 더 넓다.

FOS 교육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 프랑스어와 비교해 FOS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3.2. 일반 프랑스어 vs 특수 목적 프랑스어

FOS라는 용어가 나온 이래로 언어교육에서는 일반 프랑스어(français général)와 특수목적 프랑스어(FOS)를 구분한다.

23) 상업 프랑스어(Le Français des affaires), 관광·호텔 프랑스어(Le Français du tourisme et de l'hôtellerie), 법 프랑스어(Le Français juridique), 의학 프랑스어(Le Français médical), 과학과 기술 분야의 프랑스어(Le Français scientifique et technique), 국제 관계 프랑스어(Le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운송수단 분야의 프랑스어(Le Français des transports), 비서 프랑스어(Le Français du secrétariat), 사회학과 인문학 분야의 프랑스어(Le Français des sciences sociales et humaine), 우체국·통신 분야의 프랑스어(Le Français de la poste et des télécommunications), 신문 프랑스어(Le Français journalistique)등.

*Dictionnaire de didactique du français*에 의하면 일반 프랑스어는 FOS가 등장하면서 이 개념과 상반된 개념을 나타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⁴⁾. 일반 프랑스어는 일반적인 상식을 쌓거나 교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목적의 프랑스어로서 차후에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 모르지만, 당장은 구체적인 목적 없이 단지 ‘프랑스어를 배우기’라는 광범위한 학습 목표 아래 교육이 행해진다.

반면 FOS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교수·학습되는 프랑스어를 가리키며 학습자의 필요해 의해 프랑스어를 배운다는 점이 일반 프랑스어와 가장 크게 구분되는 점이라 볼 수 있다.

수업 편성에 있어서도 일반 프랑스어는 대부분 회화나 작문, 문법 수업으로 편성되지만 FOS 수업은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을 통해 수업 내용과 교재가 결정되며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법률 프랑스어, 비즈니스 프랑스어, 무역 프랑스어, 관광 프랑스어, 의학 프랑스어와 같은 전문 분야와 관련된 수업을 가리킨다. 이외에도 학습자들의 언어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특수 분야가 수업내용이 될 수 있다.

S. Eurin et M. Henao(1992: 51)는 일반프랑스어와 FOS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일반 프랑스어를 FOG(Français à Orientation Générale)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FOG는 일반적으로 학교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교육을 말한다. 학생들의 학습 목표는 단지나중에 목표어로 네이티브 스피커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기 위해 언어를 배우는 것이며 학습 시 정확한 언어요구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한편 FOG는 학생들이 다른 문화에 접근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들의 모국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학생들을 지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교육적인(formatif) 목표도 가지고 있다.

24) 일반 프랑스어(français général)의 목적은 ‘프랑스어를 배우기(apprendre le français)’이며 학습 내용은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으며, 학습 절차는 말하기(oral)와 쓰기(écrit) 능력을 균등하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언어 행위 연구와 문화 접근도 목표로 한다.(J.-P. Cuq, 2003: 108)

반면 언어 사용에 있어서 특수하고 전문적인 목적을 가진 학습자의 필요를 고려한 기능적인 언어 교육을 특수목적 프랑스어(FOS)라 한다. FOS 학습자들은 주로 여러 전문 분야에 있는 특수한(spécifique) 목적을 가진 성인 학습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추구함으로써 일반 프랑스어와 구별된다. 학습자들은 목표어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의사소통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J.-M. Mangiante et C. Parpette(2004: 154)는 일반 프랑스어와 특수 목적 프랑스어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표 I -1] 일반 프랑스어 vs 특수 목적 프랑스어

	일반 프랑스어	특수 목적 프랑스어
학습 목표	광범위한 목표	정확한 목표
교육 기간	중· 장기간 교육	단기간 교육
언어 능력	다양한 주제가 다뤄지고 다양한 언어능력을 습득	특정 상황에 초점을 맞춰 목표된 언어능력만을 습득
수업 내용	교사가 완전히 숙달한 내용	교사가 미리 숙달하지 못한 새로운 내용
수업 고안	교사 혼자서 고안	해당 분야의 관계자들과 함께 고안
수업 교재	기존 교재	교재 개발
수업 활동	교수법 활동	

1.3.3. 특수 목적 프랑스어 교육의 선행연구

국내·외에서 행해진 특수 목적 프랑스어 교육의 실례를 통해 교육 절차와 성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1) 국내의 특수 목적 프랑스어 교육의 실례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1996년 1월 29일-6월 14일에 철도청 직원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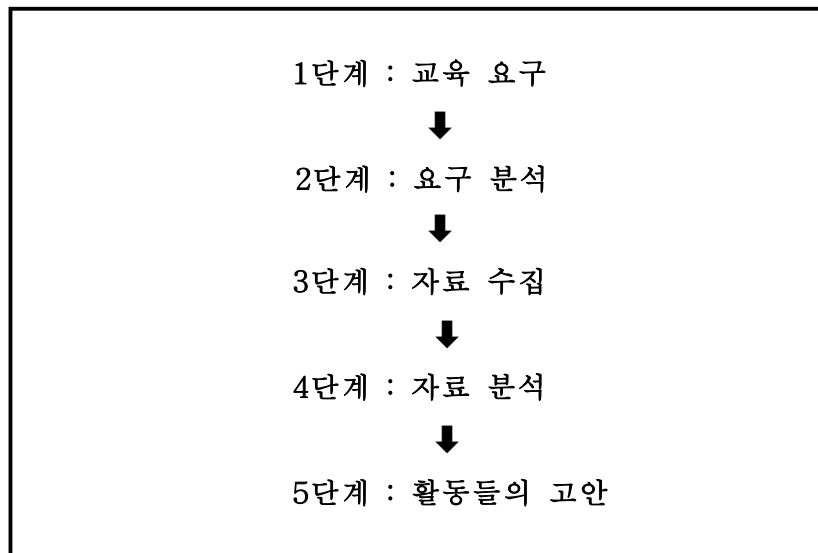
으로 한 프랑스어 강의가 있었다. 학습대상자는 프랑스의 초고속열차 T.G.V.의 기술을 전수 받으러 프랑스로 파견될 21세-45세의 철도청 직원 33명으로 6명을 제외한 27명이 과거 프랑스어를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초보자였으며 다양한 업무분야에 속해있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교과과정을 작성하였다. 33명을 2반으로 나누어 총 15명의 강사를 투입하여 앞선 설문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학습자가 최대한 프랑스어에 노출되도록 프랑스어 강의를 원칙으로 시간표를 짰으며 교육내용도 설문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교육 과정 중간에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는 일반불어능력시험과 학습자의 이해능력측정과 자가 측정 등 몇 번의 평가를 통하여 학습자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이후에 교육 내용에 반영하였다. 몇 가지 제도적 문제점들을 제외하고 만족할 만한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송정희, 1997: 330-343)

2) 외국의 특수 목적 프랑스어 교육의 사례

1998년 유럽 TACIS(Technical Assistance for Community of Independent States) 프로그램에 의해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프랑스의 농업분야를 배우기 위해 프랑스의 여러 농장에서 6개월 동안 체류해야만 했다. 이 목적을 위해 이들은 실용적인 언어 능력을 단기간에 획득해야했고 몇 개월 동안 집중적인 프랑스어 교육을 받은 후 프랑스에 갔다.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프랑스 농장에서 체류를 하면서 농업기술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기본적인 일상대화를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농업 기술과 관련된 전문 용어나 유럽 농업정책과 관련된 정보, 프랑스 농민들과 이루어질 의사소통 등을 위해 프랑스어를 배워야 하는 분명한 학습 목적이 있는 대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내용과 목표는 그들의 언어요구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일어날 특정한 의사소통 상황도 미리 분석하여 수업 내용에 제시되었으며, 언어의 4가지 기능 중 많이 쓰일 언어 기능인, 듣기를 중심으로 교육이 행해졌다. FOS 교육 프로그램은 아래 [그림 I-1]와

같이 5단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단기간에 그들이 원하는 언어 능력을 쌓을 수 있었고 곧바로 활용할 수 있었다. (J.-M. Mangiante et C. Parpette, 2004: 7-11)

[그림 I -1] FOS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5단계 절차



위의 FOS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5단계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1단계-교육의 요구: 기관은 정확한 교육 목표와 함께 교육 기간, 시간, 비용 등의 조건들내에서 특수한 대상에게 언어 연수를 보장하도록 교육기관에 요구한다.
- ② 2단계-요구 분석: 교육에 책임을 맡은 교사는 학습자의 교육 요구들을 파악 한다. 요구 분석은 교육 과정 초기에 수 시간 동안 행해진다.
- ③ 3단계-자료 수집: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교사는 연구가 이루어질 목표 상황들을 잘 알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그 분야와 관계된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의사소통 상황을 알아보아

야 하며, 정보들을 수집해야 하고, 담화들을 모아야 한다.

- ④ 4단계-자료 분석: 교사-기획자는 교육에서 이루어질 의사소통 상황들의 구성요소들을 인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잘 분석해야 한다.
- ⑤ 5단계-활동들의 고안 :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들로부터, 교사는 다루어야 할 의사소통 상황들, 연구해야 할 문화적인 측면들, 무엇보다 개발해야 할 언어의 지행들을 고찰하고 교육 활동들을 구성한다.(J-M. Mangiante et C. Parpette, 2004: 7-8)

1.4. 특수 목적 프랑스어와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앞에서(1.3.) 살펴본 바와 같이 FOS란 여러 전문직이나 대학 과정 중에 있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하고 즉각적인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프랑스어 교육이다. FOS 교육은 학습자의 언어요구에 의해 학습 내용이 결정되고 제한된 시간 내에 목표된 언어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은 FOS 교육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특수 목적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FOS와 특수 목적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을 구별하는 이유는 둘 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프랑스어를 배우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프랑스어 교육이기는 하나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특수한 목적을 가진 성인 학습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확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FOS의 학습 대상과 학습 목표 개념에서는 일치한다. 또한, 학습자들의 언어요구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언어 능력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도 FOS 교육의 방법론과 같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프랑스

어 교육을 ‘특수 목적 프랑스어 교육(FOS)’과 구별해 ‘특수 목적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이라고 칭하며 두 개념을 구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성악 전공 학습자들은 FOS 범주에 속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들을 위한 전문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1.3.3.) 예로 언급한 T.G.V. 기술을 전수 받기 위해 프랑스로 간 우리나라 철도청 직원이나 프랑스의 농업 분야를 배우기 위해 프랑스 농장에서 체류한 우크라이나 농민의 경우 각각 철도 분야²⁵⁾와 농업 분야와 관련된 전문 어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어휘목록을 프랑스어로 습득하는 것이 학습자의 언어요구이자 학습 목표가 된다. 이와 같이 보통 FOS의 수업내용은 학습자가 추구하는 특수한 목적, 특수 분야와 관련된 내용, 그 상황에 맞는 어휘 및 담화 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특징들을 분석하여 학습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성악 분야에서는 음악 용어로서의 전문 용어가 존재하긴 하나 프랑스 성악곡을 부르기 위해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이 목적인 성악 전공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프랑스 성악곡에는 고유한 전문 용어들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학습 내용과 어휘 목록이 FOS처럼 전문 분야와 관계된 특수한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둘 째,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은 FOS와 마찬가지로 목표된 언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습득하지만 프랑스인과의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프랑스 성악곡을 부르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프랑스어 능력은 프랑스어 발음법을 배우고 가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말하기와 읽기 능력 습득을 목표로 학습 내용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FOS는 학습자의 언어요구를 기초로 교육내용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프랑스에서 체류해야 할 경우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게 될 의사소통 상황이나 프랑스인과의 의사소통 상황을 미리 분석하여 수업 내용에 제시한다. 즉, FOS는 전문 분야에 있는 성인 학습자들이 뚜렷한 학습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계된

25) 철도청 직원 33명의 업무분야는 차량정비, 운전, 차량검수, 차량기술, 전기(신호체계), 토목, 설계, 행정(철도계획, 지도, 영업계획, 연수담당, 철도경영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송정희, 1997: 331-332)

프랑스어를 배우는데 부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습득까지도 목표로 한다.

셋째, 교육 기간과 관련하여 FOS는 학습자들이 단기간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며 그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기간도 주로 짧은 편이다. 이에 비해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에서는 성악 전공자들을 프랑스어를 꾸준히 필요로 하는 학습자 집단으로 분류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프랑스어 능력을 단기간에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프랑스어 활용 기간은 장기적으로 보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프랑스어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은 FOS 교육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나 개념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FOS가 아닌 특수 목적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이라고 구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Ⅱ. 성악 전공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교육 · 학습 현황 분석

본 논문에서는 FOS 교육의 구체적인 학습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성악 전공자들을 선정하였고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프랑스어 교육 개선 방안을 위해 우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악전공자들의 프랑스어 교육과 학습 현황을 파악하였다.

2.1. 조사 대상 선정 및 방법

국내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음악대학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38개교, 지방은 56개교로 총 94개이며 이 중 전문대 이상 대학의 성악과가 있는 학교는 70개로 집계되었다.²⁶⁾

본 연구에서는 성악과 전공 수업 중 프랑스어 관련 수업의 여부와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자 인지도가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서울 소재 4년제 이상인 6개 대학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학교로는 서울대, 이화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단국대학교를 선정하였다.

각 대학 성악과에 현재 개설된 프랑스어 관련 전공과목 여부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과과정 표와 교과목 해설을 우선적으로 참조하였으며 세부적인 강의 내용이나 교재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화여대, 연세대, 중앙대는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강의 계획안을 내려 받았으며 서울대, 단국대, 한양대는 학과 사무실에 전화로 직접 문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6) 교과부에 연계된 대학 알리미 사이트 참고. <http://www.academyinfo.go.kr>

2.2. 성악과 프랑스어 관련 교과 개설 현황

조사 결과 6개 대학의 성악과에 전공과목으로 프랑스어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교과목명과 수업내용은 학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조사한 내용을 학교별로 정리하여 교과목 명, 이수구분, 수강학년과 학기, 학점 및 수업시간을 아래 [표 II-1]로 정리하였다.

[표 II-1] 6개 대학 성악과 프랑스어 관련 교과²⁷⁾

학교명	교과목명	이수구분	수강학년/ 학기	학점	수업 시간
서울대	프랑스어딕션1	전공필수	2학년 2학기	2	2
	프랑스어딕션2	〃	3학년 1학기	2	2
	프랑스가곡	〃	4학년 1학기	2	2
이화여대	불어딕션 I	전공필수	2학년 2학기	1	1.5
	불어딕션 II	〃	3학년 1학기	1	1.5
연세대	불어딕션(1)	전공선택	2학년 1학기	1	2
	불어딕션(2)	〃	2학년 2학기	1	2
	불란서가곡 클래스(1)	전공필수	3학년 1학기	2	2
	불란서가곡 클래스(2)	〃	3학년 2학기	2	2
중앙대	프랑스어딕션	전공필수	2학년 1학기	2	2
	프랑스가곡문헌	전공	2학년 2학기	2	2
한양대	프랑스어딕션1	전공핵심	3학년 1학기	2	2
	프랑스어딕션2	〃	3학년 2학기	2	2
단국대	불어딕션1	전공선택	3학년 1학기	2	2
	불어딕션2	〃	3학년 2학기	2	2

위와 같이 6개 대학의 성악과 모두 2개 학기 이상 프랑스어 관련 교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과목명은 프랑스어 디션1, 2 혹은 불어 디션1, 2로 비슷하다. 서울대의 경우 프랑스어와 관련된 강좌로써 프랑스 가곡 강좌가 한 학기, 연세대는 불란서가곡클래스 수업이 두 학기 더 개설되어 있다. 중앙대는 프랑스어 디션 수업을 한 학기만 하고 한 학기는 프랑스가곡문학 수업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수업들은 성악과 전공수업으로써 성악과 학생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로 지정되어있다. 다만, 연세대와 한양대²⁸⁾, 단국대의 프랑스어 디션 강좌가 전공 선택으로 구분되어 있어 학생들이 이 과목들의 필요성을 낮게 볼 우려가 있다.

위 과목들은 보통 2학년과 3학년에 수강하도록 되어있고 이화여대는 불어 디션1, 2 가 각각 1학점, 수업시간이 1시간 30분이며, 연세대도 이화여대와 마찬가지로 불어 디션 수업이 1학점씩이나 수업시간은 2시간이며 나머지 학교들은 모두 2학점씩 2시간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대의 프랑스 가곡 강좌만 4학년 1학기에 개설되어있으며 수업시간은 2시간이며 2학점 과목이다.

성악 분야에서는 프랑스 성악곡보다 독일·이태리 성악곡들을 더 많이 듣고, 부르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 디션보다 독일어·이태리어 디션을 더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 성악과는 전공 특성상 프랑스어 디션외에도 독일어 디션과 이태리어 디션 교과목을 보통 1학년이나 2학년 때 수강 과목으로 개설한다. 그런데 프랑스어 디션은 독일어 디션과 이태리어 디션을 수강 한 후 2학년이나 3학년 수업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 있는 편이다. 또한, 프랑스어 디션이 전공 선택인 단국대는 이태리어 디션

27) 2012년도 교과과정 기준임. 단, 중앙대는 2011년도 교과과정을 참고함.

자료 분석에 있어 프랑스어디션1, 프랑스어디션2와 같이 교과목의 학수번호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개별강좌로 취급함.

28) 한양대의 프랑스어 디션 수업의 이수구분은 현재 전공핵심으로 표기되어있다. 그러나 2004년도까지 프랑스어 디션 수업을 전공 선택으로 이수구분 하였으며 한양대학교 학사과에 문의해본 결과 현재 한양대는 교과목 구분에서 전공 선택, 전공필수라는 용어 대신 전공핵심, 전공심화라고 표기하며 전공핵심 풀과 전공심화 풀 안에서 각각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정하였다고 한다. 또한 한양대는 2004년도까지 프랑스어 디션 수업 한 학기, 초급불어 한 학기를 전공 선택으로 개설한 바 있다.

이나 독일어 덕션 교과목을 전공 필수로 지정하였으며 한양대는 이탈리아 덕션과 독일어 덕션 교과목을 1학년 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기초필수로 지정했다. 연세대도 프랑스어 덕션이 전공 선택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독일어·이탈리아어 덕션도 마찬가지로 전공 선택 교과목이며 대신 불란서 가곡 클래스 교과목처럼 이탈리아 가곡 클래스, 독일 가곡 클래스, 영어 가곡 클래스는 모두 전공 필수 교과목이다. 이처럼 조사대상 대학의 덕션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성악전공자들은 독일·이탈리아어 덕션 과목을 선 수강한 후 프랑스어 덕션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보통이며 학교에 따라 프랑스어 덕션을 전공 필수가 아닌 전공 선택으로 이수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제도적인 구분은 성악 전공자들이 독일어나 이탈리아어보다 프랑스어에 더 친숙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성악 전공자들에 따르면 성악가들에게 있어서 프랑스 가곡이나 오페라를 연주해야 하는 것은 필수이므로 프랑스어 덕션 수업을 수강하지 않고 프랑스 가곡을 연주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성악 전공자들은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와 같은 제 2외국어를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성악 전공자들에 따르면 성악 분야에서 프랑스 가곡의 레퍼토리가 독일·이탈리아 가곡만큼 방대하지 않고 대중에게 덜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독일·이탈리아 가곡이나 오페라만큼 많이 연주되지는 않지만 중요도에 있어서 더 낫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악가들이 독일·이탈리아 가곡만큼 프랑스 가곡을 부를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성악 전공자들이 프랑스어를 더 어려워하고 낯설어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프랑스어 교육 방법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 대학 성악과의 프랑스어 관련 교과목의 수업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과목 해설과 수업 진행 형태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표 II-2]로 정리하였다.

[표 II-2] 프랑스어 관련 강좌 내용 및 수업 진행 형태

학교명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수업 형태
서울대	프랑스어딕션1	프랑스 예술가곡의 발음법과 해석법을 공부하여 시와 음악의 완벽한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부를 한다. 발음의 연습법, 특수한 경우의 발음법 등을 익혀 프랑스 예술가곡을 연주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다.	이론
	프랑스어딕션2	프랑스 가곡의 창법 및 프랑스 가곡의 특징을 공부하고 프랑스 가곡의 Phrasing 등을 발음법과 관련하여 공부한다. 프랑스 가곡의 발음법을 G. Fauré 및 다양한 프랑스 작곡가의 가곡에 실제 적용하여 실습함으로써 개개인의 발음상의 문제점들을 교정해 나간다.	이론
	프랑스가곡	프랑스 예술가곡을 시대별로 중요한 작곡가와 그들의 중심작품을 연구하고 연주하여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프랑스가곡을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론
이화여대	불어딕션 I	불란서 가곡의 발음상 법칙과 문장해독을 중심으로 낭만파와 그 이후의 불란서 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19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불란서 가곡에 중점을 두어 실제 연주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가사 전달과 정확한 발음 훈련을 연마한다.	이론, 연주
	불어딕션II		
연세대	불어딕션(1)	불어를 혀, 입술, 후두, 구개 등 발성기관을 충분히 사용하여 모음과 자음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이론, 연주
	불어딕션(2)		

		하여 노래에 적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실습 지도한다.	
	불란서가곡 클래스(1)	불어를 발성기관의 과장된 사용으로 모음과 자음이 정확히 발음될 수 있도록 하여 노래에 적응시키고 Gabriel Fauré를 중심으로 불란서가곡을 선정하여 시의 내용을 연구하고 악구 연결을 배우고 Brahms 가곡과 비교, 분석하고 불어딕션에 의하여 정확히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론, 연주
	불란서가곡 클래스(2)		
중앙대	프랑스어딕션	프랑스 가곡과 프랑스 오페라를 노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발음 규칙을 익히고, 프랑스 가곡을 노래부르며, 발성법에 기초하여 발음연습을 하도록 한다.	이론, 연주
	프랑스가곡문헌	성악음악의 역사적 고찰과 성악음악 형식의 하나인 가곡의 본질과 그 기원, 또한 가곡이 제기하는 미학상의 주요한 문제들과 그 역사적인 발전과 민족적 특징을 프랑스 가곡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론, 연주
한양대	프랑스어딕션1	프랑스 가곡을 연주하는데 필요한 딕션을 공부하며, IPA(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 국제 발음 기호)를 기본으로 프랑스어의 구체적인 모음의 개음·폐음의 구분, 이중모음, 가변성 이중모음, 비음, 연음법칙 등을 연구한다. 또 음절의 분리와 Intonation, 자음의 발음 연습, 연철음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프랑스 가곡을 공부한다.	이론, 연주
	프랑스어딕션2	프랑스 가곡을 연주하는데 필요한 딕션을 공부하며, 구체적으로 모음	이론, 연주

		의 개음·폐음의 구분, 이중모음, 가변성 이중모음 등을 연구한다. 또 음절의 분리와 Intonation, 자음의 발음 연습, 연철음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프랑스 가곡을 공부한다.(프랑스어 디션1을 선수강 하여야 수강 가능)	
단국대	불어디션1	프랑스곡의 가사 읽기와 가창법을 알기 위해 곡을 대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발음연습(단수모음, 복모음, 비모음, 자음 등)을 충분히 연습하고 프랑스곡의 가사 읽기와 가창을 통해 가사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힘을 기른다.	이론, 연주
	불어디션2		

위 6개 대학 성악과의 프랑스어 디션 강좌는 주로 프랑스 예술가곡 연주를 위한 프랑스어 발음에 대한 올바른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가곡의 해석을 위해 프랑스어의 기초적인 문법도 다루는 수업도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프랑스어 디션 과목 이외에도 각각 프랑스 가곡, 불란서가곡 클래스(1), (2)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디션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연계시켜 실제로 프랑스 가곡을 잘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강좌의 폭을 넓혔다.

수업 진행 형태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강의계획안을 참조하여 기재하였으며 강의계획안이 없는 학교의 경우는 해당 학교에 전화해 직접 물어보았다. 수업은 대부분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었으며 서울대와 한양대는 이론 수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프랑스 가곡을 집적 불러보고 익히는 실기 수업도 동반되고 있다. 대부분의 프랑스어 디션 수업은 프랑스 가곡을 부르기 위해서 요구되는 프랑스어의 기본적인 발음법 연습을 시작으로 특수한 발음법, 악센트, 연음등

과 같은 발음 규칙을 익히는 연습을 한다. 그 다음 앞서 배운 프랑스어 발음법을 토대로 프랑스 예술 가곡과 오페라를 직접 노래 부르며 발성법에 기초하여 발음연습을 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또한, 수업에서는 프랑스 발음법을 가곡에 적용시켜 연습하기 때문에 프랑스 가곡의 해석도 요구되고 있다. 일부 강의자는 곡의 해석을 위해 수업에서 간략하게 프랑스어 문법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학기당 일주일에 한 시간 반 혹은 두 시간씩 진행되는 수업에서 문법까지 다루기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해석은 주로 학생에게 개별 과제로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딕션 수업이외에 프랑스 가곡과 관련된 수업을 개설한 학교의 학생들은 프랑스 가곡과 오페라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프랑스 가곡 관련 수업은 딕션 수업과 연계하여 프랑스의 대표적인 가곡작곡가들의 삶을 시대별로 연구하고, 대표곡들의 시의 내용을 연구하며 시적 뉘앙스와 음악 형식에 관한 이해를 높여 프랑스 가곡을 정확하고 쉽게 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수업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성악 전공자들은 프랑스 가곡을 노래하기에 앞서 가곡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뉘앙스에 맞게 노래를 해야 하므로 노래보다는 언어에 먼저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중에 출판된 교재에 가사 해석이 나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성악 전공자들은 직접 가사를 해석하기 원하고 있었다. 직접 가사를 해석해서 자기의 느낌을 살려 노래를 하는 것과 너무 의역되어 해석된 가사를 보고 노래를 하는 것은 음악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프랑스어 딕션이나 프랑스 가곡 연구 관련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이 곡의 해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 수업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대부분의 프랑스어 딕션 수업에서는 프랑스 성악곡을 부르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프랑스어 발음법을 익히는 것에 그치며 프랑스 가곡 관련 수업에서도 프랑스어에 관한 학습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프랑스어 딕션 수업은 언어보다 성악을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프랑스 가곡이나 오페라를 부르기 위

한 발음법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며 프랑스 가곡 관련 수업도 프랑스의 대표적 작곡가들의 곡을 연구하고 디션 수업에서 배운 발음법을 토대로 노래에 적용시키는 실기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강의자가 프랑스에서 단지 몇 년간 유학을 한 성악 전공자이기 때문에 프랑스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수업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배울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학습자들은 스스로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갖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하지만 성악 전공자들에게 있어 혼자서 기초적인 프랑스어 능력을 갖추기엔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다.

위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악 전공자들에게 있어서 프랑스어는 필요한 언어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악 전공자들은 프랑스어가 낯설고 발음이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프랑스 가곡보다 이태리 가곡이나 독일 가곡을 더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 두 언어보다 덜 친숙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 프랑스어 디션 강좌가 전공 필수인 곳도 있지만 전공 선택이어서 프랑스어 디션이나 프랑스 가곡 관련 강좌를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랑스어 디션 수업을 전공 선택으로 지정하여 이 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도 졸업시험에서는 프랑스 성악곡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대학에서의 과목 이수 구분은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것에 따라 프랑스 성악곡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성악 전공자라면 프랑스 성악곡도 반드시 불러야 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성악 전공자들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프랑스어 발음법과 해석법을 위해 이에 필요한 프랑스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국내 6개 대학의 성악과 전공 교과 중 프랑스어와 관련된 강좌를 알아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시중에 출판되어 성악 전공자들이 많이 참고하는 프랑스어 디션 교재와 프랑스 예술 가곡의 해석과 관련된 교재를 분석하여 언

어적인 면에서 성악 전공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더 보완되거나 개선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2.3. 교재 및 내용 분석

2.3.1. 교재 분석의 목적 및 분석 교재 선정

교재 분석은 제작되거나 채택된 교재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재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교재를 분석·평가하는 것은 교재개발을 하기 위한 것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재가 언어적인 측면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분석 대상 교재를 선정하기 위해 먼저 앞장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6개 대학교 성악과의 전공과목 중 프랑스어 디션 및 프랑스 가곡과 관련된 수업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재에 대해 알아보았다. 프랑스어 디션 수업의 경우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는 정해진 교재가 있었으나 한양대와 단국대는 별도의 교재 없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프랑스어 디션 수업 이외의 프랑스 가곡과 관련된 수업이 개설된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의 경우 각각 ‘프랑스 가곡’, ‘불란서가곡클래스’, ‘프랑스 가곡문헌’ 수업에서는 지정된 교재 없이 강의자가 자체적으로 편집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어 디션 수업에서 서울대와 중앙대는 ‘성악인을 위한 프랑스어 디션’을, 이화여대와 연세대는 ‘프랑스 예술 가곡의 해석’, ‘프랑스어 디션과 예술가곡’을 주교재로 채택하였다.

이 장에서는 프랑스어 디션 수업에서 주로 사용되며 성악 전공자들이 프랑스 성악곡을 부르기 위해 많이 참고하는 두 교재를 선정해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 대상 교재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성악인을 위한 프랑스어 디션(1997), 수문당.

② 프랑스어 디션과 가곡연구(1997), 청림출판.

분석에 앞서 위 두 교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교재들은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것이어서 성악가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 책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언어 교육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성악가들을 위한 프랑스어 관련 교재로는 성악을 위해 만들어진 프랑스어 디션이나 프랑스 가곡의 해설과 관련된 것 밖에 없지만 이 교재들은 성악 전공자들이 노래를 위해 그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프랑스어에 접근가능하게 하고 안내 역할을 해준다는 점에 있어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교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분석의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하는데 이 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교재들은 언어 교육 교재가 아니고 노래에 중점을 둔 교재이기 때문에 교재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해 분석의 틀을 마련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악을 위해 제작된 성악관련 교재들을 분석하는 것은 음악적인 측면이 아니라 언어적인 측면에서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이 교재들을 통해 어떤 프랑스어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분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3.2. 교재 분석의 기준

교재란 교육 내용을 교육 목표, 학습자의 목적에 따라 최적화하고 현실화한 것이다.

이 장에서 분석할 교재가 이와 같은 교재의 목적에 잘 부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Hutchinson & Waters(1987: 101-102)의 ESP 교재 평가 과정 기준²⁹⁾과 Alan Cunningsworth(1984)의 교재 평가기준에서 ‘내

29) 객관적 분석에서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

용'에 해당하는 분석 기준³⁰⁾을 참고로 교재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교재의 특성상 발음 부분에 관한 내용을 주로 분석하였다. 이 교재들은 성악 전공자들이 프랑스 성악곡을 부르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언어 능력 중 프랑스어 발음을 지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성악전공자들은 주로 프랑스어 디션 교재를 통해 프랑스어 발음을 배우고 따라한다. 성악에서는 외국어 노래를 부를 때 그 나라 원어 발음을 공부해야하는데 이것을 디션이라고 하며 디션(diction)³¹⁾은 영어로 발음 또는 발성법을 의미한다. 일반 목적의 프랑스어 교재에서 프랑스어의 철자 및 기호, 발음기호와 소리를 간단히 설명하고 기본적인 프랑스어 단어를 통해 발음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어 디션 교재에서는 프랑스어 발음법에 대해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교재 분석의 자세한 기준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What type(s) of linguistic description is/are used in the materials?
 - What language points do the materials cover?
 - What is the proportion of work on each skills?
 - Is there skills-intergrated work?
 - What micro-skills are covered in the material?
 - What kinds of texts are there in the materials?
 - What is/are the subject-matter area(s), assumed level of knowledge, and types of topics in the materials?
 - What treatment are the topics given?
 - How is the content organised throughout the materials?
 - How is the content organised within the units?
 - How is the content sequenced throughout the book?
 - How is the content sequenced within a unit?
- 30) 그가 제안한 교재분석의 기초이론 중에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언어적 내용'의 세부항목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언어체계 중 어느 부분이 지도되는가?(언어형태, 언어기능, 의사소통의 유형)
 - 언어형태 중 어느 측면이 지도되는가?(음운론, 어휘, 문법, 담화)
 - 적절성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는가?
 - 어느 종류의 영어가 지도되는가?(방언, 언어양식, 직업적 화역, 언어 매체)
- (박경자 외, 2002: 235)
- 31) 성악에 사용되는 시를 노래하는 방법으로서 이 연습은 성악에 필요한 기초가 된다.
출처 : 파퓰러음악용어사전, 클래식음악용어사전, 한국언론진흥재단

[표 II-3] 교재 분석 기준

주 분석 항목	분석 기준 및 방법
교재의 목표 및 전체적인 구성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있는가? -교재의 전체적인 구성은 어떠한가? -교재의 단원구성은 어떠한가?
교재의 특성 및 체제	-교재의 목표에 부합되는가? -학습자 혼자 공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교재에 시청각적인 요소가 구성되어 있는가?
교재의 내용	-언어체계 중 어느 부분이 지도되는가? -언어형태 중 어느 측면이 지도되는가? -교재가 다루고 있는 발음 내용은 무엇인가? -발음 제시에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발음 교육을 위한 연습과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가? -어느 종류의 프랑스어가 지도되는가? -어휘의 수준은 어떠한가?

위의 [표 II-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교재 분석을 위하여 먼저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고 교재의 특성과 내용을 분석한다. 교재의 특성상 내용에서는 발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교재에 나오는 단어의 종류 및 수준을 파악해보도록 한다.

2.3.3. 교재 분석³²⁾

(1) 교재의 목표 및 구성

① 교재의 목표

아래 [표 II-4]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각 교재의 제작 목적부분에 진술된

32) 실제 교재 분석에서 A, B 교재의 분석은 각 교재의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두 교재의 비교 분석은 하지 않는다.

내용으로부터 추출한 교재의 목표이다.

[표 II-4] 교재의 목표

교재33)	교재의 목표
A교재	현재 국내에서 프랑스 가곡이 많이 연주되고 있어 프랑스 말과 딕션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성악 공부하는 학생들과 프랑스 가곡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프랑스 가곡을 노래하기 위해 만드시 알아야할 프랑스어 발음 규칙을 설명하고 주요 가곡들을 통해 발음 연습을 할 수 있게 한다.
B교재	프랑스 가곡을 노래하기 위해서 만드시 알아야 할 규칙들을 간 추리고, 많이 연주되는 곡 중에서 예를 골라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두 교재 모두 성악 전공자들이 프랑스 가곡을 부르기 위해 알아야 할 발음 규칙을 설명하고 실제 가곡에 적용하여 발음 연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② 교재의 구성

각 교재의 목차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다.

[표 II-5] 교재의 구성

교재	구성
A교재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1부에서는 프랑스어 기초 발음법 부터 특수한 발음법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1부는 11개의 장으 로 구성되어 있다. 2부는 I 과 II로 나누어져 있으며 I에서는 자 주 연주되는 곡을 선정하여 딕션 수업용 악보로 활용하였으며 II에서는 프랑스 시와 그 시가 노래에 적용되는 발음기호를 함 께 실었다.

33) 교재 A, B는 분석대상 교재목록의 제시순서와 같다.

B교재	1부(프랑스어 덕션의 연구)와 2부(프랑스 가곡의 연구)로 나누어져 있다. 1부는 프랑스어 발음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 2부는 프랑스 가곡의 연주법과 개요를 설명하고 가사의 해석 및 발음 연습을 위해 13개의 가곡을 제시했으며 마지막 장에는 악보를 실어놓았다.
-----	---

③ 각 단원 구성

두 교재의 각 단원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표 II-6] 각 단원 구성

교재	단원 구성		내용
A교재	제1부	제 1장	자모 및 철자기호
		제 2장	발음기호와 소리
		제 3장	철자와 발음
		제 4장	복모음의 발음법
		제 5장	모음의 장단 및 액센트
		제 6장	자음의 발음연습
		제 7장	무성 h와 유성h
		제 8장	특수한 발음을 가지는 단어
		제 9장	연음(Liaison)
		제 10장	모음[e] muet의 용법
		제 11장	특수한 경우의 발음법
	제2부	I	Fauré, Duparc, Chausson의 가곡
		II	시와 발음기호
B교재	제1부 프랑스어 덕션의 연구	I	알파벳(L'alphabet français)
		II	모음(Les voyelles)
		III	자음(Les consonnes)
		IV	액센트(L'accent en français)
		V	모음의 길이(Les durée des voyelles)

		VI	음절의 분리(La syllabisation)
		VII	연독(Liaison)
	제2부 프랑스 가곡의 연구	I	성악곡의 연주와 해석
		II	프랑스 예술 가곡의 개요
		III	Mélodie의 해석
		IV	곡의 해석과 발음 연습
		V	악보

(2) 교재의 특성 및 체제

교재의 특성이나 체제를 알아보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 목표에 맞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교재에서 성악가만을 위한 특별한 발음법이나 지도법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덕션 교재의 내용이 발음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발음을 위한 시청각적인 요소의 구성여부와 학습자가 혼자서 교재를 공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해본다.

먼저 A교재는 프랑스어 덕션을 위한 교재로써 총 179페이지 중에 32페이지 정도 분량에 프랑스어의 철자부터 특수한 경우의 발음법까지 발음법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놓았다. 성악 전공자들이 프랑스어를 배우는 목적이 프랑스 가곡을 노래하는데 있으므로 무엇보다 이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프랑스어 능력은 바로 프랑스어 발음을 익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재에서도 기본적인 발음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발음을 쉽게 이해하고 잘 따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모양과 조음점에 관한 그림도 삽입하였다. 또한, 발음 설명 부분에 있어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자 프랑스어 발음과 영어의 발음을 비교하여 설명하기도 하고 성악 관련 교재인 만큼 어떤 발음에 있어서는 프랑스어 회화에서의 발음과 노래할 때 발음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음 [r]의 발음 설명에 있어서 ‘프랑스어 회화에서는 후음이 섞이나 노래할 때는 이탈리아나 독일어의 [R]의 발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설명해준다. 이와 같이 프랑스어 발음이 일반 회화 발음과 노래할 때 발음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성악

전공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발음법에 해당되며 이러한 발음 설명은 성악 교재로서의 특징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인 발음설명은 꽤 자세히 교재에 기술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설명이 딱딱하고 초보 학습자가 혼자서 이 교재를 통해 프랑스어 발음을 익히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시청각 자료의 제시도 부족해 보인다. 발음 교육에 있어서 시청각자료의 제시가 때로는 자세한 이론 설명보다도 발음방법에 대한 이해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요소는 이른바 모음 삼각도와 구강을 옆에서 보았을 때 각 모음의 조음점을 표시한 그림 12개만 제시되어 있었다. 또한, 청각 자료 Tape나 CD 자료가 없어서 학습자들이 교실 수업 이외에는 모국어 화자의 발음을 접하고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B교재는 프랑스어 덕션과 가곡연구를 위한 교재로써 총 319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 발음에 관한 내용을 15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다. B교재도 A교재와 마찬가지로 발음법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으며 특징적인 부분은 ‘음절 분리’ 설명에 관한 장을 따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R]발음이나 액센트, 연음등과 같은 발음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일반 프랑스어 회화 발음과는 달리 성악가들이 연주할 때 주의해야할 발음 부분을 설명해 놓은 점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발음 설명을 위한 청각자료는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모음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모음 조음표’ 그림을 제시한 것 외에 다른 시각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교재의 2부에서는 프랑스 예술 가곡의 특징을 설명하고 프랑스 가곡을 부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A교재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곡을 소개하고 있으며 작곡가 별로 분류하여 작곡가 소개와 곡 해석, 가사 해석, 가사 밑에 발음 기호를 표기해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장에 이 곡들의 악보를 제시하였다.

이상 살펴본 두 교재의 공통된 특징을 요약해보면 두 교재는 모두 성악인 들을 위한 프랑스어 덕션 교재로서 프랑스 가곡을 부르기 위해 필요한 발음법에 관해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다. 성악가들이 프랑스 가곡을 연

주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딕션과 액센트가 중요하며 분절과 발음에도 주의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악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의 발음법 교육은 일반 프랑스어 발음 교육과는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분석 대상 교재들은 기본 발음법 설명에 충실하면서 노래를 할 때 발음에서 더 강조되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 음절, 액센트, 연음을 개별적인 장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3) 교재의 내용³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언어학적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된 7가지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 언어체계 중 어느 부분이 지도되는가?
- 언어형태 중 어느 측면이 지도되는가?
- 교재가 다루고 있는 발음 내용은 무엇인가?
- 발음 제시에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 발음 교육을 위한 연습과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가?
- 어느 종류의 프랑스어가 지도되는가?
- 어휘의 수준은 어떠한가?

먼저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언어체계와 언어형태를 알아보고 딕션 교재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발음 부분에 관한 내용에 관해 자세한 분석을 하기로 한다. 또한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악곡의 가사 분석을 통해 어휘도 분석하고자 한다.

① 언어체계와 언어형태

두 교재 모두 딕션교재로서 프랑스어의 음성학적인 규칙과 발음의 특수성과 관련된 내용을 실었다. 이러한 지식은 프랑스 성악곡을 연주하는데

34) 분석 대상 교재들은 프랑스 성악곡을 부르기 위한 발음법 및 곡 해석을 위한 교재로써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성악에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 내용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일반 언어교육 교재와는 구성과 내용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분석하는 기준이 교재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기초가 되며 절대 필요한 것으로서 교재 앞부분에서는 프랑스어 발음법을 먼저 설명하고 이 발음법을 기초로 성악곡의 가사를 올바르게 발음하고 정확한 액센트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재에서 발음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가사를 해석해놓은 부분은 있지만 해석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문법과 관련된 설명은 전혀 없다.

② 발음 내용 제시 및 설명

교재의 각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발음 교육의 내용을 살펴본다.

[표 II-7] ‘A교재’의 발음 내용 제시 및 설명

장	각 장(절)의 발음 내용	세부 내용
1장	자모 및 철자기호	
2장	발음기호와 소리	
	제1절 발음기호 (국제음성학 문자)	단순모음
		복모음
		비모음
		반모음
		e "muet"
	제2절 소리	구강모음의 기호와 소리
		복모음과 소리
		비모음
		반모음(혹은 반자음)
		e "muet"
		자음
	제3절 음절	
3장	철자와 발음	모음자 a의 발음
		모음 e의 발음
		모음 o의 발음
4장	복모음의 발음법	복모음의 발음법
		비모음의 발음법
5장	모음의 장단 및 액센트	모음의 장단

		엑센트
6장	자음의 발음연습	자음 g, q, s, c, t
		단어끝의 자음들
		복합자음
		중자음
		철자 il, ill
7장	무성 h와 유성h	
8장	특수한 발음을 가지는 단어	
9장	연음(Liaison)	Liaison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Liaison을 금하는 경우
		Liaison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
		비강모음에서의 Liaison
		Liaison에 의한 자음변화
10장	모음[e] muet의 용법	
11장	특수한 경우의 발음법	예: donc, plus, sens, tous, tandis que, puis 와 같은 단어의 발음

[표 II-8] ‘B교재’의 발음 내용 제시 및 설명

장	각 장(절)의 발음 내용	세부 내용
I	알파벳	
II	모음	1. 모음의 분류
		2. 철자부호
		3. 모음의 발음 규칙
		(1) 단순구강 모음
		(2) 복모음
		(3) 비모음
		(4) ‘e’ muet
III	자음	1. 자음의 발음 규칙
		(1) 폐쇄음
		(2) 협착음
		(3) 비음

		(4) 유음
		(5) 반자음
		(6) 무성h와 유성h
		(7) 단어의 끝 자음
		(8) 'e' muet로 끝나는 자음 groupe의 주의점
IV	액센트	
V	모음의 길이	A. 발음되는 한 자음이 뒤따라오는 액센트 있는 모음
		B. 발음되는 둘 이상의 자음이 뒤따라오는 액센트 있는 모음
VI	음절의 분리	
VII	연독	1. Liaison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2. Liaison을 해야 하는 경우
		3. Liaison으로 인한 모음의 변화
		4. 임의로 할 수 있는 경우

두 교재 모두 일반 프랑스어 문법이나 회화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음설명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발음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일반 회화에서보다 노래할 때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발음 부분인 연음, 액센트, 분절과 관련된 설명들을 따로 제시하였다.

③ 발음 연습 및 활동

이 두 교재는 발음 교재가 아니라 딕션 교재이기 때문에 발음 연습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제시하기 보다는 가곡을 통해 앞에서 배운 발음을 곧바로 적용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발음연습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A교재는 자주 연주되는 곡 12곡을 선정하여 악보와 가사 밑에 발음기호를 적어놓아 학습자들이 단어와 발음기호를 비교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발음기호가 각 단어의 발음기호를 표기한 것이 아니라 노래할 때의 음과 호흡에 따른 발음 기호를 표시한 것이라 초보 학습자가 단어와 발음기호를 비교해가면서 연습을 할 때 혼동이 있을 수 있으며 발음기호에는

연음한 발음을 적어놓고 위의 단어에는 연음 표시가 없어서 학습자들이 발음 연습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된 곡마다 가곡의 가사인 시³⁵⁾가 우선 나오고, 가사는 구절마다 번역이 되어 있다. 또한, 12곡의 악보 이외에도 악보 없이 가사와 발음기호만을 표기한 프랑스 예술가곡 51개와 오페라 아리아 32개가 실려 있어 다양한 프랑스 성악곡들의 덕션 연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B교재는 13명의 작곡가별로 나누어 총 42개의 가곡을 실었으며 이 곡들로 곡의 해석과 발음연습을 하게끔 하였다. 먼저 작곡가의 간략한 설명을 한 후 각 가곡의 음악적인 해설을 덧붙였다. 번역된 가사가 먼저 나온 후 원래 가사를 제시하였으며 각 단어 밑에 발음 기호를 표기하였다. 가사에 연음표시가 되어있으며 발음기호는 연음되는 발음으로 표기하였고 마지막 장에 42개 가곡의 악보를 모두 실었다.

④ 교육되고 있는 프랑스어의 종류

두 교재 모두 성악가들이 프랑스 가곡을 연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프랑스어 발음법을 교육하고 가사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Pierre Bernac(1978: 3)은 성악가가 연주를 하기 위해 곡의 가사를 잘 해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성악곡의 연주와 해석은 특수한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두 요소—음악적인 가사와 문학적인 가사—가 분석되고 그 후에 종합되어야 한다. 문학적 가사는 음악적 가사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견지에서 주의와 빈틈없는 정확성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점은 순수하게 기교면에서 분절(articulation)과 발음에 의해 일차적으로 분명해진다. 성악적인 난이도와 허용된 음역(tessitura), 시의 가사가 완전히 이해되어야만 한다.

35) 가곡은 시에 곡을 붙인 음악 형식이므로써 가곡의 가사는 일반 산문 형식의 글이 아니라 시이다.

이것은 청중에게는 기본적인 예의이며 시인에게는 근본적인 정직성에 관한 문제이다.”³⁶⁾

그렇다면 성악 전공자들이 표현하고 해석해야하는 가사가 어떤 것인지 분석하고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 교재들에서 교육되고 있는 프랑스어 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에 앞서 프랑스 예술 가곡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

프랑스 예술 가곡을 멜로디(Mélodie)라고 하는데 멜로디의 특징은 시와 음악의 완벽한 결합을 요구한다는데 있다. 멜로디는 독일의 리트(Lied)에 해당하는 프랑스 용어로 진지한 곡 또는 음악회용 가곡을 말한다. 이 멜로디를 완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악 전공자들은 시와 음악을 완벽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악가들은 프랑스 가곡을 정확하게 노래하기 위해서 디션과 액센트뿐만 아니라 곡 해석에도 열중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프랑스 멜로디는 문학에 기초한 음악작품으로서 시에 곡을 붙인 음악형식을 말한다. 이는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해석해야 하는 가사가 일반 산문 형식의 글이 아닌 시라는 것을 말해준다. 시란 문학의 한 장르로서 자연이나 인생에 대하여 일어나는 감흥과 사상 따위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이다. 또한 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 1) 운율성: 시에서 느낄 수 있는 말의 가락.
- 2) 함축성: 시에 쓰이는 단어의 의미는 사전에서의 의미와는 달리 여러 다른 의미를 암시한다.

36) “The performance and interpretation of vocal music raise problems of a particular kind : two elements—a musical text and a literary text—must be analysed and then synthesized. Obviously the literary text deserves the same care, the same scrupulous accuracy, in short the same respect that is demanded by the musical text. This respect will be manifested in the first place on the purely technical level, by means of the concern with articulation and pronunciation. In so far as the vocal difficulties and the tessitura permit, the poetic text must be perfectly intelligible. This is a matter of elementary politeness to the listener, and of fundamental honesty to the poet.”

영문에 대한 해석은 빼에르 베르낙(심선화 역, 2003: 23)을 참조함.

3) 회화성: 시어에 의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시의 특징 때문에 성악 전공자들은 가사를 해석하는데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가사를 해석할 때 시적인 표현 때문에 주어와 술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 그대로 해석했을 때 해석한 의미가 너무 어색해서 원래 그 곡이 의도하는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데 더 방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의 특징상 시인이 운율을 살리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법에 어긋나게 쓴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가사 해석을 더 어렵게 만든다.

성악가들은 자신이 노래하는 단어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표현을 위해서 단순히 가사를 해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번역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교재에서는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가사를 번역할 때 알아야 할 문법 규칙이나 언어적인 설명은 배제하고 가사의 번역본만 실어놓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가사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교재들이 덕션 교재라는 점에서 프랑스 가곡을 부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덕션을 주로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가사 해석도 빼놓을 수 없는 학습 요소인 만큼 교재에서는 가사에 나오는 문법 규칙을 설명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⑤ 어휘 수준

발음설명에 나오는 어휘들은 발음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들이어서 특별한 선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곡 가사의 어휘를 중심으로 성악 전공자들이 학습해야 하는 어휘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곡에 등장하는 어휘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2009 개정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표](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2011: 149-159)를 기준으로 어휘들을 먼저 기본 어휘와 기본 어휘가 아닌 것들

로 분류하였으며 기본 어휘가 아닌 어휘들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한다. 어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 대상으로 삼은 어휘들은 자주 연주되며 두 교재에 공통으로 실린 가곡 10곡을 선정하여 선정하였다.

[표 II-9] 어휘 분석을 위한 분석 대상 가곡

작곡가	가곡 목록	원작 시인
Gabriel Fauré(1845~1924)	1) Lydia	Leconte de lisle
	2) Après un rêve	Romain Bussine
	3) Clair de lune	Paul Verlaine
Henri Duparc(1848~1933)	4) L'invitation au voyage	Charles Baudelaire
	5) Chanson triste	Jean Lahor
	6) Soupir	Sully Pru'homme
Erneste Chausson(1855~99)	7) Les papillons	Théophile Gautier
	8) Le Colibri	Leconte de Lisle
	9) Le temps des lilas	Maurice Bouchor
	10) Sérénade Italienne	Paul Bourget

어휘 분석을 위해 가곡 10곡의 가사 중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어휘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1) Lydia(리디아)

Lydia, sur tes roses joues
Et sur ton col frais et si blanc
Roule étincelant
L'or fluide que tu dénoues;
Le jour qui luit est le meilleur;
Oublions l'éternelle tombe
Chanter sur ta lèvre en fleur.

Un lys caché répand sans cesse
Une odeur divine en ton sien;
Les délices comme un essaim
Sortent de toi, jeune déesse.
Je t'aime et meurs, ô mes amours,

Mon âme en baisers m'est ravie!
O Lydia, rends-moi la vie,
Que je puisse mourir toujours!

2) Après un rêve(꿈 끝 후에)

Dans un sommeil que charmait ton image
Je rêvais le bonheur, ardent mirage;
Tes yeux étaient plus doux, ta voix pure et sonore,
Tu rayonnais comme un ciel éclairé par l'aurore.

Tu m'appelais et je quittais la terre
Pour m'enfuir avec toi vers la lumière;
Les cieux pour nous entr'ouvraient leurs nues,

Hélas! Hélas, triste réveil des songes!
Je t'appelle, ô nuit, rends-moi tes mensonges;
Reviens, reviens radieuse,
Reviens, ô nuit mystérieuse!

3) Clair de lune(달빛)

Votre âme est un paysage choisi
Que vont charmant masque et bergamasques,

Jouant du luth, et dansant, et quasi
Triste sous leurs déguisements fantasques.

Tout en chantant sur le mode mineur
L'amour vainqueur et la vie opportune,
Ils n'ont pas l'air de croire à leur bonheur
Et leur chanson se mêle au clair de lune,

Au calme clair de lune triste et beau,
Qui fait rêver les oiseaux dans les arbres
Et sangloter d'extase les jets d'eau,
Les grands jets d'eau sveltes parmi les marbres.

4) L'invitation au voyage(여행으로의 초대)

Mon enfant, ma soeur,
songe à la douceur
D'aller là-bas vivre ensemble!
Aimer à loisir,
Aimer et mourir
Au pays qui te ressemble!

Les soleils mouillés
De ces ciels brouillés
Pour mon esprit ont les charmes
Si mystérieux
De tes traits yeux
Brillant à travers leurs larmes.

Là, tout n'est qu'ordre et beauté,
Luxe, calme et volupté.

Vois sur ces canaux
Dormir ces vaisseaux
Dont l'humeur est vagabonde;
C'est pour assouvir
Ton moindre désir
Qu'ils viennent du bout du monde.

Les soleils couchant
Revêtent les champs,
Les canaux, la ville entière.
D'hyacinthe et d'or;
Le monde s'endort
Dans une chaude lumière!

5) Chanson triste(슬픈 노래)

Dans ton coeur dort un clair de lune,
Un doux clair de lune d'été,
Et pour fuir la vie importune
Je me noierai dans ta clarté.

J'oublierai les douleurs passées,
Mon amour, quand tu berceras
Mon triste coeur et mes pensées,
Dans le calme aimant de tes bras.

Tu prendras ma tête malade
Oh! quelquefois sur tes genoux,
Et lui diras une ballade
Qui semblera parler de nous.

Et dans tes yeux pleins de tristesses,
Dans tes yeux alors je boirai
Tant de baisers et de tendresses
Que, peut-être, je guérirai...

6) Soupir(한숨)

Ne jamais la voir ni l'entendre,
Ne jamais tout haut la nommer,
Mais, fidèle, toujours l'attendre,
Toujours l'aimer.
Ouvrir les bras, et, las d'attendre,
Sur le néant le refermer!
Mais encore, toujours les lui tendre,
Toujours l'aimer.

Ah! ne pouvoir que les lui tendre
Et dans les pleurs se consumer,
Mais ces pleurs toujours les répandre,
Toujours l'aimer.

Ne jamais la voir ni l'entendre,
Ne jamais tout haut la nommer,
Mais d'un amour toujours plus tendre,

Toujours l'aimer.

7) Les papillons(나비들)

Les papillons couleur de neige
Volent par essaims sur la mer;
Beaux papillons blancs, quand pourrai-je
Prendre le beau chemin de l'air?
Savez-vous, ô belle des belles,
Ma babydère aux yeux de jais,
S'ils me voulaient prêter leurs ailes,
Dites, savez-vous, où j'irais?
Sans prendre un seul baiser aux roses,
À travers vallons et forêts.
J'irais à vos lèvres mi-closes
Fleur de mon âme, et j'y mourrais.

7) Le Colibri (벌새)

Le vert colibri, le roi des collines,
Voyant la rosée et le soleil clair,
Luire dans son nid tissé d'herbes fines,
Comme un frais rayon s'échappe dans l'air.
Il se hâte et vole aux sources voisines,
Où les bambous font le bruit de la mer,
Où l'açoka rouge aux odeurs divines
S'ouvre et porte au coeur un humide éclair.

Vers la fleur dorée, il descend, se pose,
Et boit tant d'amour dans la coupe rose,

Qu'il meurt, ne sachant s'il l'a pu tarir!

Sur ta lèvre, pure, ô ma bien aimée,
Telle aussi mon âme eut voulu mourir,
Du premier baiser, qui l'a parfumée.

9) Le temps des lilas (라일락의 계절)

Le temps des lilas et le temps des roses
Ne reviendra plus à ce printemps-ci;
Le temps des lilas et le temps des roses
Est passé, le temps des oeillets aussi.

Le vent a changé, les cieux sont moroses,
Et nous n'irons plus courir, et cueillir
Les lilas en fleur et les belles roses;
Le printemps est triste et ne peut fleurir.

Oh! joyeux et doux printemps de l'année,
Qui vins, l'an passé, nous ensoleiller,
Notre fleur d'amour est si bien fanée,
Las! Que ton baiser ne peut l'éveiller!

Et toi, que fais-tu? pas de fleurs écloses,
Point de gai soleil ni d'ombrage frais;
Le temps des lilas et le temps des roses
Avec notre amour est mort à jamais.

10) Sérénade Italienne(이탈리아 소야곡)

Partons en barque sur la mer
Pour passer la nuit aux étoiles.
Vois, il souffle juste assez d'air
Pour enfler la toile des voiles.

Le vieux pêcheur italien
Et ses deux fils, qui nous conduisent,
Écoutent mais n'entendent rien
Aux mots que nos bouches se disent.

Sur la mer calme et sombre, vois,
Nous pouvons échanger nos âmes,
Et nul ne comprendra nos voix,
Que la nuit, le ciel et les lames.

10곡의 어휘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의 838개 정도의 기본 어휘 중 가곡에 제시된 기본 어휘 수는 190여개로 집계됐으며 이 중에서 어떤 단어들은 꽤 중복적으로 나타났다.

‘가곡의 기본 어휘’ 이외의 가곡의 어휘에는 ‘svelte’, ‘hyacinthe’, ‘bambous’, ‘açoka’, ‘colibri’ 와 같이 일상에서 잘 안 쓰이는 단어들도 등장하지만 ‘amour’, ‘calme’, ‘ordre’, ‘point’ 와 같이 자주 쓰이는 단어들도 많이 나온다.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들을 제외하고는 ‘기본 어휘’에 제시된 단어들이 꽤 많이 나와서 초보 학습자들이 학습할 때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언어교육에서 언어 요구와 요구분석의 정의를 먼저 알아본 후, 설문 조사를 통해 성악 전공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요구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Ⅲ. 성악 전공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요구 분석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특수목적 프랑스어 교육이 일반 프랑스어 교육과 가장 구분이 되는 특징적인 요소가 바로 학습자의 요구이다.

특수목적 프랑스어 교육은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측면을 다양하게 고려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학습자의 학습목표와 언어요구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언어 교육에서의 요구 분석의 정의와 목적을 살펴본 후, FOS 분야에서의 요구분석 방법론을 통해 이 연구의 대상인 성악을 전공하는 학습자들이 성악을 위해 실제로 어떤 프랑스어를 필요로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3.1. 언어교육에서 학습자의 언어요구 분석

3.1.1. 언어요구의 정의

FLE에서 정의하고 있는 ‘요구(besoin)’란 뚜렷하고 명백한 학습자의 요구를 가리킨다. 1970년대 의사소통접근의 출현 이후 학습자(apprenant)³⁷⁾가 교육의 중심이 되면서 언어 교수법에서는 ‘요구’라는 개념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학습자의 요구(besoins des apprenants)’, ‘언어요구(besoins langagiers)’, ‘특수요구(besoins spécialisés)’, ‘학습요구(besoins d'apprentissage)’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J.-P. Cuq, 2003: 35)

실제로 언어요구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언어교육에서는 학습자가

37) R. Galisson(1976: 41)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학생’이라는 용어보다 ‘학습자’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본다.

1) 예를 들어, 평생교육을 받은 성인인 경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과 같은 용어보다 더 총칭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용어이다.

2) 교육을 받는 사람에 중심을 둔다는 점을 용어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중심이 되는 시점부터 비로소 언어요구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많아지게 됐다고 볼 수 있다.

R. Galisson et D. Coste(1976: 68-69)에 의하면, 외국어 교수법에서 요구라는 개념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에서 대두되었으며, 교육 대상자의 언어요구(besoins langagiers)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그 요구(demande)에 더 적합한 교육과정을 계획할 수 있게 해준다고 언급하였다³⁸⁾.

이처럼 외국어 교수법에서의 요구란 교육재료와 방법을 외국어의 실제 사용에 더 적합하도록 제작하기 위해서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요구 개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다.

R. Richterich(1973: 36)는 “외국어를 배우는 성인의 언어요구를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할 필요성에서 비롯되는 요구³⁹⁾”라고 정의하며 언어요구와 상황의 관계를 밀접하게 보고 있다.

D. Coste(1977: 53)는 “요구는 명확하게 나타나기가 어려우며,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적으로 간주된 요구도 Richterich가 위에서 정의한 요구의 개념처럼 사회적 환경의 영향에서 생긴 것이다”라고 정의했다.⁴⁰⁾

H. Besse et R. Galisson(1980: 45)은 그의 저서에서 요구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 가지 경우, 즉 학습자가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때와 직업이나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학습자에게 요구하

38) “On est ainsi amené à parler des «besoins langagiers» d’une population, d’un groupe ou d’un individu et à considérer qu’une analyse fine de ces besoins permettra de mieux ajuster la formation à la demande.”(R. Galisson et D. Coste, 1976: 68-69)

39) “les besoins langagiers des adultes apprenant une langue vivante correspondent aux exigences nées de l’utilisation de la langue dans la multitude des situations de la vie sociale des individus et des groupes.”(R. Richterich, 1985: 25)

40) “la notion du besoin étant réputée difficile à cerner, on se range volontiers(son succès en témoigne) à une définition comme celle de Richterich, qui a pour corollaire apprenant et commode que l’examen des besoins peut pratiquement se ramener à l’inventaire des comportements langagiers mis en rapport avec les circonstances de leur production.”(R. Richterich, 1985: 25)

는 상황, 외국어를 배워야만 하는 뚜렷한 학습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다고 본다.⁴¹⁾

L. Porcher(1978)는 언어요구의 분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요구 개념을 분류하였다.

첫째, 학습자가 어떤 것을 위하여 그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배워야 할 것인가?

둘째, 앞의 사실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하여, 그 언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셋째, 위에서 언급한 언어능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⁴²⁾(R. Richterich, 1985: 93, 재인용)

지금까지 언어요구 분석을 살펴보기에 앞서 언어 교육에서 말하는 다양한 요구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처럼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요구는 상황에 따라 개인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언어요구 분석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요구 분석은 학습자의 요구를 찾아내는 과정으로서 교육 과정 개발과 교재 개발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므로 그 정의와 목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3.1.2. 요구 분석의 정의 및 목적

언어 교육에 있어 요구 분석(analyse des besoins)은 학습자 중심의 교

41) “Dans les études portant sur l’analyse des besoins langagiers, on peut remarquer que ces besoins recouvrent, selon les contextes, trois réalités connexes mais distinctes: ce que l’apprenant désire apprendre, ce que l’environnement (professionnel, social, culturel) exige de lui, ce qu’il lui faut apprendre en langue étrangère.”

42) - ce pour quoi l’apprenant veut ou doit apprendre telle langue;
- ce que l’on a besoin de savoir faire, sur le plan langagier, pour être en mesure de réaliser ce qui précède;
- ce dont on a besoin, sur le plan linguistique, pour construire les compétences langagières mentionnées ci-dessus.

육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요구분석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특정 학습자 집단의 학습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사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제반활동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언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가 언어와 관련되어 있다.(박경자 외, 2002: 33)

E. Bérard(1991: 33)는 요구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의 신분, 학습 수준, 성격 등이 어떠하며,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외국어의 어떤 영역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어 하는지, 또한 어떠한 능력(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을 개발시키고자 하는지에 대해 꽤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교육목표설정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언어요구 분석이 지닌 대표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R. Richterich(1985: 86-87)는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요구 분석은 수집한 자료(donnée)를 근거로 하여 교육에서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를 한정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 요소 중 하나는 학습목표를 설정하는 것인데 요구 분석에서 선택한 자료에 따라 목표를 정당화시키고,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칠 것을 설명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다른 한 요소는 요구 분석이 학습내용을 한정하게 하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여 학습자가 습득할 지식, 활용, 행동에 이르도록 정보를 주는 것이다. Richterich et Chancerel(1977)는 학습 전에 그리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요구의 동일화 개념 모델⁴³⁾을 제안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요구 분석의 문제점도 제기하였다.

43) - 언어요구 개념은 미리 결정된 의사소통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언어사용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교육체계의 전체적 구성성분에 따라서 정의되어야 한다.

- 개인의 요구는 사회와 제도의 요구와 분리할 수 없다. 즉 요구는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 요구의 동일화는 목표와 내용의 한정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 상호관계를 자각, 결정, 조절하는 교육적 수단이다.

- 위의 사실로부터 요구의 동일화 작업은 여러 번 행해질 수 있으며, 규칙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다.(R. Richterich, 1985: 106-107)

- 학습자가 요구 정의 과정에 관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기관이나 고용주가 학습 요구를 정의하고 요구 분석을 실행한다면 학습자는 제한된 능력을 획득하게 될지도 모른다.
- 학습자와 기관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예상해야 한다.
- 학습자들의 요구는 학습 과정 중에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전에 정의된 요구들을 조정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 요구 분석 과정이 얻어진 결론 보다 더 중요해 보일 수 있다.

요구 분석에 관한 수많은 비판이 있고 이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의심된다 할지라도 요구 분석은 학습자를 더 잘 고려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E. Bérard, 1991: 33-34)

이와 같이 요구 분석이란 특정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언어 내용과 학습 과정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도구이며 기법, 절차이다.

위의 정의들을 바탕으로 특수 목적 언어교육에서는 그 상황에 맞는 요구 분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목표와 동기가 확실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언어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알맞은 분석 방법을 실시하여 그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요구 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 관해 알아보도록 한다.

3.1.3. 요구 분석 방법론

요구 분석은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외국어 교육·학습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특수 목적 프랑스어에서의 요구 분석이란 언어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언어를 분석하는 것이다.

요구 분석을 시행할 때에는 언어를 누구에게 사용할 것인가를 포함하여 그 언어가 사용될 상황과 언어가 필요하게 되는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

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될 의사소통의 유형⁴⁴⁾과 요구되는 언어 능숙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박경자 외, 2002: 37)

R. Richterich(1973)은 요구 분석을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요구 정의를 위한 모델로, 언어요구를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으로 구별했다. 객관적 요구는 예상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반면, 주관적 요구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객관적 요구를 분석하여 언어요구를 확정 할 수 있다.(R. Richterich, 1985: 96-97)

다음은 요구 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정보 수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교육 프로그램 고안자(concepteur)는 학습자가 그의 직업 활동이나 학업과정 중에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누구와 말하게 될 것인지, 어떤 주제로, 어떤 방식으로, 외국어로 어떤 글을 읽거나 쓰게 되는지 등에 관해 여러 가점들이 형성될 것이다.⁴⁵⁾(J.-C. Mangiante et C. Parpette, 2004: 22)

John & Price-Machado(2001)는 특수 목적을 위한 영어 교육에서 요구 분석의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였는데 설문지나 인터뷰, 학습자의 학습 방법 조사 등 주로 조사 방법에 관해 언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질문과 조사: 학생, 고용주 등에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할 수 있다.
2. 전문가, 학생, 인터뷰하기: 특정한 언어적 사용에 대하여 인터뷰를 통해 담화상의 특정한 언어적 아이템의 사용과 기능을 알 수 있다.
3. 관찰, 직업-탐색, 그리고 분석: 학교나 직장에서 관찰은 언어적, 문화적, 화용론적 양상을 밝혀 낼 수 있다.

44) 예를 들어 쓰기, 말하기, 공식적 유형, 비공식적 유형 등.

45) - À quelles utilisations du français l'apprenant sera-t-il confronté au moment de son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universitaire?
- Avec qui parlera-t-il?
- À quel sujet?
- De quelle manière?
- Que lira-t-il?
- Qu'aura-t-il à écrire?

4. 학습자들의 학습 스타일과 다양한 정보를 조사하기: 학습과 교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5. 작업의 유형: 어떻게 목표 언어 상황에서 팀으로써 일하고, 문화적으로 혼용된 그룹 내에서 어떻게 협상에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성공하지 못하는지 분석한다.
6. 학생들-혹은 그들의 감독자-수업 후, 수업 중, 구어나 글로 표현하기: 심사숙고하는 동안 현재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고 어떻게 고안되는지 결정할 수 있다.(이상숙, 2005: 68, 재인용)

지금까지 언어교육에서의 요구 분석의 정의 및 목적, 요구 분석 방법론에 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인 성악 전공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요구 분석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가장 보편적이며 분석이 용이하고 다수를 연구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설문조사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예비·후속 조사를 위해 그리고 조사가 피상적 정보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면접과 관찰 방법도 함께 활용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설문을 통해 본 연구의 대상자인 성악 전공 학습자들의 프랑스어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3.2. 조사 대상 및 목표

조사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성악 전공자들로서 대학에서 전공과목으로 프랑스어 덕션이나 프랑스 가곡 관련 수업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총 61명으로 모두 한국어가 모국어이며 대학교에서 성악과 3, 4학년에 재학 중(39%)이거나 대학원생(17%), 현재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합창단원(14%), 솔리스트(3%), 취업준비 중(2%)이거나 유학준비 중(1%)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별로는 만 20~29세 사이에 응답한 학습자가 62%로 제일 많았으며, 만 30~39세

가 30%로 그 뒤를 이었고 40대, 50대 응답자가 각각 6%, 2%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57%, 여자가 43%로 비교적 남·여 고르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력별로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응답자가 39%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석사 과정에 재학 중, 또는 졸업자가 36%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가 15%, 대학교 졸업자가 10%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는 성악 전공자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프랑스어 교육 방법 및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또한, 성악과 전공 수업으로 이수했던 프랑스어 관련 수업경험과 사용교재, 강의자에 관한 학습자의 의견을 통해 II장에서 분석한 성악 전공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교육·학습 현황과 비교해 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3. 조사 내용 및 절차

설문 조사 내용은 네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학습자의 프랑스어 학습 경험을 조사하여 현재 학습자의 프랑스어 수준을 알아본다. 두 번째 조사 영역은 수업경험에 관한 조사로써 학습자들이 성악과 전공 수업으로 이수한 프랑스어 관련 교과목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 조사에서는 II장에서 분석한 수업 및 교재, 수업을 담당했던 교수자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학습자가 수업이나 교재, 강의를 통해 습득할 수 있었던 프랑스어 능력과 한계점을 알아보았다. 세 번째로 학습자의 프랑스어 요구에 관한 조사를 한다. 이 조사는 설문지의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서 학습자가 필요로 하고 배우고자 하는 프랑스어 및 원하는 프랑스어 수준을 파악한다.

설문 문항 수는 총 61개이며 조사 내용을 문항 영역 및 내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성악 전공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요구 조사 내용

문항 영역		내용	문항 수
프랑스어 학습 경험		프랑스 체류 경험, 학습 경험, 프랑스어 수준	8
수업경험에 관한 조사 (성악과 전공 수업 중 프랑스어와 관련된 교과목)	수업 및 진행 방식 조사	프랑스어 관련 수업 수강 여부, 수업의 내용, 수업 진행 형태, 수업 내용 및 진행 방식의 개선점	13
	교재에 대한 질문	교재 사용 유·무, 교재 선택 이유, 교재 내용의 만족도, 개선/첨가해야 할 점	7
	강의자에 관한 질문	강의자 전공 분야, 강의자 만족도, 강의자의 프랑스어 교육 내용 등	5
프랑스어 요구에 관한 질문		학습 목적, 프랑스어의 어려운 점, 프랑스어의 중요도, 중요한 학습 기능, 문법 학습, 문화 학습, 원하는 프랑스어 수준 등	24
응답자의 일반적 성질		성별, 나이, 직업	4

설문은 총 6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58개 문항은 폐쇄형 질문으로 이루어졌고 프랑스 체류기관, 대학에서 들은 프랑스어 관련 수업 그리고 개인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프랑스어 교육 방법에 관한 질문만 개방형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개방형 질문의 수를 늘리고 싶었으나 이 경우, 학습자들에게 응답의 부담을 주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응답 시간의 문제, 학습자가 모든 문항에 답할 확률이 높은 폐쇄형 질문 방식으로 설문 내용을 구성하는데 노력하였고 질문의 응답이 한정적이고 특정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기 위해 연구자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그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성악 전공자들의 오랜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문항의 내용 및 응답지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관찰은 연구자 주변의 성악 전공자들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성악 전공자들의 요청에 의해 프랑스 성악곡의 발음과 가사 해석을 지도해줄 기회가 있을 때에도 이들의 프랑스어 요구와 필요성, 프랑스어에 대한 힘든 점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뷰는 면대면과 전화통화로 이루어졌으며 내용은 구체적인 질문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행되며 설문에서 다룰 내용을 중심으로 했으며 대화 내용은 연구자가 그 즉시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성악 전공자들의 관찰과 사전 인터뷰 실시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문의 응답지 내용을 구성했다.

설문조사 실시는 국내·외에서 동등한 비율로 이루어졌으며 국내의 경우는 연구자가 설문지를 직접 배포·회수하였고 조사대상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메일로 설문지를 송부하여 회수하였다.

3.4. 조사 결과⁴⁶⁾ 및 분석

3.4.1. 프랑스어 학습경험 분석

이 조사는 성악전공 학습자들의 현재 프랑스어 수준을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프랑스어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할 때 참고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중 어떤 분야가 학습자에게 가장 많이 개발되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들이 관심 있어 하고 필요로 하는 언어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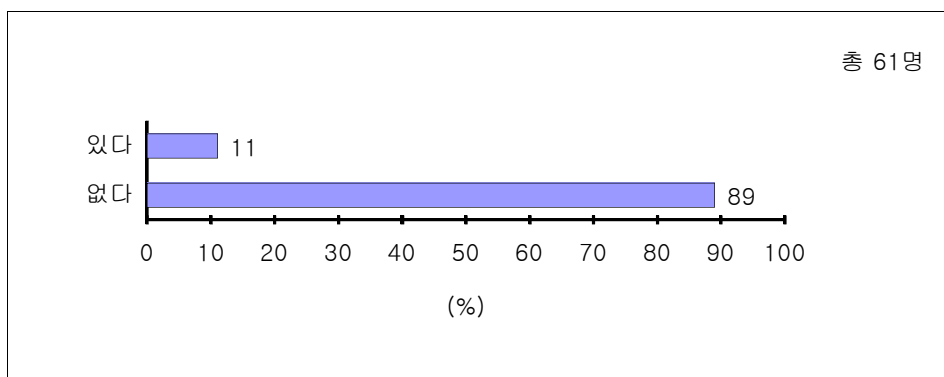
먼저 프랑스어를 접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체류 경험의 유무를 알아보고 프랑스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경우, 프랑스어를

46) 설문 조사 대상자들에게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본인에게 가장 해당되는 사항 하나만을 선택하여 체크하도록 하였으나 응답자가 한 문항에 여러 개의 답을 체크한 경우, 그대로 결과에 반영하였다.

배우게 된 계기를 조사하였다. 또한, 나중에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한 학습 방안을 제시할 때 사용하고자 응답자 스스로 자신의 프랑스어 수준을 평가하게하고 이와 더불어 프랑스어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보았다.

프랑스 체류 경험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대부분의 학습자(89%)가 프랑스에서 체류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조사 대상 학습자의 11%가 프랑스에서의 체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체류기간은 1~3개월 동안으로 아주 짧아 프랑스어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 체류경험의 유무는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나 응답자 대부분이 이런 특수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 프랑스 체류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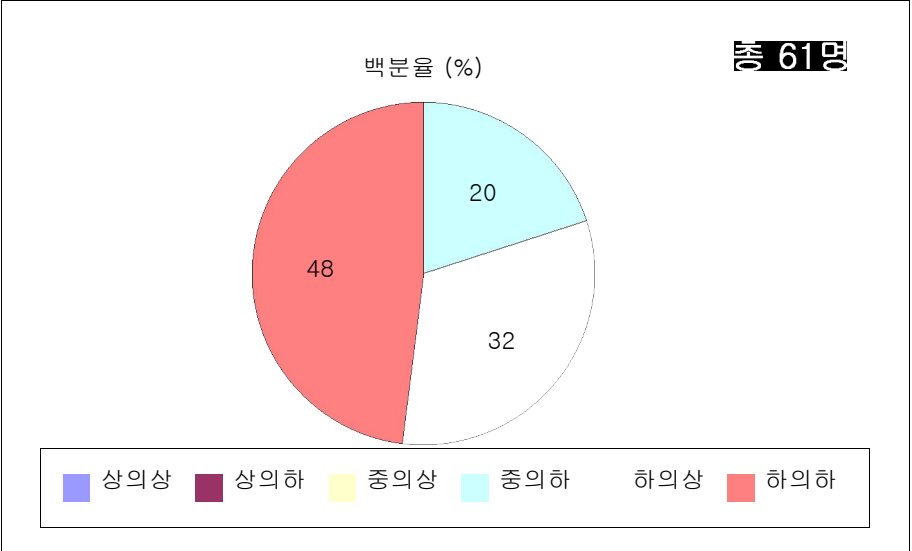
본 설문조사는 프랑스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성악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응답자들 모두 프랑스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언제, 어떤 계기로 프랑스어를 처음 배웠는지 알아보았다.

‘성악과에서 전공수업으로’ 프랑스어를 처음 배웠다고 답한 응답자가 62%를 차지해 제일 많았으며 이 결과는 II장에서(2.2.) 조사한 성악과의 프랑스어 관련 교과 개설 중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덕션 수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때 제 2외국어 수업

(15%)’과 ‘대학교 때 교양수업(15%)’으로 프랑스어를 학습했다는 응답이 동일한 비율로 그 뒤를 이었다. ‘학원 등 사설교육기관’ 이나 ‘기타’에서 개인 과외수업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3%, 5% 정도였다.

다음으로 본인이 느끼는 프랑스어 실력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는 [그림 Ⅲ- 2]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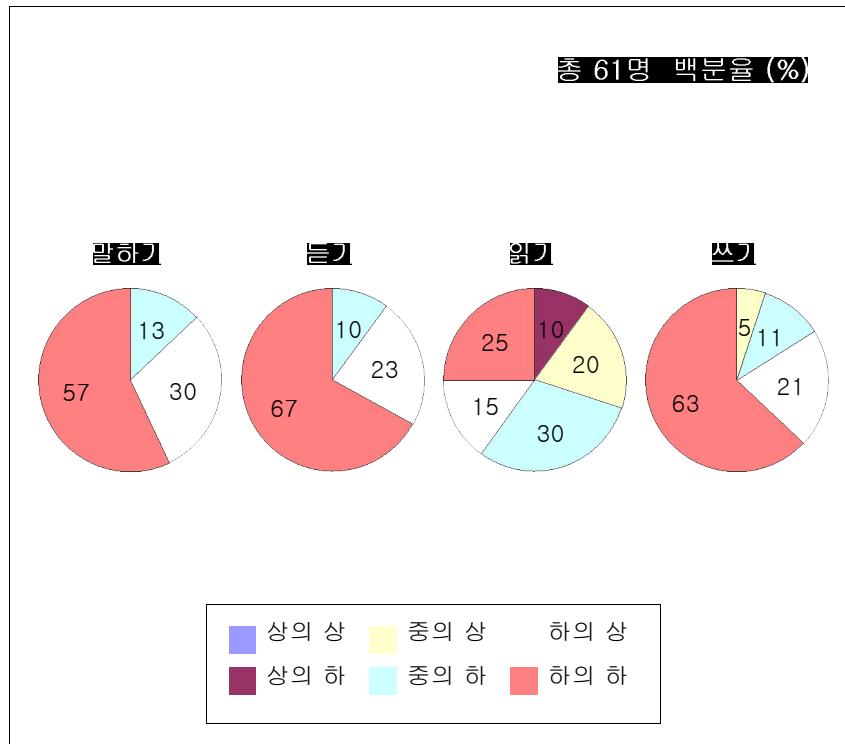
[그림 Ⅲ-2] 전반적인 프랑스어 능력에 관한 자가진단 평가



본인의 전반적인 프랑스어 능력을 여섯 단계로 나누어 스스로 평가하게 하였는데 절반 정도의 응답자들이 본인의 프랑스어 능력을 ‘하의 하’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으며(48%), 나머지 응답자들의 프랑스어 실력에 대한 평가도 ‘하의 상(32%)’, ‘중의 하(20%)’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프랑스어 초보수준이며 프랑스어 학습의 부족으로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아래 [그림 Ⅲ-3]은 더 구체적으로 언어의 네 가지 기능에 대한 자가 평가 조사 결과이다.

[그림 Ⅲ-3] 프랑스어 말하기·듣기·읽기⁴⁷⁾·쓰기 능력



위 결과와 같이 읽기 능력을 제외한 말하기·듣기·쓰기 능력에 대한 평가도 ‘하의 하’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 전반적인 프랑스어 능력 평가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읽기 능력이 ‘중의 하’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상의 하’ 수준이라고 응답한 학습자도 10%나 되었다. 읽기 능력은 다른 언어 능력보다 응답자들이 가장 자신감을 보인 영역이었으며 이러한 응답결과는 성악 전공자들이 프랑스 성악곡을 부르기 위해 가사를 올바르게 읽어야 하는 능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기능보다 더 학습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하의 하’란 대답도 25%나 나와 응답자들 중의 상당수가 프랑스어 철자를 제대로 읽는 것조차도 자신감 없어 하

47) 이 조사에서 프랑스어 ‘읽기’능력은 성악 전공 학습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장의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읽기 능력이 아니라 소리와 철자의 호응 관계에 유의하며 단어를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으로 제한한다.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프랑스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설문조사의 첫 번째 영역인 ‘프랑스어 학습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모두 프랑스어를 배우긴 했지만 프랑스어에 대해 낮은 자신감을 보였으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프랑스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조사 영역인 ‘대학교에서 성악과 전공 수업으로 수강한 프랑스어 관련 수업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를 알아보도록 한다.

3.4.2. 프랑스어 관련 수업경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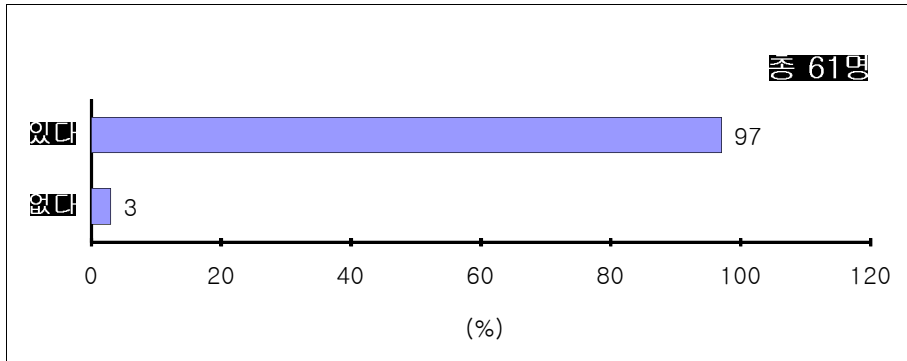
성악과 전공수업으로 개설된 프랑스어 관련 수업이란 II장에서 조사한 ‘프랑스어 디션’ 혹은 ‘불어 디션’, ‘프랑스 가곡’, ‘프랑스 가곡 문헌’, ‘불란서 가곡 클래스’ 등, 프랑스어와 관련된 교과목을 말한다.

3.4.2.1. 수업 및 진행 방식 조사

이 영역에서는 첫 번째로 ‘수업 및 진행 방식’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II장(2.2)에서 조사·분석한 성악과의 전공과목 중 프랑스어 관련 교과인 ‘프랑스어 디션’이나 ‘프랑스 가곡’관련 수업을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실제로 이수하였는지의 여부와 학습 기간을 알아보고, 언어적인 측면에서 수업의 도움 여부, 실제 수업 진행 방식을 직접 물어봄으로써 응답자들이 느끼는 수업의 만족도 및 개선점을 알아보는 데 있다.

먼저 프랑스어 관련 수업을 수강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응답자의 97%가 수강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4] 프랑스어 관련 수업 수강여부



조사대상 61명중 5명을 제외한 56명(73%)의 응답자가 ‘프랑스어 디션’ 수업을 수강했으며 ‘프랑스 가곡(혹은 프랑스 가곡문헌)’수업을 들은 학습자는 21명(27%)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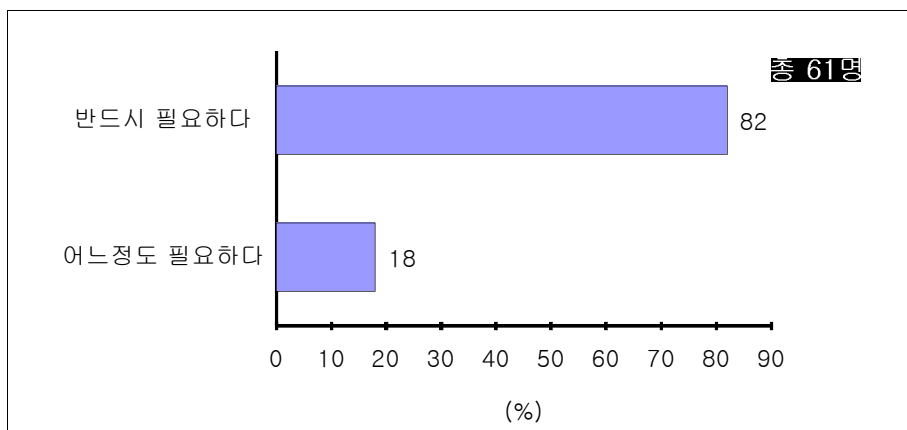
프랑스어 디션이나 프랑스 가곡 수업을 몇 학기 동안 배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3%가 두 학기 동안 수강했다고 응답해 제일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개 학기는 14%, 한 학기는 8%, 4개 학기는 5% 순이었다.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프랑스어 디션 수업은 프랑스 가곡 관련 수업보다 선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2개 학기 이내로 수업을 들었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프랑스어 디션 수업만 수강했을 것이고 3~4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프랑스어 디션 수업 이후에 프랑스 가곡 관련 수업도 연계하여 수강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사 결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두 학기 동안의 수강’의 경우, 두 학기라는 기간은 음악적인 부분 이외에 수업에서 가르치는 언어적인 부분의 학습, 즉 발음법이나 해석법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했을 기간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전반적인 프랑스어 능력 자가진단 평가가 낮게 나온 결과와 일치하는 해석일 것이다.

프랑스어 관련 수업 수강여부 질문에서 2명을 제외한 응답자 모두가 대학교에서 성악과 전공 수업으로 프랑스어 관련 수업을 들었다고 답하였는데, 이 수강과목들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야했는지의 여부를 물었더니 전체의 97%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답을 한 응답자의 88%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수강했을 것이라고 답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강제성에 의한 수업 수강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수강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가 ‘프랑스어 발음법과 해석법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답해 이들이 비교적 확실한 수업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막연한 대답이긴 하지만 ‘성악 전공자로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한 응답도 36%나 나왔다. 이처럼, 대부분의 성악 전공자들은 프랑스어 덕션이나 프랑스 가곡 관련 수업의 수강 의무 여부를 떠나 이 수업들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을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성악 전공 학습자들에게 기본적인 프랑스어 학습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필요 없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82%,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18%로 조사되어 프랑스어 학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악 전공자들은 프랑스어 학습이 본인들의 전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현재의 프랑스어 학습수준보다 더 많이 학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II-5] 기본적인 프랑스어 학습의 필요성



그렇다면 대학교에서 배운 프랑스어 디션이나 프랑스 가곡 관련 수업들을 대상으로 응답자들이 프랑스 성악곡을 연주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응답자들이 40%, ‘도움이 되는 편이다.’가 31%로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었다. 반대로 수업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없었다. 그러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응답자들도 14%나 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가사의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유를 첫 번째로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프랑스어의 특징 및 기본적인 설명의 부족’, ‘강의자의 프랑스어 교수 능력 부족’, ‘발음법을 상세히 배울 수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처럼 가사의 해석 및 발음, 언어의 기본적인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는 강의시간이 부족했거나 강의진행 방식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II장에서 강의계획안에 근거하여 수업 진행 형태를 [표 II-2](p. 32)로 제시하였는데 그 조사에서는 이론 중심 수업인지, 실기 중심의 수업인지 알 수 가 없어 설문을 통하여 정확히 실제 수업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론이 병행되었으나 실기 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졌다는 대답이 63%, ‘실기가 병행되었으나 이론 중심 수업’이었다가 29%로 주로 실기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주로 실기 중심의 수업인 경우 학습자들은 기본적인 언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성악곡을 노래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현행의 프랑스어 디션 수업과 프랑스 가곡 관련 수업에서 수업 방식이나 내용 등 어떤 점을 보완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⁴⁸⁾,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프랑스어 디션 수업에서는 더욱 정확한 발음 연습을 하기 원했으며, 그 다음으로 가곡을 통해 발음법을 익힐 수 있는 실기위주의 수

48) 설문조사 이전에 성악 전공자들에게 수업에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응답지를 구성하였다.

업강화, 프랑스어 기초 문법교육 순이었다. 또한, 수업에서 프랑스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초 회화 교육도 수업 내용에 반영되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18%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성악 전공자들이 프랑스어를 발음하고 해석하는 능력 이외에도 해당 언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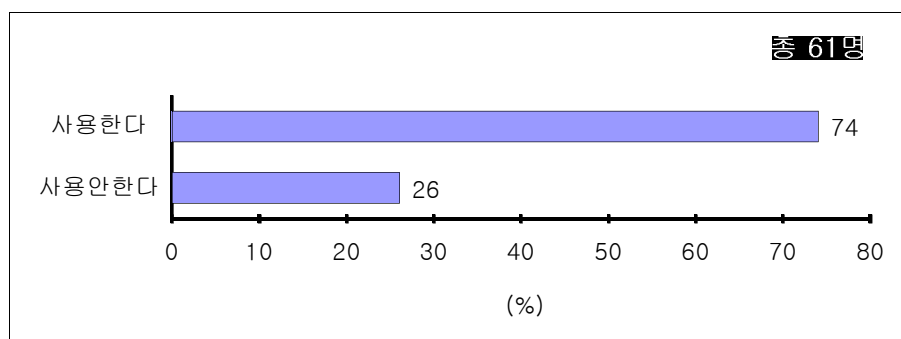
프랑스 가곡과 관련된 수업에서의 수업 방식 및 내용의 보완점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가곡 연주 시 발음법에 중점을 둔 수업을 원하고 있었고 프랑스어 기초 문법 교육이 수업에서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2.2. 교재에 대한 조사

다음으로 성악전공자들이 사용하는 프랑스어 디션 교재와 프랑스 예술가곡 해석과 관련된 교재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교재들의 내용에 관해서는 II(2.3)장에서 이미 조사·분석 했으므로 여기서는 성악전공 학습자들의 교재 참고 여부와 교재의 실질적인 도움 여부, 교재 내용에 관한 의견 및 교재에서 개선하거나 첨가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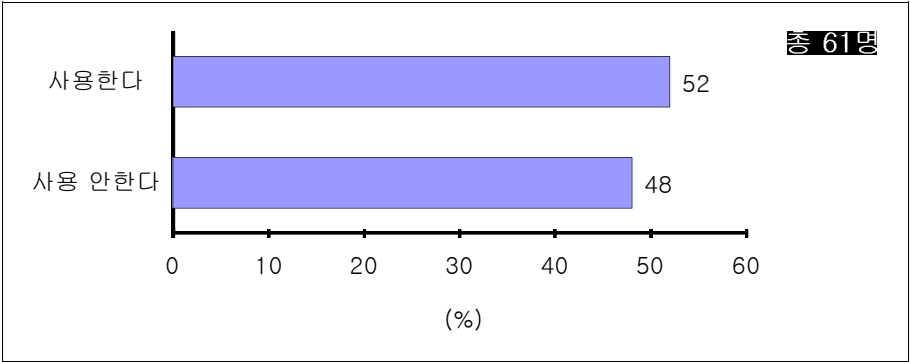
수업에서 교재를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업에서 지정된 교재를 사용했었다는 응답이 아래 [그림 III-6]과 같이 74%로 꽤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6] 수업의 교재 사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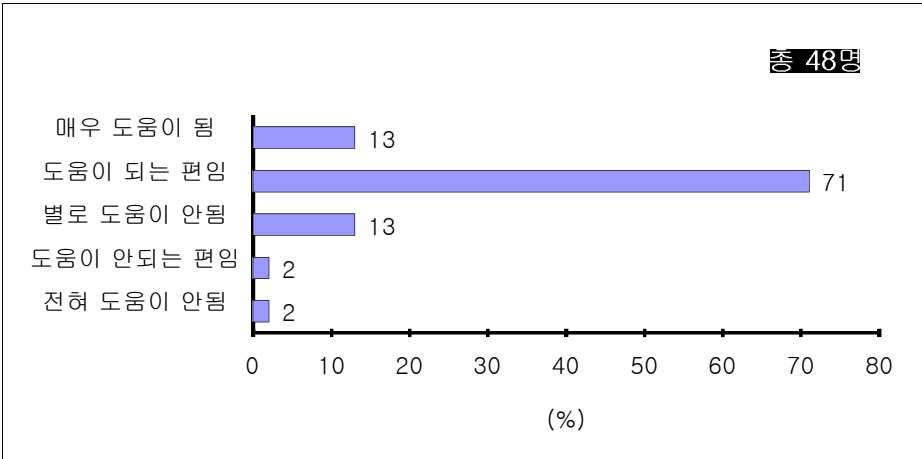
또한, 수업이외에 개인의 능력향상을 위해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교재도 참고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2%를 차지함으로써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아래와 같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교재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7] 수업 이외의 별도의 교재 참고여부



교재를 참고하는 이유로는 ‘발음법을 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사의 해석을 알기 위해서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교재가 프랑스 성악곡을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III-8] 교재 참고 시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



대부분의 응답자⁴⁹⁾는 교재가 ‘매우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답해 교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도움이 된 부분으로는 프랑스어 발음법과 가사 해석 부분을 들었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여전히 혼자서 프랑스어 덕션 교재를 통해 올바른 발음법을 익히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아래 [표 III-2]는 개인적으로 프랑스어 덕션 교재를 사용한 경우, 교재를 통해 혼자서도 올바른 프랑스어 발음법을 익힐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이다.

[표 III-2] 프랑스어 덕션 교재를 통한 프랑스어 발음법 습득여부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혼자서도 잘 익힐 수 있었다.	0	0
혼자서 익힐 수 있었다.	7	13
쉽지 않으나 혼자 익힐 수 있었다.	18	33
혼자 익히기 어려웠다.	26	48
혼자 전혀 익힐 수 없었다.	3	6
계	54	100

위 결과처럼 학습자가 교재를 통해 외국어 발음을 혼자 익히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위 표에서처럼 ‘쉽지 않으나 혼자 익힐 수 있었다.’라는 대답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이므로 혼자 교재를 통해 올바른 발음법을 습득할 수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교재를 통해 발음법을 습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프랑스어 덕션을 배우기 위해 교재를 많이 참고하는 편이므로 교재에서 발음설명과 관련해 학습자들의 필요로 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재에서 부족한 점이나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총 40명이 이 문항에 답했으며 이 중 60%의 응답자가 발음 설명과 관련해서 ‘원어민의 정확한 발음 CD’가 교

49) 이 질문은 수업에서나 혹은 개인적으로 교재를 참고하는 응답자 48명을 대상으로 으
로 하였으며 ‘매우 도움이 됨’과 ‘도움이 되는 편임’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각각 6명,
34명이었다.

재의 부록으로 첨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가사 해석과 관련하여 일부 응답자들은(17%) ‘가사 해석 부분에서 직역과 의역을 구분’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교재에서 개선되었으면 하거나 첨가해야 할 부분과 관련해 응답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발음에 관한 더욱 자세한 설명(30%)’, ‘가사해석에 관한 자세한 설명(27%)’, ‘다양한 프랑스 가곡 수록(23%)’, ‘기초 프랑스어 문법 설명(18%)’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하였다. 이 결과는 교재의 한계점을 나타내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교재의 특성상 발음 부분을 글로 설명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일반 ‘프랑스어 교재’가 아니라 ‘성악인을 위한’ 프랑스어 디션 및 가곡 관련 교재이기 때문에 가사해석에 초점을 맞출 수 가 없어 학습자들이 원할지라도 이 해석은 가곡의 의미를 파악하는 수준밖에 될 수 없다.

3.4.2.3. 교수자에 관한 조사

프랑스어 디션 및 가곡 관련 수업의 주목적은 프랑스 성악곡을 배우고 불러보는데 있지만 프랑스어의 발음지도나 가사해석과 관련된 내용도 수업에서 가르치고 있으므로 교수자는 성악뿐만 아니라 프랑스어에도 능숙해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교수자의 전공 분야를 알아보고 교수자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및 강의의 언어적 내용의 도움 여부도 조사했다.

교수자의 전공 분야는 ‘성악 전공의 한국인’이 전체 응답의 71%로 제일 많았으며 ‘성악과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한국인’이라고 답한 비율이 18%로 그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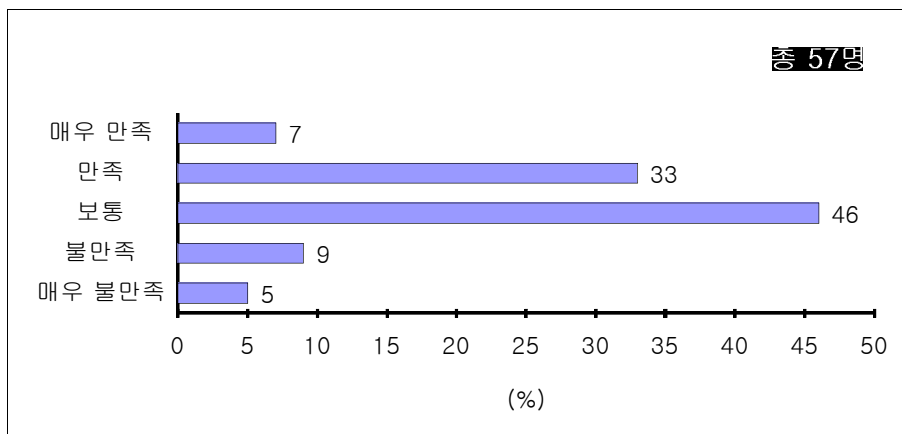
[표 III-3] 교수자의 전공분야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악 전공의 한국인	40	71
성악 전공의 프랑스인	1	2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한국인	4	7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프랑스인	2	4
성악과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한국인	10	18
계	57	100

전체 극히 일부 응답이기는 하나 교수자의 전공 분야 중에는 ‘성악 전공의 프랑스인’과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프랑스인’ 그리고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III-9]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46%가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며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이 33%로 그 뒤를 이었다. ‘매우 만족’은 7%에 그쳤으며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각각 9%, 5%를 차지했다. 교수자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던 응답자는 14%로 이들이 교수자에게 불만족스러웠던 이유는 ‘교수자의 프랑스어 능력 부족’, ‘가사 해석에 관한 교수자의 설명 부족’, ‘강의자가 프랑스인이어서 학생과의 의사소통이 원활 하지

못한’ 점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프랑스어 디션 수업의 교수자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학습자들의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는 아래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원하는 프랑스어 디션 수업 교수자 타입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악 전공의 한국인	10	15
성악 전공의 프랑스 인	15	25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한국인	4	7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프랑스 인	4	7
성악과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한국인	28	46
계	61	100

실제 수업에서는 ‘성악 전공의 한국인’이 프랑스어 디션을 가르치고 있으나 학습자들은 ‘성악과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한국인’이 교수자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그 뒤를 이어 ‘성악 전공의 프랑스 인’이 강의 교수자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25%의 비율을 차지했다.

수업시간에 언어학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기위해 교수자의 수업이 노래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묻은 결과 응답자(56명)의 절반정도가 ‘보통이다(49%)’라고 답해 충분한 언어학습이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랑스 성악곡을 부르기 위해서 가곡의 가사해석 능력도 학습자들에게 요구되지만 가사 해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법도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아래 표와 같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표 Ⅲ-5] 교수자의 프랑스어 문법 교육 여부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문법도 가르쳤다.	24	43
문법은 가르치지 않았다.	32	57
계	56	100

프랑스어 문법 설명을 하는 이유는 프랑스 성악곡의 가사 해석을 하기 위함이다. 가곡은 시에 곡을 붙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기초문법만으로 시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교수자가 수업 중에 문법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다루어주면 학습자들은 적어도 스스로 가사를 해석해 보려는 노력과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문법을 다루지 않게 되면 학습자가 가곡의 가사를 해석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며 이 경우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석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성악 전공자들이 스스로 가사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곡 연주에 도움이 된다면 교수자는 수업시간에 가곡의 가사 해석을 위해 문법을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3.4.3. 학습자의 프랑스어 요구 분석

이 장에서는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프랑스어 및 원하는 학습 수준 그리고 프랑스어에 대한 자신감이 연주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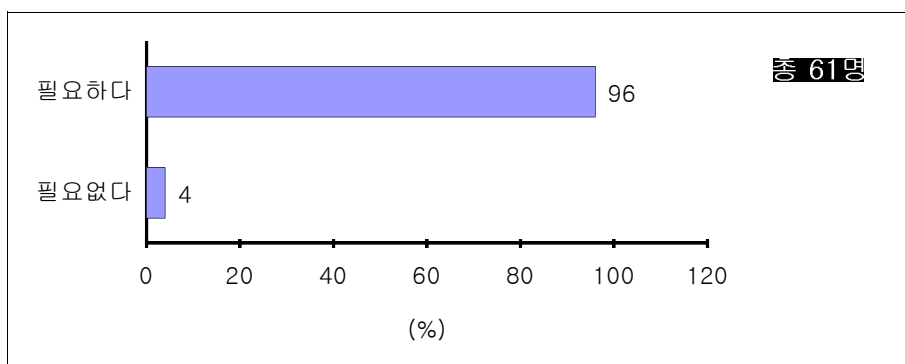
먼저, 성악 전공자들이 프랑스어를 배우는 이유는 프랑스 성악곡을 연주하기 위해서이다. 성악 전공자들을 오랜 기간 관찰한 결과 이들은 대학교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도 연주활동 기간 동안 프랑스 성악곡을 부를 기회가 계속 발생하므로 그때마다 발음을 연습하고 해석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즉, 성악 전공자들은 프랑스어를 한시적으로 필요로 하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다. 따라서 성악 전공자들에게 프랑스어 학습은 연주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성악 전공자들이 프랑스 성악곡을 연주할 때 여러 가지 발음법과 가사 해석 중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응답자들은 발음 중에서도 ‘연음(liaison)’을 가장 어려워했으며, 그 뒤를 이어 ‘기본 발음’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비음’, ‘가사 해석’, ‘액센트’ 순으로 연주

할 때 언어적으로 힘든 부분에 관해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연음은 독일어나 이태리어, 영어에는 없는 발음 규칙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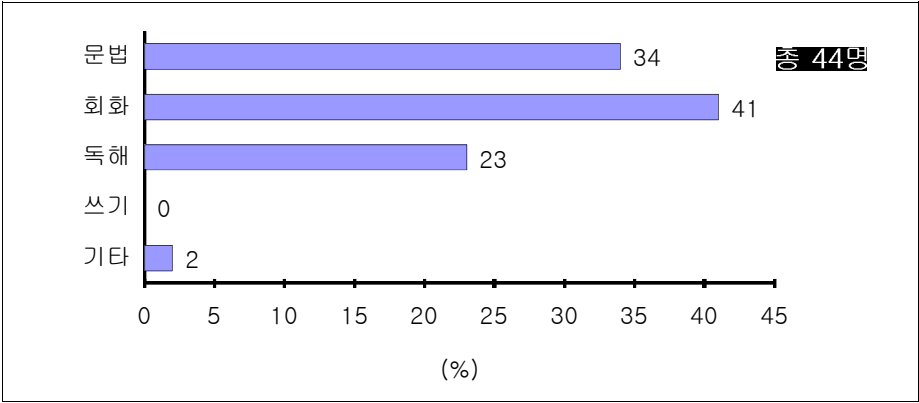
이번에는 성악을 위한 프랑스어 학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언어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조사 하였다. 이 조사에서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발음법, 가사해석 이외에도 원하는 프랑스어 학습이 무엇인지 알기위해 응답지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발음, 어휘, 문화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이 문항은 두 개 이상의 답에 체크한 응답자가 많았다. 결과는 발음(38%), 말하기(30%), 읽기(25%), 문법(5%), 어휘(2%) 순으로 나타났고 듣기, 쓰기, 문화에 체크한 응답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결과에서 ‘발음’ 학습이 1위를 차지한 점은 예상한 결과였으나 응답자들이 ‘말하기’ 능력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외의 결과였다.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말하기’ 능력도 원한다는 사실은 다음에 나오는 결과에서도 다시 한 번 나타났다. 이 문항들은 프랑스어 덕션 수업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언어요구를 조사한 내용이다. 먼저 성악과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프랑스어 덕션 수업에서 프랑스어 학습 내용이 주로 발음법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 만족하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46%(28명)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발음법 위주의 수업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다른 프랑스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물었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III-10] 발음법 이외에 별도의 프랑스어 학습의 필요성



전체 응답자의 96%가 발음법 이외에 프랑스어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을 더 학습하길 원하는지 조사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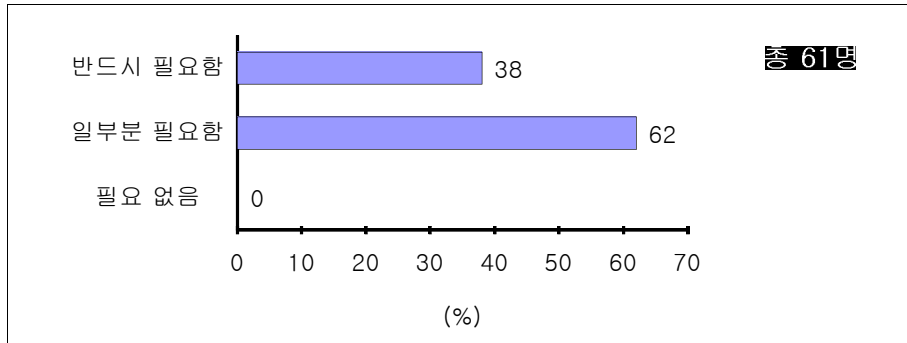
[그림 III-11] 발음법 이외에 필요한 학습의 종류



응답자들은 ‘회화’를 제일 필요로 했으며, 이 응답 비율은 전체의 41%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그 다음으로 더 학습하고 싶은 영역으로는 문법(34%), 독해(23%) 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성악 전공 학습자들은 단순히 프랑스어를 발음할 줄 아는 능력 이외에도 프랑스어로 회화를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성악 전공학습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랑스어 능력 중의 하나가 가사 해석능력을 기르는 것이었는데 가사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문법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문법 학습의 필요성 및 학습 수준에 관해 학습자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먼저, 프랑스 성악곡을 부르기 위해 문법 학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Ⅲ-12] 성악을 위한 프랑스어 문법 학습의 필요성



조사 대상자의 전체가 문법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38%, ‘일부분 필요하다.’는 응답이 62%로 더 높게 나타났다.

모든 응답자들이 문법 학습이 연주를 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 요소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문법 학습을 원하는지 알아보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간단한 문법 구조와 문장 표본을 알고 있어서 사전을 이용해서 독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62%)’을 원했으며 뒤를 이어 16%가 ‘주어의 인칭, 시제에 따라 동사 변형만 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비슷한 비율로 ‘몇몇 단순한 구조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간단한 작문도 할 수 있는 수준’을 원한다는 응답이 15%, ‘친숙한 상황에서 문법 구조를 능숙하게 다루어 정확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답한 응답이 7%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문장 구조와 시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문법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성악을 위해 성악 전공자들이 원하는 전체적인 프랑스어 수준을 알아보았다. 응답지의 내용⁵⁰⁾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작성한 것은 아니며 발음만 파악할 수 있는 초보 수준부터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프랑스어 수준을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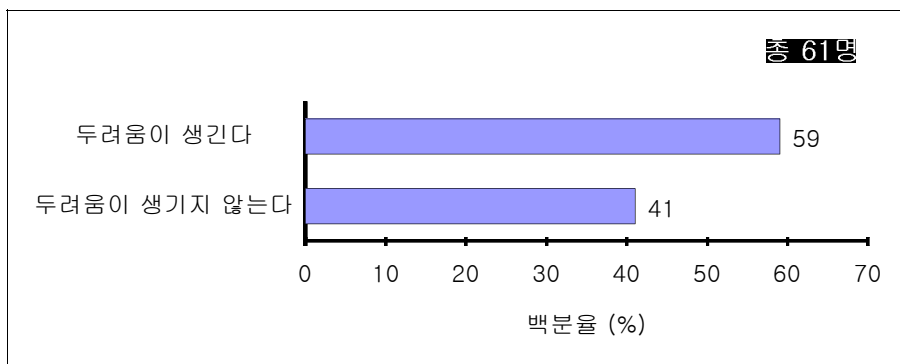
50) 응답지 내용의 일부는 외국어 학습의 유럽공통참조기준표를 참고하였다.(Conseil de l'europe, 2001: 54)

- 발음기호를 보지 않고도 혼자 발음할 수 있는 수준(22%)
- 사전을 이용하여 가사 해석을 혼자 할 수 있는 수준(16%)
- 원어민에 가까운 정확한 발음으로 올바르게 가사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13%)
- 자기소개와 같은 간단한 문장들을 프랑스어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10%)
- 프랑스 가곡과 오페라에 나오는 문법정도만 알고 있는 수준(8%)
- 프랑스 가곡을 들었을 때 가사를 인지할 수 있는 수준(7%)
- 익숙한 주제나 개인적인 관심 분야에 대해 프랑스어로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수준(4%)
-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프랑스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는 수준(4%)
- 시제와 인칭에 따라 동사 변화를 할 수 있는 수준(3%)

성악 전공 프랑스어 학습자들과 인터뷰를 해본 결과 이들 대부분은 프랑스어가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설문에서는 언어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연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먼저 프랑스 가곡을 부를 때 이탈리아 가곡이나 독일 가곡과는 달리 두려움이 생기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그림 Ⅲ-13] 프랑스 가곡·오페라를 연주할 때의 두려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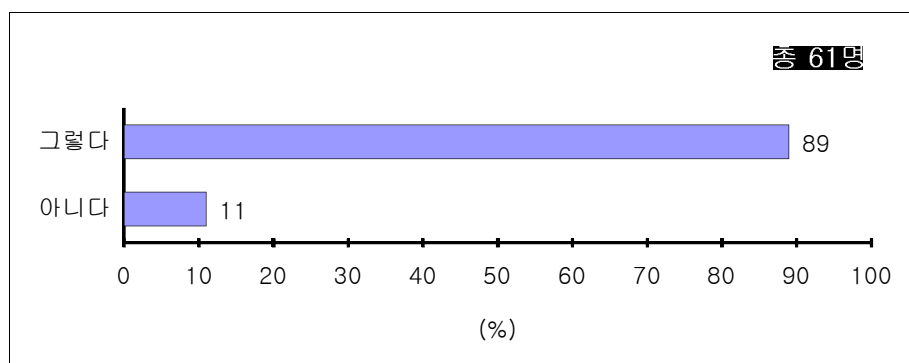


위의 그림과 같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59%가 두려움이 생긴다고 답하였다.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로는 ‘프랑스어 발음이 부정확해서(59%)’라는 이유가 절반 이상의 비율로 1위에 올랐으며 ‘독일어나 이탈리아에 비해 프랑스어가 낯설어서(22%)’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프랑스어에 대한 낯설음이나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프랑스 가곡을 기피한 경험이 있는지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1%가 프랑스어 때문에 프랑스 성악곡의 연주를 기피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언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프랑스 성악곡 연주를 할 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학습자들에게 프랑스어 수준이 높아진다면 프랑스 가곡이나 오페라를 노래할 때도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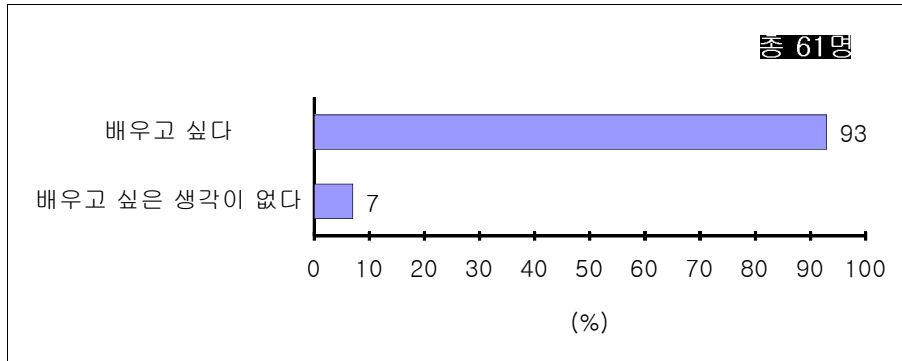
[그림 Ⅲ-14] 프랑스어 수준이 높아질 경우, 연주에 대한 자신감 여부



위 그림에서처럼 프랑스어에 대한 자신감은 연주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프랑스어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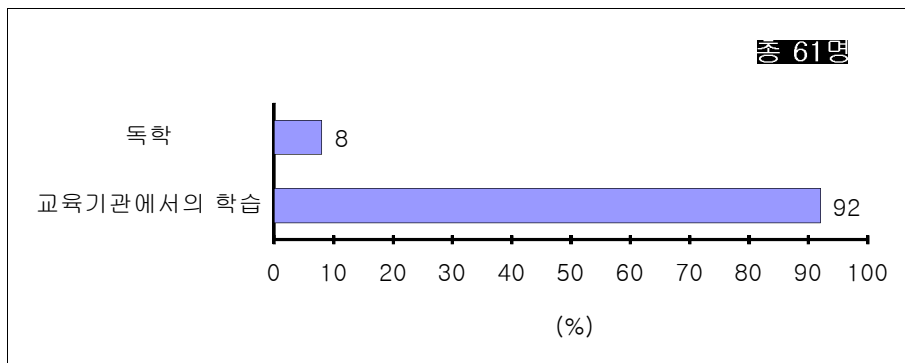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학습자에게 프랑스어 학습 의향과 원하는 학습 형태에 관해 조사하였다.

[그림 Ⅲ-15] 프랑스어 학습 의향



위와 같이 93%의 응답자들이 프랑스어를 더 배우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16] 원하는 학습 형태



원하는 학습 형태로는 아래와 같이 응답자의 92%가 ‘교육 기관에서의 학습’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항목 이외에 학습자들에게 성악 전공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프랑스어 교육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개방형 질문 형식으로 물어보았다. 응답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 성악을 배우면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단순히 발음을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법 지식과 단순한 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언어는 반복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언어 학습

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교재에 나와 있는 곡만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기 위해서도 혼자 학습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소규모의 발음 교육이 필요하다.
- 방학을 이용하여 단기 프랑스어 연수와 같은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프랑스어 학습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프랑스어의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며 성악과 커리큘럼에도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 원어민 강사의 프랑스어 수업이 있다면 발음법을 배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 원어민 강사 앞에서 프랑스 성악곡을 불러보고 정확한 발음지도와 함께 가사 해석을 같이 상의하며 중요한 가사를 숙지한다.
- 프랑스어를 포함하여 성악을 하는데 필요한 언어인 이탈리아어, 독일어, 영어는 대학교 4년 내내 계속 배워야 한다.
- 성악과의 프랑스어 관련 수업이 프랑스어 발음법이나 가곡을 소개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성악에서 언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성악과에 언어만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 짧고 정확한 프랑스어 회화 암기를 바탕으로 원어민과의 회화를 통해서 발음을 교정하였으면 좋겠다. 이 경우 별도로 단어를 외울 필요 없고, 나중에 문법공부를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더 세분화된 프랑스어 수업들이 음대 성악과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성악 전공자들의 프랑스어 학습 경험, 성악과 전공 수업인 프랑스어 관련 수업 경험 그리고 학습자의 프랑스어 요구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프랑스어 교수·학습 방법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안

4.1. 프랑스어 요구 분석을 반영한 학습 목표 및 내용 선정

앞장의 설문 조사를 통해 성악 전공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므로 본 장에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프랑스어 학습 목표를 먼저 설정 한 후,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자 한다.

4.1.1. 프랑스어 학습 목표 설정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악 전공자들에게 있어 언어는 성악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성악 전공자들은 폭넓은 레퍼토리를 가지기 위해 적어도 4개 정도의 언어로 된 곡을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성악 전공자들은 다양한 가곡·오페라를 항상 연주하기 때문에 프랑스 성악곡을 부르기 위해서도 프랑스어를 꾸준히 필요로 하는 특정 목적 대상 학습자들이다.

설문조사 결과 성악 전공 학습자들은 프랑스어를 단순히 발음하고 해석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알고 있고 사용할 줄 아는’ 수준의 회화 능력도 습득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습 목표 설정 시 이 점을 고려하였다. 프랑스어 발음을 잘 인지하고 간단한 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듣기 능력도 어느 정도 요구되지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언어 기능은 말하기, 읽기 능력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말하기와 읽기 능력 습득을 위한 학습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학습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⁵¹⁾

<말하기>

- 단어의 소리를 듣고 정확히 따라 발음할 수 있다.
- 연음과 연쇄현상, 액센트, 억양, 비음 처리, 분절에 유의하며 올바르게 정확하게 발음 할 수 있다.
- 같은 발음이지만 일반 회화에서의 프랑스어 발음과 노래할 때 달라지는 프랑스어 발음을 구분하여 발음할 수 있다.
- 짧고 쉬운 말을 사용하여 질문이나 대답을 할 수 있다.

<읽기>

- 소리와 철자의 호응관계에 유의하며 단어를 올바르게 읽을 수 있다.
- 짧고 쉬운 문장을 올바르게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프랑스 가곡의 가사는 시로 이루어진 가사이기 때문에 시의 특성과 문학적인 의도를 잘 파악하여 가사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4.1.2. 프랑스어 학습 내용 선정

1) 프랑스어 발음 학습 내용

본 연구에서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말하기 능력은 프랑스어를 올바르게 발음하고 간단한 회화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 간단한 회화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학습자가 원하는 프랑스어 능력 이긴 하나 일반 프랑스어 교육에서의 학습 내용과 차별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그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무엇보다 성악 전공 학습자들은 프랑스 성악곡을 부르기 위해서 프랑스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아야 하므로 발음 학습에 관한 학습 내용을 먼저 선정한다.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발음 학습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1) 2009년 개정된 프랑스어 교육과정의 ‘프랑스어 I’의 목표를 참고함.

- ① 프랑스어의 기본 발음법
- ②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발음법
: 연음, 액센트, 비음처리, 분절 등.
- ③ 일반 프랑스어 회화에서와 성악에서 노래할 때, 발음이 다른 경우
의 발음법

위의 ① 프랑스어의 기본 발음법은 일반 프랑스어 교육의 발음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 프랑스어 교육에서는 주로 발음법을 알파벳 읽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발음의 특징을 학습한 후 회화를 통해 혹은 자주 쓰이는 기본적인 어휘들을 반복하여 프랑스어 발음을 자연스럽게 익혀나간다. 이에 반해 성악 분야에서의 프랑스어 발음교육은 철자법과 발음기호 읽는 방법, 특수한 발음을 가지는 단어⁵²⁾에 대한 설명 등, 처음부터 정확하고 자세한 발음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②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발음법을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학습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연음, 액센트, 비음처리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분절에 관한 연구도 함께 행해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의 발음 학습은 프랑스 가곡의 가사를 통해 연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자주 연주되는 가곡을 선정해 가사를 연음, 액센트, 비음에 유의하며 그냥 읽어보는 연습과 노래할 때 노래에 맞게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또한, 성악가들은 노래할 때 음의 길이와 호흡에 의해 단어의 음절을 분리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언어요구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성악을 위해 필요한 학습이므로 음절의 분리는 음절 분리 원칙에 근거해 프랑스 가곡을 노래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한다.

③ 일반 프랑스어 회화에서와 성악에서 노래할 때, 발음이 다른 경우의 발음법은 성악 전공자들만을 위한 특수한 프랑스어 발음법이라고 할 수

52) 언어에는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수한 발음을 갖는 단어들이 있다.

예 : secondaire[səgødɛ:r], monsieur[məsjø], femme[fam], six[sis]...

있다. 보통의 발음 규칙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 이 발음법의 발음 규칙은 경우가 많지 않으나 기존 교재들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기본 발음 규칙을 설명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제시해 학습자들에게 숙지시켜줘야 한다.

성악 분야에서의 특수한 프랑스어 발음법의 예는 아래와 같다.

- 모음의 발음 규칙 중 "e" muet는 첫 음절에 올 때, 액센트가 있을 때, 유성 h 앞에서 발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음되지 않지만 성악곡에서 "e" muet는 그 발음에 붙여진 음의 길이로 결정된다. 작곡가가 곡의 표현을 위해서 특별히 지시한 경우도 있다.

- 자음의 발음 규칙 중 [R] 발음이 나는 유음 r, rr, rh와 관련하여 프랑스어 회화나 대중음악에서는 목젓을 울리는 [R] 발음을 하지만, 예술 가곡에서는 [R] 발음을 지나치게 굴리지 않는다. [k], [g]를 발음할 때처럼 연구개에 울림을 갖고 혀끝을 가볍게 굴리는 정도로만 한다.

- 프랑스어의 액센트는 영어나 독일어에서처럼 강한 것은 아니지만 한 단어나 단어 그룹의 마지막 음절에 액센트가 주로 온다. 또한 영어에서 액센트의 성격이 주로 세기인 반면, 프랑스어에서는 길이이다. 그러나 노래할 때 이 길이는 작곡자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나 때로는 연주자가 액센트를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연음(liaison)은 회화에서 보다 시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 가곡은 시에 곡을 붙인 음악이기 때문에 가곡의 가사는 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가곡을 노래할 때 연음이 자주 생기게 된다. 하지만 연음이 원래 발음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모음이 부딪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성악가가 임의로 연음을 할 경우, 연음이 되지 않았을 때보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만들어 내거나 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든지 모호하게 만들도록 쓰여서는 안 된다.

성악가들은 연주에서 원어로 노래해야 하고 청중에게 가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런데 연주자가 노래할 때 그 노래에 대한 발음조차 자신

이 없다면 어떻게 청중에게 그 원곡의 감동을 전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성악 전공자들의 프랑스어에 대한 자신감은 연주에 대한 자신감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설문 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악 전공자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프랑스어 발음법에 대한 자신감은 연주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발음 학습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가사 해석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 내용

앞에서 성악 전공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학습 목표는 짧고 쉬운 문장을 올바르게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프랑스 가곡의 가사는 시로 이루어진 가사이기 때문에 시의 특성과 문학적인 의도를 잘 파악하여 가사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습득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성악 전공 학습자들에게 있어 발음법 이외에 가장 필요로 하는 프랑스어 요구는 가곡의 가사 해석 능력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가곡은 시에 곡을 붙인 음악 형식이며, 가사 자체를 잘 해석하는 것도 성악가에게 있어서 연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물론, 프랑스어 덕션 교재나 프랑스 가곡 연구와 관련된 교재에 시의 해석이 나와 있긴 하지만 성악 전공자들에게 따르면 교재에 나와 있는 가사의 해석은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너무 의역이 되어있어서 노래 할 때 각 단어의 뉘앙스를 살려 그 가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영감을 음악에 붙여 넣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교재의 해석만큼 자연스러운 해석은 불가능하더라도 본인이 가곡의 가사를 직접 해석해보면 각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고, 해석을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 곡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 더 나은 연주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가사 해석을 힘들어 하는 이유는 설문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학습자 대부분의 전반적인 프랑스어 수준이 ‘하’에 속해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해석을 위한 기초 문법 교육도 받은 적이 없어 아예 시도조차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가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문장을 읽고, 문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문법 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가사의 완전한 해석을 위해서는 초급수준부터 고급수준까지의 문법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성악 전공 학습자들은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이탈리아, 영어 등과 같은 다른 언어의 학습도 필요하고 노래 연습도 해야 하기 때문에 프랑스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특수 목적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언어 능력을 단기간에 획득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가사 해석을 위해 필요한 언어 능력을 최대한 단기간 내에 획득할 수 있는 학습 방안을 고려하였다.

우선, 학습해야 할 언어 재료를 문법과 어휘로 나누어 내용을 제시한다. 문법 교육의 필요성은 앞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어휘 학습에 대해 살펴보자. 성악 전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휘 학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성악 전공자들에 따르면 “가사를 해석할 때, 각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각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가사의 뉘앙스를 잘 살려 노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즉, 어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노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기본 어휘를 이미 알고 있다면 해석할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맥에 맞는 의미로 자연스러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휘 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프랑스어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고, 어려운 어휘가 많은 가곡 가사에 자신이 아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곡의 가사 해석을 하기 위한 학습내용을 어휘 학습과 문법 학습으로 나누고, II장 교재 분석(2.3.)에서 선정한 많이 불리는 가곡 10곡에 나오는 어휘와 문법을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정하였다.⁵³⁾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어휘표’의 어휘

53) 어휘 교육을 위한 학습 내용에 해당하는 기본 어휘는 [부록 3]에 제시하였다.

수가 838개 인데 비해 ‘가곡의 기본 어휘’는 190여개이므로 학습자에게 어휘 학습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어휘학습은 ‘가곡의 기본 어휘’들을 암기하고 가곡 가사에서의 쓰임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이 어휘들을 이용해 프랑스어의 기본 발음 연습을 한다면 어휘와 발음 학습,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본 어휘’에 속하지 않으나 가곡에 제시된 어휘 중에도 자주 쓰이거나 활용도가 높은 어휘가 많이 등장한다. 따라서 ‘기본 어휘’에 속하지 않으나 가곡에 제시된 어휘 중 2번 이상 등장한 어휘나 연구자가 임의로 선별한 활용도가 높은 어휘를 선별해 이 어휘들을 ‘심화 어휘’라고 정하고 ‘가곡의 기본 어휘’를 먼저 학습 한 후, ‘심화 어휘’ 학습으로 넘어가 더 다양한 어휘를 학습할 수 있게 한다.⁵⁴⁾

이와 같은 집중적인 어휘 학습을 통해 성악 전공 학습자들은 프랑스어 지식이 한층 더 쌓이게 되며 이는 설문 분석 결과처럼 연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분석 대상인 10개 가곡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랑스 가곡을 노래 할 때에도 적용될 것이며, 학습자들은 프랑스 가곡을 해석할 때마다 단어를 찾는 수고를 되풀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문법 학습 역시 10개 가곡을 기준으로 여기에 나오는 문법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였다.

10개 가곡의 문법 항목도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문법을 ‘기본 문법’으로 보고, ‘기본 문법’ 항목과 ‘그 외 문법’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다만, ‘시제(temps)’ 항목을 따로이 정했는데, 그 이유는 성악 전공자들의 학습편의를 위해서이다. 성악 전공자들에 따르면 해석을 할 때 사전을 이용해도 찾는 단어가 사전에 없는 경우가 많아 해석이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경우는 찾는 단어가 사전에 없어서가 아니라 학습자가 인칭과 수, 시제에 따른 동사의 활용 규칙을 잘 인지하고 있

54) ‘기본 어휘’에 속하지 않으나 가곡에 제시된 어휘는 [부록 4]에 제시했으며, 이 표에서 어휘 뒤에 ‘*’표시가 붙은 어휘가 ‘심화 어휘’ 목록이다.

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가곡 가사에 나오는 ‘시제’ 중 직설법 현재 시제를 포함해, 가사에 쓰인 시제들을 독립적인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① 기본 문법 사항

가사에 나오는 기본 문법은 의문 형용사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교육 과정에 제시된 문법 항목들이 모두 나온다.

- 관사 : 부정관사, 정관사, 부분관사
- 형용사 : 형용사의 성·수일치, 소유형용사, 지시형용사, 부정형용사
- 대명사 : 주어 인칭대명사(직접목적보어, 간접목적보어), 강세형 인칭대명사, 중성대명사, 부정대명사, 지시대명사
- 관계사
- 의문사
-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
- 전치사와 전치사구
- 접속사와 접속사구

② 기본 문법 이외에 학습해야 할 문법 사항

- 감탄문
- 명령문
- 접속법
- 분사구문

가사가 시로 되어있는 가곡의 특징상 감탄문과 명령문이 자주 등장한다.

③ 시제

가곡에서는 대부분 직설법 시제가 쓰이며 직설법 현재 시제를 제외하고 가곡에 쓰인 시제 용법을 아래와 같이 나열한다.

- 반과거
- 복합과거
- 근접미래
- 접속법 현재
- 조건법 현재
- 직설법 전과거

가곡에 쓰인 시제 중 접속법 현재, 조건법 현재, 직설법 전과거는 초보 학습자들이 학습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이 내용을 알아야만 가사의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교육 내용에 포함시킨다.

이와 같이 성악 전공 학습자들의 발음능력과 가사 해석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 내용을 선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학습 내용을 학습자들은 어떻게 배우고 교수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을 학습 내용의 일부를 예로 들어 다음 장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4.2.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교수·학습 방안

설문 조사에서 학습자들에게 프랑스어를 더 배우고 싶다면 어떤 학습 형태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 프랑스어를 더 배우기 원하는 93% 응답자 중 92%가 교육기관에서의 학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대부분의 성악 전공 학생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사설 교육 기관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기보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관련강의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길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악과의 프랑스어 관련 수업에서 짧은 수업 시간 내에 학습자들이 원하는 프랑스어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학습 내용 중 일부를 활용하여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2.1. 가곡의 가사 해석을 위한 ‘동사’ 활용 학습 방안

앞에서(4.1.2.) 가사 해석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학습 내용을 크게 어휘 학습과 문법 학습으로 나누었다. 문법 학습은 다시 ‘기본 문법 사항’과 ‘그 외 문법 사항’ 그리고 ‘시제’로 내용을 나누어 학습 내용을 정하였는데 시제를 따로 제시했던 이유는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프랑스어에서 동사가 주어의 인칭과 수, 시제에 따라 변화한다는 규칙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전을 이용해도 해석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악 전공 학습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문법내용을 동사 활용 규칙으로 보고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에게 동사의 활용 규칙을 설명하고 동사 변형을 통한 시제에 관한 문법 지식을 심어준다면 학습자는 전반적인 프랑스어의 문법 지식 없이도 사전을 이용하여 스스로 가사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가곡 중에서 H. Duparc의 『Chanson triste』 곡을 예로 들어 수업에서 가사 해석을 위해 동사 변화와 시제 교육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예를 들고자 한다.

1) 1단계 : 시를 평서문으로 고치기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에 속해있음을 감안하여 해석해야 할 가곡의 가사가 악보에 적혀 있거나 시의 형식으로 적혀 있다면 일단 보기 쉽게 평서문으로 고치는 것으로 시작한다. 즉, 해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가사를 평서문으로 재배열 하는 것이다. 물론 시를 평서문으로 고쳐 해석한다면 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의도를 벗어나 그 시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는 학습자들에게 문장구조를 더 쉽게 인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될 뿐이지 시를 일반 산문처럼 해석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문법 학습이 이루어지면 원래의 형식으로 돌아와 시의 느낌을 살려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Chanson triste

Dans ton coeur dort un clair de lune,
Un doux clair de lune d'été,
Et pour fuir la vie importune
Je me noierai dans ta clarté.

J'oublierai les douleurs passées,
Mon amour, quand tu berceras
Mon triste coeur et mes pensées,
Dans le calme aimant de tes bras.

Tu prendras ma tête malade
Oh! quelquefois sur tes genoux,
Et lui diras une ballade
Qui semblera parler de nous.

Et dans tes yeux pleins de tristesses,
Dans tes yeux alors je boirai
Tant de baisers et de tendresses
Que, peut-être, je guérirai...



② Chanson triste

Un clair de lune dort dans ton coeur,
Un doux clair de lune d'été (dort dans ton coeur).
Et je me noierai dans ta clarté pour fuir la vie importune.

Mon amour, quand tu berceras mon triste coeur et mes pensées
dans le calme aimant de tes bras, j'oublierai les douleurs passées.

Tu prendras ma tête malade, quelquefois sur tes genoux,
Et (tu) lui diras une ballade qui semblera parler de nous.

Alors je boirai tant de baisers et de tendresses dans tes yeux pleins
de tristesses, dans tes yeux.
Que, peut-être, je guérirai...

① → ② 형식으로 문장을 꼭 바꿔줄 필요는 없다. 이 단계는 시가 주어와 술어의 위치가 비교적 올바르게 갖추어져 있다면 할 필요가 없지만 교수자가 판단하기에 시가 문장의 형식을 너무 벗어나 학습자들이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다면 위의 경우처럼 문장의 해석이 자연스럽도록 괄호 안에 임의로 빠져 있는 주어나 술어를 채워 문장을 완성시켜 줄 수 있다.

2) 2단계 : 주어와 동사 찾기

해석하기 전에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는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동사표’를 만들어 학습자들에게 이 표에 기입하게하고 수업에서 새로운 가곡을 다룰 때마다 이 표를 활용하게 한다.

학습자는 가사에 나오는 주어, 동사를 찾아 ‘동사표’에 기입하고 교수는 그 동사의 원형을 밝혀준다. 가사에 나와 있는 동사의 원형이 무엇인지 학습자 스스로 찾게 할 수도 있으나 동사의 활용 규칙을 설명하는 학습 초기 단계이므로 교수가 원형을 먼저 밝혀주는 것이 좋다.

<동사표>

	주어	동사	동사원형
①	ton coeur	dort	dormir
②	Je	me noierai	se noyer
③	J'	oublierai	oublier
④	tu	berceras	bercer
⑤	Tu	prendras	prendre
⑥	tu	diras	dire
⑦	qui	semblera	sembler
⑧	je	boirai	boire
⑨	je	guérirai	guérir
...

3) 3단계 : 동사변화 시키기

학습자들이 프랑스어의 동사 변화 규칙을 이해할 수 있게 ‘동사표’의 동사를 활용한다. 수업에서 다루는 가곡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습해야 할 동사도 얼마 되지 않으므로 학습자가 각 단어의 동사변화를 익히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변화 학습은 직설법 현재 시제를 기본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동사변화표1’에 작성하도록 한다.

<동사변화표1>

① dormir : 자다			
je	dors	nous	dormons
tu	dors	vous	dormez
il/elle	dort	ils/ells	dorment

이 3단계 학습은 학습자에게 개별 과제로 내주는 것이 좋다. 학습자는 단어의 뜻과 동사변화를 사전에서 직접 찾아보고 익힘으로써 동사 활용 규칙을 익힐 수 있으며 이전처럼 동사 활용 규칙을 몰라 사전을 이용해도 단어를 찾지 못했던 경우는 없을 것이다.

4) 4단계 : 시제에 따른 동사변화

앞의 10개 가곡을 분석했을 때 가곡에 쓰인 시제는 직설법 현재 뿐만 아니라 반과거, 복합과거, 근접 미래, 접속법 현재, 심지어 직설법 전과거 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시에 등장한 시제들 중 일부는 프랑스어 초보 학습자들이 학습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가곡에 쓰인 시제를 알아야만 해석이 가능하므로 3단계의 동사 변화 학습에 이어 각각의 시제 설명과 함께 시제에 따른 동사변화를 학습시킨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어 문법을 배울 때 시제 학습 부분에서 현재→복합과거→반과거.... 순으로 배우는 것이 보통이지만 여기에서는 배우는 가곡에 따라 등장하는 시제를 가르친다. 시제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쓰이는 용법과 그 형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앞의 ‘동사변화표1’을 활용하여 해당 시제의 동사 변화를 ‘동사변화표2’에 학습한다. ‘동사변화표2’은 ‘동사변화표1’의 확장형으로 시에 나오는 동사가 현재 시제일 경우는 ‘동사변화표1’을, 현재 시제가 아닐 경우에는 ‘동사변화표2’를 사용하여 해당 동사의 현재형으로 먼저 동사 변화 한 후 해당 시제에 맞는 동사 변화를 옆에 하게 한다.

『Chanson triste』 곡에는 직설법 현재와 미래시제가 나오므로 미래시제를 예로 들어 아래와 같이 ‘oublier’ 동사를 이용해 미래시제에서의 동사 변화를 해보았다.

<동사변화표2>

③ oublier : 잊다					
인칭/시제	현재	단순미래		현재	단순미래
j'	oublie	oublierai	nous	oublions	oublierons
tu	oublies	oublieras	vous	oubliez	oublierez
il/elle	oublie	oubliera	ils/ells	oublient	oublieront

교수자가 수업 초반에 ‘동사표’와 ‘동사변화표1’, ‘동사변화표2’와 같은 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핸드아웃으로 나누어주고 가곡 가사에 나오는 모든 동사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에 작성하여 동사변화 시키는 연습을 하게 한다면 한 학기 동안의 짧은 수업 시간이지만 학습자들에게 동사 변화

및 활용 규칙에 관한 문법 지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문법 지식은 학습자들이 가사를 해석할 때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복잡하지 않고 몇 가지 규칙 체계만 습득하면 되므로 수업 시간에 적극 활용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4.3. 프랑스어 관련 수업의 교수·학습 제도 개선 방안

II장에서 대학교 성악과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프랑스어 관련 수업의 교수·학습 현황과 교재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III장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수업 경험 및 교재, 교수자와 관련된 요구를 조사·분석하였다. II장과 III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프랑스어 교육을 위해 수업 및 진행방식, 교재 그리고 교수자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제도상의 개선책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논하고자 한다.

1) 수업 및 진행 방식

현재 대학교 성악과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프랑스어 관련 수업은 프랑스어 디션과 프랑스 가곡 관련 수업이다. 사실, 대부분의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이 수업들을 통해서 프랑스어를 배우게 되므로 수업 내용에 학습자의 프랑스어 요구가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랑스어 디션 수업은 한 학기 내지 두 학기밖에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수업 시간도 일주일에 한번, 1시간 반~2시간 이내에 진행된다. 프랑스 가곡 수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표 II-1](p. 29)에서도 알 수 있듯이 6개 대학 중에 3곳은 아예 프랑스 가곡 관련 수업이 없다.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 안에 학습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랑스어 요구, 즉 발음 능력과 가사 해석 능력을 위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며 불가

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또한, 프랑스어 디션 및 가곡 관련 수업에서 프랑스어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프랑스 가곡을 부르기 위한 발음규칙 및 가곡의 소개, 성악 지도가 수업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언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더욱 안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원하는 프랑스어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문 조사에서 효과적인 프랑스어 교육 방법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상의 개선책을 세워보았다.

- 대학교 4년 동안 꾸준한 언어 수업을 위해 매 학기마다 프랑스어 관련 수업을 성악과에서 개설하여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개설 과목들을 프랑스어 디션, 프랑스 가곡 수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 수업들을 포함하여 프랑스어 문법 수업, 프랑스어 기초 회화 수업, 프랑스어 발음 수업 등 세분화된 프랑스어 수업들을 체계적으로 설치한다.

- 방학기간동안 성악전공 학습자들만을 위한 단기 프랑스어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습자의 언어요구를 단기간에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특수 목적 교육의 특징 중 학습 기간과 관련하여 가장 적합한 교육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대학교의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프랑스어 수업들, 즉 초급 프랑스어, 중급 프랑스어, 고급 프랑스어, 프랑스어 회화와 같은 수업들을 전공 선택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프랑스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성악 전공자들은 성악을 하는데 있어 언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언어 학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따라서 성악과 교과과정에는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성악을 위해 필요한 언어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업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2) 교재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프랑스어 디션이나 프랑스 가곡 관련 수업에서

배운 프랑스어가 전부라고 가정했을 때, 이들은 프랑스어 발음법 이외에 다른 언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필요한 부분을 혼자서 학습할 수밖에 없고 이때 학습의 중요한 매개체인 교재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앞의 설문 조사 결과처럼 수업에서 교재 사용 비율이 높고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 이외에 다른 교재도 참고하고 있다는 응답자 수가 절반 이상일 뿐만 아니라 관찰 결과 대부분의 성악 전공자들이 프랑스어 디션 및 가곡 관련 교재를 한 권 이상 가지고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들에게 교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발음법이나 가사해석을 보기 위해서만 교재를 참고하는 것은 아니며 악보를 보기 위해서라든지 다른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교재에서 개선되었으면 하거나 첨가해야 할 부분과 관련된 학습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였고, 이 요구들을 토대로 ‘성악 전공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교재가 따로 존재한다면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시중에 프랑스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하고 많은 출판물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학습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고 이는 학습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성악 전공자들에게 필요한 프랑스어 능력을 우선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 놓은 교재, 즉, 앞 장(4.1.2.)에서 제시한 학습 내용을 다 담은 교재가 존재한다면 학습자들에게 학습 성취면에서 훨씬 효과적인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프랑스어 디션 교재나 프랑스 가곡 해석과 관련된 교재들과 차별화된 교재가 필요하므로 학습자들이 교재를 참고하는 이유와 교재에 대한 요구들을 종합하여 프랑스어 발음, 가사해석, 기초 문법 설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교재가 별도로 제작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교재에는 원어민의 정확한 발음이 담긴 가곡 CD를 교재에 첨부해 학습자가 언제든지 정확한 발음을 연습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줘야 한다.

3)교수자

설문 조사에서 프랑스어 디션이나 프랑스 가곡 관련 수업 교수자의 전문 분야를 조사한 결과 성악을 전공한 한국인이 전체의 71%로 가장 많았다. 성악을 전공한 한국인 교수자는 주로 프랑스에서 유학한 성악 전공자들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프랑스어 발음지도나 프랑스어 능력의 부족(가사해석이나 문법 설명 등)으로 교수자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설문 결과에 의하면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프랑스어 디션 및 가곡 수업에서 원하는 교수자는 성악 전공자이자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자인 한국인을 가장 선호했으며 그 다음으로 성악 전공의 프랑스인을 원했다. 이 결과는 학습자들이 한편으로는 프랑스어 발음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발음 및 관련문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많은 학습자들이 원어민을 통해 올바른 프랑스어 발음법을 익히기 원하였는데 교수자가 원어민일 경우 발음법을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학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특수 목적 프랑스어 교육에서는 프랑스어 교육 전공자와 특수 목적 분야 전공자가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자는 언어적인 측면만을 지도하고, 성악 전공자는 음악적인 면을 지도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특수하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 프랑스어를 배우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프랑스어 교육을 특수 목적 프랑스어 교육이라 한다. 특수 목적 프랑스어 교육은, 학습자의 정확한 언어요구 없이 단지 교양 교육의 하나로써 광범위한 학습 목표 아래 프랑스어를 배우는 일반 프랑스어 교육에 비해 훨씬 실용적인 교육이라는 점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실용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특수 목적 학습자 집단을 분류하여 이들의 언어 사용 목적에 맞춘 프랑스어 교육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 특수 목적 프랑스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나 직업 분야에서 학습자의 언어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랑스어 교육을 구상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프랑스어를 필요로 하고 배우고자 하는 다양한 분야의 학습자 집단은 늘 존재하므로 특수 목적 프랑스어 교육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수 목적 프랑스어 교육의 일환으로 프랑스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학습 목표가 분명한 집단으로 판단되는 성인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성악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특수 목적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을 연구 하였다. 여기에서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을 특수 목적 프랑스어와 구분해 특수 목적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이라 칭하는 이유는 이들을 위한 학습 내용에 해당되는 프랑스 예술가곡에 전문 영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어휘나 담화구조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I 장에서는 먼저 특수 목적 프랑스어 교육의 이해를 위해 그 개념과 FOS의 이론적 배경에 관해 알아보았다. FOS가 FLE에서 언어 교육의 한 방법으로 자리 잡기까지 그 과정을 알아보면서, 전문 분야와 직업 분야에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프랑스어를 배우려는 성인 학습자들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내외에서 행해졌던 FOS 교육의 실례를 통해 실용적인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장에서는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교 성악과의 전공과목 중 프랑스어 관련 수업의 교수·학습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프랑스어 디션 및 가곡 관련 수업과 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를 통해 대학교에서 프랑스어 관련 학과와 무관한 학과에서 전공과목으로 프랑스어 관련 커리큘럼이 2개 학기 이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그만큼 성악 전공자들에게 프랑스어가 필요한 언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되었다. 하지만 수업 내용과 교재에서 프랑스어 교육 내용이 아쉽게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였다. III장에서는 설문을 통해 61명의 성악 전공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프랑스어 학습 경험과 수업 경험, 프랑스어 요구를 조사하여 학습자들이 원하는 프랑스어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1)성악 전공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학습경험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의 절반 이상이 대학교 성악과 전공수업, 즉 프랑스어 디션이나 프랑스 가곡 관련 수업에서 프랑스어를 처음으로 접했으며 나머지 학습자들도 고등학교 때 제 2외국어 수업이나 대학교의 교양교육 수업으로 프랑스어를 배웠지만 학습 수준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의 프랑스어 능력 자가진단 평가에서도 대부분의 학습자가 자신의 프랑스어 능력을 ‘하’로 평가하여 프랑스어에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였다. 2)프랑스어 관련 수업경험 조사로부터 대부분의 학습자가 프랑스어 디션 및 가곡관련 수업을 수강하였고 프랑스어 학습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수업에서는 언어 교육보다 성악적인 부분에서 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학습자들은 수업 이외의 프랑스어 디션 및 가곡 해설과 관련된 교재를 통해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교재에 학습자들이 원하는 프랑스어 내용이 충분치 않았다. 마지막으로 3)학습자들의 프랑스어 요구 조사를 통해 성악 전공자들이 프랑스어를 배우기 원하는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은 프랑스 성악곡을 노래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발음법을 익히는 것과 가곡의 가사를 해석하기 위한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었다. 또한, 프랑스어에 대한 자신감이 프랑스 성악 곡 연주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로부터 프랑스어 학습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석을 위한 문법 학습의 필요성과 발음법 이외에도 프랑스어 회화 능력도 갖추길 원한다는 사실로부터 성악 전공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학습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IV장에서는 III장의 조사 결과로부터 얻어진, 사실을 근거로 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프랑스어 학습 상황과 비교해 성악 전공 학습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학습 목표 및 내용을 선정하였다. 학습 내용은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요구대로 말하기와 읽기 능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으로 제한하고 프랑스어 발음 학습을 위한 학습 내용과 가사 해석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 내용으로 나누어 정하였다. 이 학습 내용으로 프랑스어 관련 수업에서 성악 전공 학습자들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예를 들기 위해, 많은 수의 성악 전공 학습자들이 프랑스어 동사의 활용 규칙을 몰라 사전을 이용하여 해석을 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어의 인칭, 수, 시제에 따른 동사 변화’교육에 관한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동사 활용 규칙은 짧은 수업 시간 내에 가사 해석을 위해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문법 사항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성악 전공 학습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프랑스어 교수·학습 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차후에 더 나은 교육 환경을 기대해본다.

성악 전공자들은 장기적으로 프랑스어를 접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학습자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악 전공자들의 프랑스어 필요성을 입증하고 현재 대학교 성악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어 교수·학습 현황과 이들의 프랑스어 요구를 조사·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집단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프랑스어 교수·학습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여기에서 이루어진 프랑스어 요구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더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을 기대해본다. 아울러, 이 연구를 시작으로 성악 전공자뿐만 아니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프랑스어를 배우고자 하는 다양한 분야의 성인 학습자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Bibliographie

《국내서적》

- 김진수(2007), 프랑스의 언어정책,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 박경자 외(2000), 언어 교수학, 박영사
- 박경자 외(2002), 영어교재론, 박영사.
- 빠에르 베르낙(심선화 역, 2003), 프랑스 예술 가곡의 해석, 청림출판.
- 송정희 외3인(1999), 불어교육론, 하우.
- 심선화(1997), 프랑스어 디션과 가곡연구, 청림출판.
- 유태열(1997), 성악인을 위한 프랑스어 디션, 수문당.
- 장한업(2003), 한국의 불어교육,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조안 월 외(박윤경 역, 2005), 성악인을 위한 디션, 음악세계.
- Boyer, H. et al.(장한업 옮김, 1996), 새로운 외국어-불어 교육학 개론, 하우.
- Brown, H. Douglas(이홍수 역, 2003),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 Pearson Education Korea.
- D. Nunan(임병빈 역, 2003), 제2언어 교수 학습, 한국문화사.
- Galisson, R.(한상헌 옮김, 2000), 일반 외국어 교육학, 도서출판 만남.

《국내 학술잡지》

- 김경량(1998), «제도권 밖에서의 프랑스어 교육 : 그 특징과 학습활동», 프랑스어문교육 제 6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pp. 1-24.
- 김현옥(2008), «특수목적영어 교과 현황 및 개발 방향», 영어교육연구 제 20권 3호, pp. 143-168.

송정희(1997), «특수 목표를 위한 프랑스어 교육», EU연구 n°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EU연구소, pp. 317-352.

《국내 학위 논문》

- 안설희(2003),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숙(2005), 특수 목적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일본인 대상의 ‘관광 한국어’ 교재 개발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선환(1988), 언어요구를 위한 고등학교 불어 학습자의 선호주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교육과정 문서》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201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6], 교육과학기술부.

《국외서적》

- Abry, D. (2007) *Le français sur objectifs spécifiques et la classe de langue*, CLE.
- Beacco, J.-C. & Lehmann, D (1990) *Publics spécifiques et communication spécialisée*, Hachette.
- Bérard, E. (1990) *L'approche communicative: Théorie et pratiques*, CLE

International.

- Bernac, P. (1978) *The interpretation of french song*, W. W. Norton & Company.
- Besse, H & Galisson, R. (1980) *Polémique en didactique*, CLE.
- Challe, O. (2002) *Enseigner le français de spécialité*, Economica.
- Conseil de la coopération culturelle Comité de l'Éducation. (2001) *Un 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 apprendre, enseigner, évaluer*, Didier.
- Cuq, J.-P. & Gruca, I. (2003) *Cours de didactiqu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et seconde*, PUG.
- Cuq, J.-P. (2003) *Dictionnaire didactiqu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et seconde*, CLE International.
- Defays, J.-M. (2003) *Le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et seconde*, Mardaga.
- Eurin, S. & Henao, M. (1992) *Pratique du français scientifique*, Hachette.
- Galisson, R. & Coste, D. (1976) *Dictionnaire de didactique des langues*, Hachette.
- Galisson, R. (1980) *Lignes de force du renouveau actuel en didactique des langues étrangères*, CLE international.
- Germain, C. (1993) *Évolution de l'enseignement des langues : 5000ans d'histoires*, CLE International.
- Hutchinson, T & Waters, A. (1987) *English for specific purpo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hmann, D. (1993) *Objectifs spécifiques en langues étrangères*, Hachette.
- Lerat, P. (1995) *Les langues spécialisées*, Presses Universitaire de France.

- Mangiante, J.-M. & Parpette, C. (2004) *Le français sur objectif spécifique : de l'analyse des besoins à l'élaboration d'un cours*, Hachette.
- Moirand, S. (1984) *Enseigner à communiquer en langue étrangère*, Hachette.
- Nunan, D. (2004) *Task-Based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terich, R. & Chancerel, J.-C. (1977) *L'identification des besoins des adultes apprenant une langue étrangère*, Hatier
- Richterich, R. (1985) *Besoins langagiers et objectifs d'apprentissage*, Hachette.
- Robert, J.-P. (2002) *Dictionnaire pratique de didactique du FLE*, OPHRYS.
- Springer, C. (1996) *La didactique des langues face aux défis de la formation des adultes*, OPHRYS.
- Vigner, G. (1980) *Didactique fonctionnelle du français*, Hachette.

« 외국 학술잡지 »

- Holtzer, G. (2004) «Du français fonctionnel au français sur objectif spécifiques», *Le français dans le monde, n° spécial, janvier : Français sur objectifs spécifiques de la langue aux métiers*, CLE, pp. 8-24.
- Kahn, G. (1990) «Un manuel pour l'enseignement du français aux militaires indigènes, 1927.», *Le français dans le monde, Recherches et application, n° spécial, août-septembre : Publics spécifiques et communication spécialisée*, Hachette, pp. 97-103.

- Lehmann, D. (1980) «Français fonctionnel, enseignement fonctionnel du français» : *Lignes de force du renouveau actuel en didactique des langues étrangères*, CLE, pp. 115-143.
- Porcher, L. (1976) «Monsieur Thibaut et le bec Bunsen», *E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n°23 : Approches d'un français fonctionnel*, Didier, pp. 6-17.
- Rolland, D. (2004) «Langues de spécialité et projets de développement», *Le français dans le monde, n° spécial, janvier : Français sur objectifs spécifiques de la langue aux métiers*, CLE, pp. 62-77.

《인터넷 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

<http://www.le-fos.com/>

<http://www.ncic.re.kr/>(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Annexe

[부록 1] 성악 전공자들의 프랑스어 요구 조사

성악 전공자들의 프랑스어 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과 석사과정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성악 전공자들의 프랑스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악 전공자들이 프랑스어 학습에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이 성악전공자들의 프랑스어 학습 방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잘 읽어보시고 느끼는 대로, 그리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 내용은 연구 목적이외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자의 신분이 드러나지도 않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프랑스어 전공
석사 과정 김 은 혜 (jolieeh@naver.com)

♣ 응답지가 제시된 문항의 경우, 본인에게 가장 해당되는 사항 하나만 선택하여 응답지 앞의 밑줄 친 부분에 ‘ √ ’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I. 프랑스어 학습 경험

1. 프랑스에서 체류 경험이 있습니까?

_____ ① 있다.

_____ ② 없다.

2. 프랑스에 체류한 적이 있다면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3. 귀하께서 프랑스어를 처음 배운 곳은 어느 교육기관에서 어떤 계기로 시작하였습니까?

_____ ① 고등학교 때(제 2외국어로)

_____ ② 대학교 때(교양수업에서)

_____ ③ 성악 과에서 전공 수업으로

_____ ④ 학원 등 사설교육기관에서

_____ ⑤ 독학으로

_____ ⑥ 기타 (언제, 어떤 방법으로 _____)

4. 귀하의 전반적인 프랑스어 능력은 본인이 스스로 평가하기에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상의 상

_____ ② 상의 하

_____ ③ 중의 상

_____ ④ 중의 하

_____ ⑤ 하의 상

_____ ⑥ 하의 하

5. 본인의 프랑스어 말하기 능력은?

- _____ ① 상의 상
- _____ ② 상의 하
- _____ ③ 중의 상
- _____ ④ 중의 하
- _____ ⑤ 하의 상
- _____ ⑥ 하의 하

6. 본인의 프랑스어 듣기 능력은?

- _____ ① 상의 상
- _____ ② 상의 하
- _____ ③ 중의 상
- _____ ④ 중의 하
- _____ ⑤ 하의 상
- _____ ⑥ 하의 하

7. 본인의 프랑스어 읽기 능력은?

- _____ ① 상의 상
- _____ ② 상의 하
- _____ ③ 중의 상
- _____ ④ 중의 하
- _____ ⑤ 하의 상
- _____ ⑥ 하의 하

8. 본인의 프랑스어 쓰기 능력은?

- _____ ① 상의 상
- _____ ② 상의 하
- _____ ③ 중의 상
- _____ ④ 중의 하
- _____ ⑤ 하의 상
- _____ ⑥ 하의 하

II. 대학교에서 성악과 전공 수업으로 수강한 프랑스어 관련 수업 경험에 관한 조사 (성악과 전공 수업으로 개설된 프랑스어 관련 수업이란 ‘프랑스어 디션’ 혹은 ‘불어 디션’, ‘프랑스 가곡’, ‘프랑스 가곡 문헌’, ‘불란서 가곡 클래스’ 등, 프랑스어와 관련된 교과목을 말합니다.)

II-1. 수업 및 진행 방식 조사

1. 대학교에서 성악과 전공과목 중 프랑스어 관련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까?

_____ ① 있다.

_____ ② 없다.

2. 프랑스어 관련 수업을 들으셨다면 어떤 수업을 들으셨습니까? (참고: 프랑스어 디션, 프랑스 가곡, 프랑스 가곡문헌, 불란서 가곡 클래스 등)

3. 프랑스어 관련 수업은 몇 학기 동안 배우셨습니까?

몇 _____ 학기

4. 그 때 수강하신 과목들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했습니까?

_____ ① 의무적으로

_____ ② 본인이 스스로 선택

5. 만약 의무적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되었다면 귀하는 당시에 그 과목을 수강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_____ ① 그래도 수강했을 것이다.

_____ ② 의무적이지 않았으면 수강하지 않았을 것이다.

6. 의무적이지 않았는데, 수강했을 거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① 프랑스어의 발음법과 해석법을 배우기 위해서
- _____ ② 프랑스 성악곡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 _____ ③ 평소 프랑스 성악곡에 관심이 많아서
- _____ ④ 성악전공자로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해서
- _____ ⑤ 기타(무엇_____)

7. 귀하는 성악을 위해 프랑스어의 기본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_____ ① 반드시 필요함
- _____ ② 어느 정도 필요함
- _____ ③ 필요 없음

8. 대학교에서 배운 프랑스어 디션(불어 디션)과 프랑스 가곡 관련 수업이 귀
하께서 지금 프랑스 예술 가곡이나 오페라를 연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합니까?

- _____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_____ ② 도움이 되는 편이다.
- _____ ③ 보통이다.
- _____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_____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9.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응답한 경
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발음법을 상세하게 배울 수 없었다.
- _____ ② 가사의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었다.
- _____ ③ 언어의 특징 및 기본적인 설명의 부족으로 일반 레슨과 다를 바
없었다.
- _____ ④ 이론 중심의 수업이어서 실제 가곡에 적용할 시간이 부족했다.
- _____ ⑤ 강의자의 능력이 부족했다.
- _____ ⑥ 기타(무엇_____)

10. 그때 프랑스어 관련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 _____ ① 이론 수업
- _____ ② 실기 수업
- _____ ③ 실기가 병행되었으나 이론 중심 수업
- _____ ④ 이론이 병행되었으나 실기 중심 수업

11. 그때 수업 진행 방식은 수업 목표와 내용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 _____ ① 매우 그렇다.
- _____ ② 그렇다.
- _____ ③ 보통이다.
- _____ ④ 그렇지 않다.
- _____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 프랑스 가곡이나 오페라를 노래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프랑스어 덕션 수
업**에서는 수업방식이나 수업내용 등 수업에서 어떤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습
니까?

- _____ ① 정확한 발음 연습
- _____ ② 프랑스어의 기초 문법 교육
- _____ ③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 프랑스어 회화 익히기
- _____ ④ 가곡을 통해 발음법을 익힐 수 있는 실기위주의 수업강화
- _____ ⑤ 발음 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입모양 제시
- _____ ⑥ 기타(무엇_____)

13. **프랑스 가곡과 관련된 수업**에서는 수업방식이나 수업내용 등 어떤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까?

- _____ ① 가사해석을 위한 프랑스어 기초문법 다루기
- _____ ② 명확한 프랑스어 덕션과 액센트에 중점을 둔 프랑스 가곡 연주
- _____ ③ 다양한 프랑스 가곡 익히기
- _____ ④ 프랑스 가곡의 역사적 배경과 전반적인 시대흐름의 이해
- _____ ⑤ 기타(무엇_____)

II-2. 교재에 대한 질문

14. 그때 프랑스어 관련 수업에서는 별도의 교재를 사용했습니까?

_____ ① 사용했음.

_____ ② 사용하지 않았음.

15. (‘① 사용했음’에 응답한 경우) 교재를 사용했었다면 수업에서 사용했던 교재가 수업 방식과 내용면에서 적절했다고 생각합니까?

_____ ① 매우 적절했다.

_____ ② 적절한 편이었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적절하지 않았다.

_____ ⑤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16. 귀하께서는 수업 이외에 개인의 능력향상을 위해 시중에 나와 있는 프랑스어 사전 혹은 가곡 해설과 관련된 교재를 참고합니까?

_____ ① 그렇다.

_____ ② 아니다.

17. (‘①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 시중에 출판된 교재를 참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① 발음법을 알기 위해서

_____ ② 가사의 해석을 알기 위해서

_____ ③ 프랑스어 문법을 알기 위해서

_____ ④ 프랑스 가곡의 작곡가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_____ ⑤ 프랑스 가곡이나 오페라를 알아보기 위해서

_____ ⑥ 기타(무엇_____)

18. 귀하께서는 수업 이외에 개인의 능력향상을 위해 시중에 나와 있는 프랑스어 디션 혹은 가곡 해설과 관련된 교재를 참고하시는 경우에는 그 교재가 프랑스 가곡이나 오페라를 부르는데 도움이 됩니까?

- _____ ① 매우 도움이 됨.
_____ ② 도움이 되는 편임.
_____ ③ 별로 도움이 안 됨.
_____ ④ 도움이 안 되는 편임.
_____ ⑤ 전혀 도움이 안 됨.

19. ('① 매우 도움이 됨'과 '② 도움이 되는 편임'에 응답한 경우) 도움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 _____ ① 발음법을 알 수 있었다.
_____ ② 가사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_____ ③ 작곡자와 곡의 배경을 알 수 있었다.
_____ ④ 프랑스적인 표현과 취향을 알 수 있었다.
_____ ⑤ 프랑스 음악의 특징을 알 수 있어서 곡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_____ ⑥ 기타(무엇_____)

20. 교재에서 개선되었으면 하거나 첨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_____ ① 발음에 관한 자세한 설명
_____ ② 가사해석에 관한 자세한 설명
_____ ③ 다양한 프랑스 가곡 수록
_____ ④ 기초 프랑스어 문법 설명
_____ ⑤ 기타(무엇_____)

II-3. 강의자에 관한 질문

21. 프랑스어 디션 혹은 프랑스 가곡과 관련된 수업을 강의하셨던 분(교수)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였습니까? (※ 아래 문항의 프랑스 인은 프랑스어권 외국인도 포함)

- _____ ① 성악 전공의 한국인
- _____ ② 성악 전공의 프랑스 인
- _____ ③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한국인
- _____ ④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프랑스 인
- _____ ⑤ 성악과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한국인

22. 프랑스어 디션 혹은 프랑스 가곡과 관련된 수업의 강의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_____ ① 매우 만족
- _____ ② 만족
- _____ ③ 보통
- _____ ④ 불만족
- _____ ⑤ 매우 불만족

23. ('④ 불만족'과 '⑤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① 발음법에 관한 설명 부족
- _____ ② 가사 해석에 관한 설명 부족
- _____ ③ 프랑스어 디션(혹은 프랑스 가곡) 강의자로서 프랑스어 능력 부족
- _____ ④ 강의자가 프랑스인 이었던 경우, 대화 불가능
- _____ ⑤ 기타(무엇_____)

24. 강의자의 수업은 노래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_____ ① 매우 그렇다.
_____ ② 그렇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그렇지 않다.
_____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5. 강의자는 수업에서 프랑스어 문법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까?

- _____ ① 문법도 가르쳤다.
_____ ② 문법은 가르치지 않았다.

Ⅲ. 응답자의 프랑스어 요구에 관한 질문

1. 귀하는 프랑스어 학습이 프랑스 가곡이나 오페라를 노래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_____ ① 매우 도움이 됨.
_____ ② 도움이 됨.
_____ ③ 보통.
_____ ④ 도움이 안 됨.
_____ ⑤ 전혀 도움이 안 됨.

2. 성악을 위해 프랑스어를 배우는 주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_____ ① 정확한 프랑스어 발음과 액센트를 배우기 위해서
_____ ② 프랑스 가곡의 가사 해석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_____ ③ 프랑스 성악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언어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_____ ④ 기타(무엇_____)

3. 프랑스 가곡이나 오페라를 부르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기본 발음
- _____ ② 연음(liaison)
- _____ ③ 액센트
- _____ ④ 비음
- _____ ⑤ 가사 해석
- _____ ⑥ 기타(무엇_____)

4. 귀하께서 생각하는 성악을 위한 프랑스어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_____ ① 매우 중요하다.
- _____ ② 중요하다.
- _____ ③ 보통이다.
- _____ ④ 중요하지 않다.
- _____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귀하께서는 성악을 위한 프랑스어 학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 _____ ① 말하기
- _____ ② 듣기
- _____ ③ 읽기
- _____ ④ 쓰기
- _____ ⑤ 문법
- _____ ⑥ 발음
- _____ ⑦ 어휘
- _____ ⑧ 문화

6. 귀하께서는 프랑스 가곡이나 오페라를 부르기 위해 프랑스어 문법 학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반드시 필요함.
- _____ ② 일부분 필요함.

_____ ③ 필요 없음.

7.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문법 학습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_____ ① 간단한 문법 구조와 문장 표본을 알고 있어서 사전을 이용해서 독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

_____ ② 주어의 인칭, 시제에 따라 동사 변형을 할 수 있는 수준

_____ ③ 몇몇 단순한 구조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간단한 작문도 할 수 있는 수준

_____ ④ 친숙한 상황에서 문법 구조를 능숙하게 다루어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준

_____ ⑤ 기타(무엇_____)

8. 프랑스 가곡이나 오페라를 부르기 위해 프랑스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_____ ① 반드시 필요함.

_____ ② 일부분 필요함.

_____ ③ 필요 없음.

9. 필요하다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_____ ① 가곡이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_____ ② 프랑스의 문화를 알면 곡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_____ ③ 문화는 언어, 예술을 모두 포함하므로 성악곡에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_____ ④ 기타(무엇_____)

10. 귀하께서는 성악을 위해 본인이 원하는 프랑스어 수준은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습니까?

_____ ① 발음기호를 보지 않고도 혼자 발음할 수 있는 수준

_____ ② 연음(liaison)이나 프랑스어의 특수한 발음법에도 막힘없는 수준

_____ ③ 원어민에 가까운 정확한 발음으로 올바르게 가사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

- _____ ④ 자기소개와 같은 간단한 문장들을 프랑스어로 사용 할 수 있는 수준
- _____ ⑤ 익숙한 주제나 개인적인 관심 분야에 대해 프랑스어로 조리 있게 표현 할 수 있는 수준
- _____ ⑥ 프랑스 가곡과 오페라에 나오는 문법정도만 알고 있는 수준
- _____ ⑦ 시제와 인칭에 따라 동사 변화를 할 수 있는 수준
- _____ ⑧ 가사의 해석을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사전을 이용해서)
- _____ ⑨ 프랑스 가곡을 들었을 때 가사를 인지 할 수 있는 수준
- _____ ⑩ 풍부한 어휘력을 갖춘 수준
- _____ ⑪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프랑스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는 수준
- _____ ⑫ 기타(무엇_____)

11. 대학에서 성악과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프랑스어 덕션 수업이 주로 발음법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 _____ ① 만족한다.
- _____ ② 만족하지 않는다.

12. ('② 만족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경우)발음법 이외에 별도의 프랑스어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 _____ ① 그렇다.
- _____ ② 아니다.

13. ('①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을 더 학습하고 싶습니까?

- _____ ① 문법
- _____ ② 회화
- _____ ③ 독해
- _____ ④ 쓰기
- _____ ⑤ 기타(무엇_____)

14. 프랑스어 디션 수업의 강의를자로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 _____ ① 성악 전공의 한국인
- _____ ② 성악 전공의 프랑스 인
- _____ ③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한국인
- _____ ④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프랑스 인
- _____ ⑤ 성악과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한국인

15. 귀하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프랑스어 디션 교재를 통해 혼자서도 올바른 프랑스어 발음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까?

- _____ ① 혼자서도 잘 익힐 수 있었다.
- _____ ② 혼자서 익힐 수 있었다.
- _____ ③ 쉽지 않으나 혼자 익힐 수 있었다.
- _____ ④ 혼자 익히기 어려웠다.
- _____ ⑤ 혼자 전혀 익힐 수 없었다.

16. ('④ 혼자 익히기 어려웠다'와 '⑤ 혼자 전혀 익힐 수 없었다'에 응답한 경우) 교재에서 부족한 점이나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_____ ① 원어민의 정확한 발음 CD
- _____ ② 가사에 나오는 각 단어의 정확한 발음기호 표기
- _____ ③ 발음 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입모양 추가
- _____ ④ 가사 해석부분에서 직역과 의역의 구분
- _____ ⑤ 가사에 나오는 동사의 원형 표기
- _____ ⑥ 기타(무엇_____)

17. 귀하께서 프랑스 가곡이나 오페라를 부를 때는 이태리 가곡이나 독일 가곡과는 달리 두려움이 생깁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_____ ① 두려움이 생긴다.
- _____ ②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18. ('① 두려움이 생긴다'에 응답한 경우) 프랑스 가곡이나 오페라를 노래할 때 본인의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합니까?

- _____ ① 독일어나 이탈리아어에 비해 프랑스어가 낯설어서
_____ ② 발음의 부정확함
_____ ③ 비음을 내는 것이 어려워서
_____ ④ 프랑스 성악곡에 대한 배경지식의 부족
_____ ⑤ 기타(무엇_____)

19. 귀하께서는 프랑스어에 대한 낯설음이나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프랑스 가곡을 기피한 경험이 있습니까?

- _____ ① 있다.
_____ ② 없다.

20. 본인의 프랑스어 수준이 높아진다면 프랑스 가곡이나 오페라를 노래할 때도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 _____ ① 그렇다.
_____ ② 아니다.

21. (유학생이거나 현재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성악을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가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프랑스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_____ ① 그렇다.
_____ ② 아니다.

22. 귀하께서는 시간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프랑스어를 더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 _____ ① 배우고 싶다.
_____ ②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

23. 학습의 형태는 무엇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_____ ① 독학

_____ ② 교육기관에서의 학습

24. 설문조사 항목 이외에 본인이 생각하는 성악 전공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프랑스어 교육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IV. 기본자료

1. 귀하의 성별을 표시해 주십시오.

_____ ① 남

_____ ② 여

2. 나이는 금년에 몇 살입니까?

(만)_____ 세

3. 귀하의 직업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예: ○○극장 합창단원, ○○대학 강사, 취업준비 중, 대학원 진학 준비 중 등)

무엇? _____

4. 귀하의 학력은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_____ ① 대학교 재학 중

_____ ② 대학교 졸업

_____ ③ 석사(재학 중, 수료 포함)

_____ ④ 박사(재학 중, 수료 포함)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2] 설문 조사 결과 분석

I. 프랑스어 학습경험

[표 1] 프랑스 체류경험

프랑스 체류 경험	빈도(명)	백분율(%)
있다.	7	11
없다.	54	89
계	61	100

[표 2] 프랑스어 학습 계기

프랑스어를 처음 배운 계기	빈도(명)	백분율(%)
고등학교(제 2외국어)	9	15
대학교(교양수업)	9	15
성악 과에서 전공수업	38	62
학원 등 사설교육기관	2	3
독학	0	0
기타	3	5
계	61	100

[표 3] 전반적인 프랑스어 능력에 관한 자가진단 평가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상의 상	0	0
상의 하	0	0
중의 상	0	0
중의 하	12	20
하의 상	20	32
하의 하	29	48
계	61	100

[표 4] 프랑스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능력

언어능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구 분	명(백분율)	명(백분율)	명(백분율)	명(백분율)
상의 상	0	0	0	0
상의 하	0	0	6 (10%)	0
중의 상	0	0	12 (20%)	3 (5%)
중의 하	8 (13%)	6 (10%)	18 (30%)	7 (11%)
하의 상	18 (30%)	14 (23%)	9 (15%)	13 (21%)
하의 하	35 (57%)	41 (67%)	16 (25%)	38 (63%)
계	61 (100%)	61 (100%)	61 (100%)	61 (100%)

II. 프랑스어 관련 수업경험에 관한 조사

II-1. 수업 및 진행 방식 조사

[표 5] 전공과목 중 프랑스어 관련 수업 수강여부

프랑스어 관련 수업 수강여부	빈도(명)	백분율(%)
있다.	59	97
없다.	2	3
계	61	100

[표 6] 수업의 종류

수업의 종류	빈도(명)	백분율(%)
프랑스어 덕션	56	73
프랑스 가곡	19	25
프랑스 가곡문헌	2	2
계	77	100

[표 7] 수업기간

수업기간	빈도(명)	백분율(%)
1개 학기	5	8
2개 학기	43	73
3개 학기	8	14
4개 학기	3	5
계	59	100

[표 8] 수강한 과목의 이수구분

수강 과목의 이수구분	빈도(명)	백분율(%)
필 수	57	97
선 택	2	3
계	59	100

[표 9] 필수로 이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우의 수강여부

의무적이지 않았을 경우의 수강여부	빈도(명)	백분율(%)
그래도 수강했을 것이다.	52	88
수강하지 않았을 것이다.	7	12
계	59	100

[표 10] 의무가 아니었을 경우 수강선택 이유

수강이유	빈도(명)	백분율(%)
프랑스어 발음법과 해석법을 배우기 위해	23	44
평소 프랑스어에 관심이 많아서	2	4
프랑스 성악곡의 접근과 이해를 위해	11	21
성악전공자로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해서	16	36
기타	0	0
계	52	100

[표 11] 기본적인 프랑스어 학습의 필요성

학습의 필요성	빈도(명)	백분율(%)
반드시 필요함.	50	82
어느 정도 필요함.	11	18
필요 없음.	0	0
계	61	100

[표 12] 수업이 프랑스 가곡 연주에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

도움 여부	빈도(명)	백분율(%)
매우 도움이 된다.	24	40
도움이 되는 편이다.	18	31
보통이다.	9	15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8	1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	0
계	59	100

[표 13] 수업진행 방식

수업진행 방식	빈도(명)	백분율(%)
이론 수업	3	5
실기 수업	2	3
실기가 병행되었으나 이론 중심 수업	17	29
이론이 병행되었으나 실기 중심 수업	37	63
계	59	100

[표 14] 수업진행 방식의 적절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다.	5	8
그렇다.	25	42
보통이다.	20	34
그렇지 않다.	7	12
전혀 그렇지 않다.	2	4
계	59	100

[표 15] 프랑스어 딕션 수업의 방식 및 내용의 보완점

수업 방식 및 내용의 보완점	빈도(명)	백분율(%)
정확한 발음 연습	20	31
프랑스어의 기초 문법 교육	14	22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 회화 익히기	12	18
가곡을 통해 발음법을 익힐 수 있는 실기위주의 수업강화	18	28
기타	1	2
계	65	100

[표 16] 프랑스 가곡 관련 수업의 방식 및 내용의 보완점

수업 방식 및 내용의 보완점	빈도(명)	백분율(%)
가사해석을 위한 프랑스어 기초문법 다루기	19	36
명확한 딕션과 액센트에 중점을 둔 가곡연주	19	36
다양한 프랑스 가곡 익히기	7	13
프랑스 가곡의 배경과 전반적인 시대흐름의 이해	5	9
발음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입모양	3	6
계	53	100

II-2. 교재에 대한 조사

[표 17] 수업의 교재사용 여부

사용 여부	빈도(명)	백분율(%)
사용한다.	45	74
사용 안한다.	16	26
계	61	100

[표 18] 교재의 적절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적절했다.	7	16
적절한 편이었다.	10	22
보통이다.	24	53
적절하지 않았다.	3	7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1	2
계	45	100

[표 19] 수업 이외의 별도의 교재 참고여부

참고 여부	빈도(명)	백분율(%)
사용한다.	32	52
사용 안한다.	29	48
계	61	100

[표 20] 교재 참고 이유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발음법을 알기 위해	21	51
가사의 해석을 알기 위해	13	32
프랑스어 문법을 알기 위해	2	5
프랑스 가곡·오페라를 알아보기 위해	3	7
프랑스 작곡가들을 알아보기 위해	2	5
계	41	100

[표 21] 교재 참고 시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도움이 됨	6	13
도움이 되는 편임	34	71
별로 도움이 안됨	6	13
도움이 안 되는 편임	1	2
전혀 도움이 안됨	1	2
계	48	100

[표 22] 도움이 된 부분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발음법을 알 수 있었다.	23	47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21	43
작곡자와 곡의 배경을 알 수 있었다.	1	2
프랑스적인 표현과 취향을 알 수 있었다.	3	6
기타	1	2
계	49	100

[표 23] 교재의 개선 및 첨가해야할 부분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발음에 관한 자세한 설명	17	30
가사해석에 관한 자세한 설명	15	27
다양한 프랑스 가곡 수록	13	23
기초 프랑스어 문법 설명	10	18
기타	1	2
계	56	100

II-3. 강의자에 관한 조사

[표 24] 강의자의 전문분야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악 전공의 한국인	40	71
성악 전공의 프랑스 인	1	2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한국인	4	7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프랑스 인	2	4
성악과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한국인	10	18
계	57	100

[표 25] 강의자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만족	4	7
만족	19	33
보통	26	46
불만족	5	9
매우 불만족	3	5
계	57	100

[표 26] 강의자가 불만족스러웠던 이유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발음법에 관한 설명 부족	1	11
가사 해석에 관한 설명 부족	2	22
프랑스어 디션(혹은 프랑스 가곡) 강의자로서 프랑스어 능력 부족	3	34
강의자가 프랑스인 이었던 경우, 대화 불가능	2	22
기타	1	11
계	9	100

[표 27] 강의자를 통한 프랑스어 습득의 도움 여부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다.	4	7
그렇다.	13	23
보통이다.	27	49
그렇지 않다.	9	16
전혀 그렇지 않다.	3	5
계	56	100

[표 28] 프랑스어 문법 교육 여부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문법도 가르쳤다.	24	43
문법은 가르치지 않았다.	32	57
계	56	100

Ⅲ. 프랑스어 요구에 관한 조사

[표 29] 프랑스어 학습이 연주에 도움을 주는지의 여부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도움이 됨	31	51
도움이 됨	23	37
보통	6	10
도움이 안 됨	1	2
전혀 도움이 안됨	0	0
계	61	100

[표 30] 성악을 위해 프랑스어를 배우는 주된 목적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정확한 프랑스어 발음과 액센트	35	54
프랑스 가곡의 가사 해석 능력	15	23
프랑스 성악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언어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13	20
기타	2	3
계	65	100

[표 31] 프랑스 가곡·오페라를 연주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기본 발음	18	27
연음(liaison)	20	30
액센트	4	6
비음	15	22
가사해석	10	15
계	67	100

[표 32] 성악을 위한 프랑스어의 중요도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중요하다.	17	28
중요하다.	33	54
보통이다.	10	16
중요하지 않다.	1	2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
계	61	100

[표 33] 성악을 위한 프랑스어 학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말하기	24	30
듣기	0	0
읽기	20	25
쓰기	0	0
문법	4	5
발음	31	38
어휘	2	2
문화	0	0
계	81	100

[표 34] 성악을 위한 프랑스어 문법 학습의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반드시 필요함	23	38
일부분 필요함	38	62
필요 없음	0	0
계	61	100

[표 35] 문법 학습의 필요수준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간단한 문법 구조와 문장 표본을 알고 있어서 사전을 이용해서 독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	38	62
주어의 인칭, 시제에 따라 동사 변형을 할 수 있는 수준	10	16
몇몇 단순한 구조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간단한 작문도 할 수 있는 수준	9	15
친숙한 상황에서 문법 구조를 능숙하게 다루어 정확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수준	4	7
기타	0	0
계	61	100

[표 36] 성악을 위한 프랑스 문화 이해의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반드시 필요함	29	48
일부분 필요함	27	45
필요 없음	4	7
계	60	100

[표 37] 필요한 이유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곡이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	14	25
프랑스의 문화를 알면 곡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	15	27
문화는 언어, 예술을 모두 포함하므로 성악곡에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	26	46
기타	1	2
계	56	100

[표 38] 성악을 위해 원하는 프랑스어 수준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발음기호를 보지 않고도 혼자 발음할 수 있는 수준	23	22
연음(liaison)이나 프랑스어의 특수한 발음법에도 막힘없는 수준	13	13
원어민에 가까운 정확한 발음으로 올바르게 가사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	14	14
자기소개와 같은 간단한 문장들을 프랑스어로 사용 할 수 있는 수준	10	10
익숙한 주제나 개인적인 관심 분야에 대해 프랑스어로 조리 있게 표현 할 수 있는 수준	4	4
프랑스 가곡과 오페라에 나오는 문법정도만 알고 있는 수준	8	8
시제와 인칭에 따라 동사 변화를 할 수 있는 수준	3	3
가사의 해석을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사전이용)	17	17
프랑스 가곡을 들었을 때 가사를 인지 할 수 있는 수준	7	7
풍부한 어휘력을 갖춘 수준	0	0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프랑스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는 수준	4	4
계	103	100

[표 39] 발음법 위주의 프랑스어 디션 수업의 만족도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만족한다.	33	54
만족하지 않는다.	28	46
계	61	100

[표 40] 발음법 이외에 별도의 프랑스어 학습의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필요하다.	27	96
필요 없다.	1	4
계	28	100

[표 41] 발음법 이외에 필요한 학습의 종류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문 법	15	34
회 화	18	41
독 해	10	23
쓰 기	0	0
기 타	1	2
계	44	100

[표 42] 원하는 프랑스어 디션 수업의 강의를 타입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악 전공의 한국인	10	15
성악 전공의 프랑스 인	15	25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한국인	4	7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프랑스 인	4	7
성악과 프랑스어 교육 분야 전공의 한국인	28	46
계	61	100

[표 43] 프랑스어 디션 교재를 통한 발음법 습득 여부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혼자서도 잘 익힐 수 있었다.	0	0
혼자서 익힐 수 있었다.	7	13
쉽지 않으나 혼자 익힐 수 있었다.	18	33
혼자 익히기 어려웠다.	26	48
혼자 전혀 익힐 수 없었다.	3	6
계	54	100

[표 44] 교재에서 부족한 점과 보완점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원어민의 정확한 발음 CD	24	60
가사에 나오는 각 단어의 정확한 발음기호 표기	6	15
발음 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입모양 추가	2	5
가사 해석부분에서 직역과 의역의 구분	7	17
가사에 나오는 동사의 원형 표기	1	3
계	40	100

[표 45] 프랑스 성악곡을 연주할 때의 두려움 여부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두려움이 생긴다.	36	59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25	41
계	61	100

[표 46]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독일어나 이탈리아에 비해 프랑스어가 낯설어서	9	22
발음의 부정확함	24	59
비음을 내는 것이 어려워서	3	7
프랑스 성악곡에 대한 배경지식의 부족	3	7
기 타	2	5
계	41	100

[표 47] 프랑스어 때문에 프랑스 가곡·오페라를 기피한 경험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있다.	31	51
없다.	30	49
계	61	100

[표 48] 프랑스어 수준이 높아질 경우 프랑스 가곡·오페라를
자신감 있게 연주할 수 있다.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그렇다.	54	89
아니다.	7	11
계	61	100

[표 49] 프랑스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프랑스로의 유학 포기여부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그렇다.	9	16
아니다.	46	84
계	55	100

[표 50] 프랑스어 학습 의향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배우고 싶다.	57	93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	4	7
계	61	100

[표 51] 학습의 형태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독학	5	8
교육기관에서의 학습	56	92
계	61	100

IV. 기본자료

[표 52] 조사 대상의 성별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남	35	57
여	26	43
계	61	100

[표 53] 조사 대상의 연령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만 20~29세	38	62
만 30~39세	18	30
만 40~49세	4	6
만 50세 이상	1	2
계	61	100

[표 54] 조사 대상의 직업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대학생	24	39
대학원생	17	28
합창단원	14	23
솔리스트	3	5
유학준비 중	1	2
취업준비 중	2	3
계	61	100

[표 55] 조사 대상의 학력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대학교 재학 중	24	39
대학교 졸업	6	10
석사(재학 중, 수료 포함)	22	36
박사(재학 중, 수료 포함)	9	15
계	61	100

[부록 3] ‘기본 어휘표’ 기준에
따른 가곡의 기본어휘55)

단어	제시형태
-A-	
à	à
	au
	aux
ah	
aimer	aimer
	aime
	aimant
	aimée
aller	aller
	vont
	irais
	irons
alors	
an	
année	
appeler	appelle
	appelais
après	
arbre	les arbres
assez	
attendre	
aussi	
avec	

avoir	ont
	a
	eut
-B-	
beau	beau
	belles
	beauté
	beaux
bien	
blanc	blanc
	blancs
boire	boit
	boirai
bras	
bruit	
-C-	
caché	caché
ce	ce
	c'
	ces
changer	a changé
chanson	
chanter	chanter
	chantant
chaud	und chaude
choisir	choisi
clair	
comme	

55) 단어 항목에는 ‘기본 어휘표’에 제시된 단어를 그대로 표기했으며 한 단어가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의 형태로 제시되었을 때 그 대표형만을 적었다. 제시형태 항목은 동사변화, 제롱디프, 복수형, 과거분사형태, 분사형태 등, 대표형이 변형된 형태로 쓰인, 가곡에 나오는 단어 형태를 그대로 썼다. 제시형태 항목을 빈 칸으로 비워 둔 단어는 변형 없이 그대로 쓰인 단어들이다.

comprendre	comprendra
conduire	conduisent
coucher	couchant
couleur	
couper	la coupe
courir	
croire	
-D-	
dans	
danser	dansant
de	de
	d'
désirer	désir
deux	
dire	se disent
	dites
	diras
dont	
dormir	dormir
	dort
doux	doux
	douceur
du	
-E-	
eau	
écouter	écoutent
en	
encore	
enfant	
ensemble	
entendre	entendre
	entendent
et	
été	
être	est
	sont
	étaient
-F-	

faire	fais
	fait
	font
fils	
fleur	fleurs
frais	
-G-	
grand	grands
-H-	
haut	
-I-	
il(le,lui)	il
	lui
ils	
imaginer	image
invitation	
italien	italien
	italienne
-J-	
jamais	
je(me, moi)	je
	j'
	me(m')
	moi
jeune	
jouer	jouant
	joues
jour	
joyeux	
-L-	
là	
là-bas	
le(la,les)	le
	la
	l'
	les

leur(leurs)	leur
	leurs
(se)lever	lève
lune	
-M-	
mais	
malade	
meilleur	le meilleur
mer	
mon(ma,mes)	mon
	ma
	mes
monde	
mot	
mourir	meurs
	meurt
	mourrais
	mort
-N-	
ne	ne
	ne ~ jamais
	ne(n') ~ plus
	ne ~ que
	ne rien
neiger	neige
ni	
nom	nommer
notre(nos)	notre
	nos
nous	
nuit	
-O-	
oh	
oiseau	les oiseaux
où	
oublier	oublions
	oublierai
ouvrir	ouvrir
	s'ouvre

-P-	
par	
parler	
parmi	
partir	partons
pas	
passer	passer
	passées
	est passé
pays	
penser	pensées
peut-être	
plein	pleins
pleurer	pleurs
plus	
pour	
pouvoir	pouvoir
	puisse
	pourrais
	pu
	peut
	pouvons
premier	
prendre	prendre
	prendras
prêter	
printemps	
-Q-	
quand	
que	que
	qu'
qui	
quitter	quittais
-R-	
rendre	rends
rêve	rêver
	rêvais
réveiller, se réveiller	réveil
revenir	reviens
	reviendra

revêtir	revêtent
rouge	
-S-	
sans	
voir	voir
	la voir
	vois
	voyant
voisin	voisines
voix	
votre(vos)	votre
	vos
vouloir	voulaient
	voulu
vous	
voyage	
-Y-	
y	

[부록 4]

‘기본 어휘’에 속하지 않으나 가곡에 제시된 어휘⁵⁶⁾

-A-
açoka
ailes
air
âme
amour(s)*
ardent
assouvir
aurore
-B-
babydère
baiser(s)*
ballade
bambous
barque
berceras
bergamasques
bonheur*
bouches
bout
brillant*
brouillés

56) 가곡에 나와 있는 단어 형태를 그대로 표기했으며 한 단어에서 파생된 다른 형태의 단어일 경우 밑에 그 단어들의 동사 원형을 ‘《》’표시 안에 밝혀 적었다. 또한, 한 단어의 단수형과 복수형, 두 형태가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단수형을 적고 괄호 안에 복수형을 표시하였다.

-C-
calme*
canaux
champs*
charmait
charmant
charmes
《charmer》
cesse*
chemin*
ciel(ciels,cieux)*
clarté
coeur*
col
colibri
collines
se consumer
cueillir
-D-
divine(s)
déesse
déguisements
délices
dénoues
dorée
douleurs*
-E-
s'échappe
éclair*
éclairé
《éclairer》
écloses
s'endort
enfler
enfuir
entr'ouvraient
esprit*
ensoleiller
essaim(s)

éternelle
entière*
étincelant
étoiles*
éveiller*
extase
-F-
franée
fantasques
fidèle
fines
fleurir
fluide
forêts*
fuir
-G-
gai*
genoux
guérirai
-H-
se hâte
Hélas
herbes*
humeur
humide*
hyacinthe
-I-
importune
-J-
jais
jets
juste*
-L-
lames
larmes
Las
lèvre(s)*

lilas
loisir*
luire
luit
《luire》
lumière*
luth
lux*
Lydia
lys
-M-
marbres
masque
mensonges
mirage
mistérieux*
(mistérieuse)
mineur
mode*
moindre
moroses
mouillés
-N-
néant
nid
noierai
nues
nul
-O-
ô
odeur(s)*
oeillets
ombrags
opportune
or*
ordre*
-P-
papillons*

parfumée*
paysage*
pêcheur
point
se pose*
pure*
-Q-
quasi
quelquefois*
-R-
radieuse
rayons
rayonnais
《rayonner》
ravie*
refermer
répand
répandre
《répandre》
ressemble*
roi*
rose(s)*
rosée
Roule
-S-
sachant
sanglotter
sommeil*
songe(s)
sonore*
souces
souffle
sveltes
-T-
telle*
tendre*
tendresses
terre*

tissé
toile
traites
-V-
vagabonde
vainqueur
vaisscaux
vallons
vers*
voiles
vole
volent
《voler》
voupté

Résumé

Enseignement du français pour un objectif spécifique

- Pour les étudiants en musique vocale apprenant le français aux facultés de musique en Corée -

KIM Eun-Hae

Maîtrise en didactiqu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Cette étude a pour objectif d'améliorer l'enseignement-apprentissage du français chez les étudiants coréens en musique vocale aux facultés de musique en Corée.

Aujourd'hui, dans l'enseignement des langues étrangères, il est important de considérer les besoins langagiers et les objectifs d'apprentissage des apprenants.

Il existe une distinction entre le français général et le français sur objectif spécifique dans les champs de la didactique du FLE. Le français général est destiné à tout public. Son objectif reste global, « enseigner le français » et ses contenus concernent plutôt la vie quotidienne ou la civilisation. Par contre, le français sur objectifs spécifiques (FOS) se destine à un public plutôt adulte souhaitant acquérir ou perfectionner des compétences en français pour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des études supérieures. Le FOS se caractérise par des objectifs d'apprentissage très précis et des délais de mise en oeuvre limités. Par ailleurs, les contenus de formation impliquent la construction d'un programme spécifique en fonction de l'analyse des

besoins langagiers menée pour le public concerné, c'est-à-dire un enseignement centré sur l'apprenant. En ce sens, les étudiants en musique vocale s'inscrivent dans ce domaine. Plus précisément, nous l'appellerons 'enseignement du français pour un objectif spécifique' chez des étudiants en musique vocale apprenant le français aux facultés de musique. Parce que la notion d'enseignement du français pour ces apprenants est quelque peu différente que celle présentée par le FOS.

Pour proposer un programme d'enseignement-apprentissage du français adapté aux étudiants en musique vocale, nous avons procédé à l'analyse sur la situation de l'enseignement-apprentissage du français pour les étudiants en musique vocale aux facultés de musique et à une enquête des besoins du français pour les étudiants en musique.

En premier, nous avons analysé les curriculum des départements de musique vocale et les manuels utilisés dans six Universités différentes.

Deuxièmement, nous avons fait des enquêtes pour connaître leurs besoins langagiers et fixer d'objectifs d'apprentissage adaptés. D'après l'analyse des enquêtes, c'est la compétence de prononciation et d'interprétation des paroles de la mélodie en français que les apprenants voulaient acquérir en priorité.

En dernier, pour élaborer le programme d'enseignement, nous avons mis au point les objectifs et les contenus d'apprentissage en nous fondant sur les besoins des apprenants.

Nous espérons que cette étude ouvrira une voie nouvelle à des études sur le FOS en Corée.

MOT-CLÉ

enseignement du français pour un objectif spécifique

français sur objectif spécifique

étudiants en musique vocale

mélodie française

besoin langagier

objectif d'apprentissage